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14 눈부신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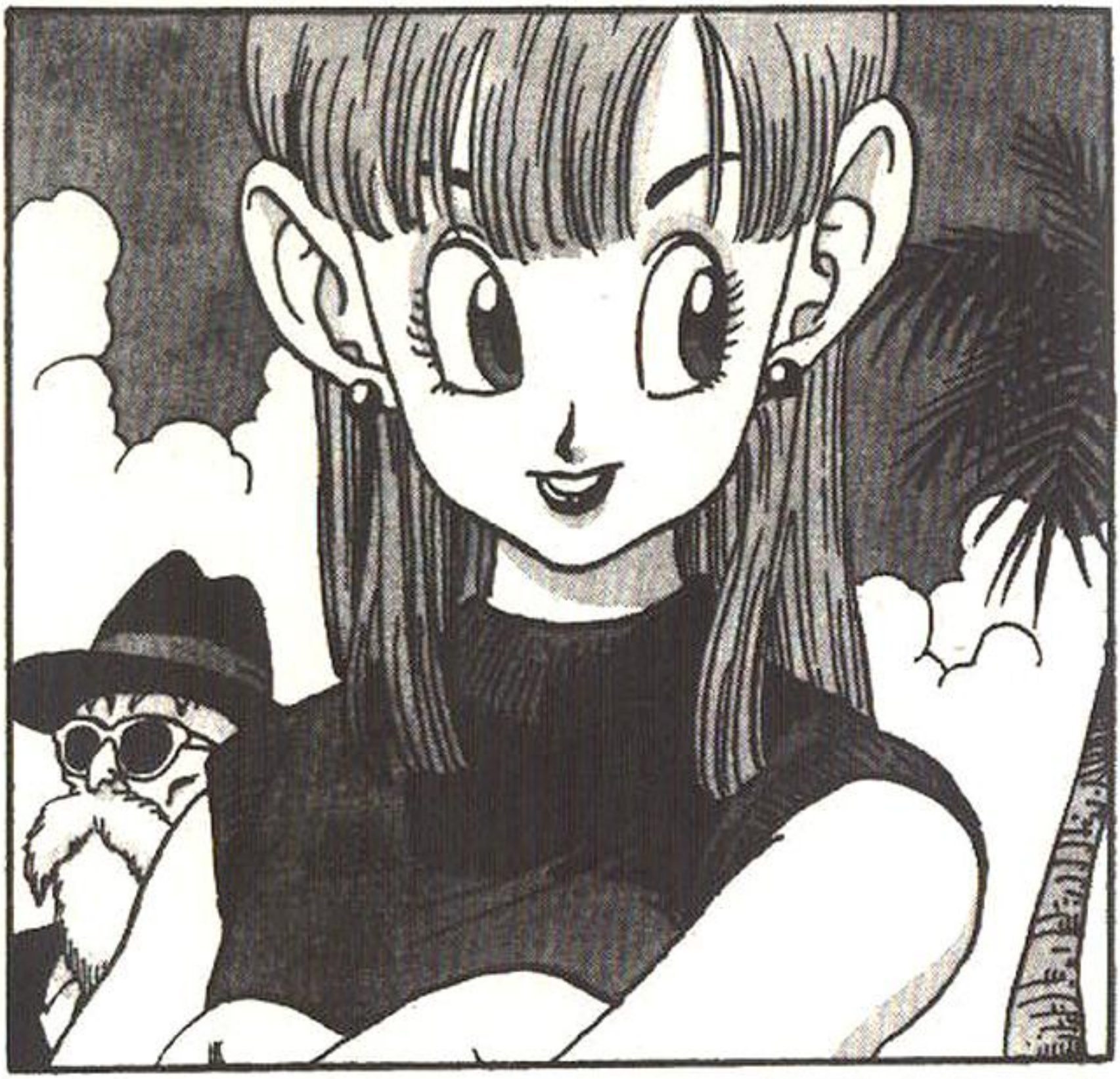
scanned by raprnb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영화관에 거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쁜 것과, 아내가 아들을 키우느라 좀처럼 여유롭게 외출할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정다감한 나는 아내를 두고 혼자서만 나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최근의 영화는 모두 비디오를 빌려서, 처음부터 보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쁜 경우라도 상관없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내 텔레비전은 한밤중 내내 켜져있는 상태.

anned by raprnb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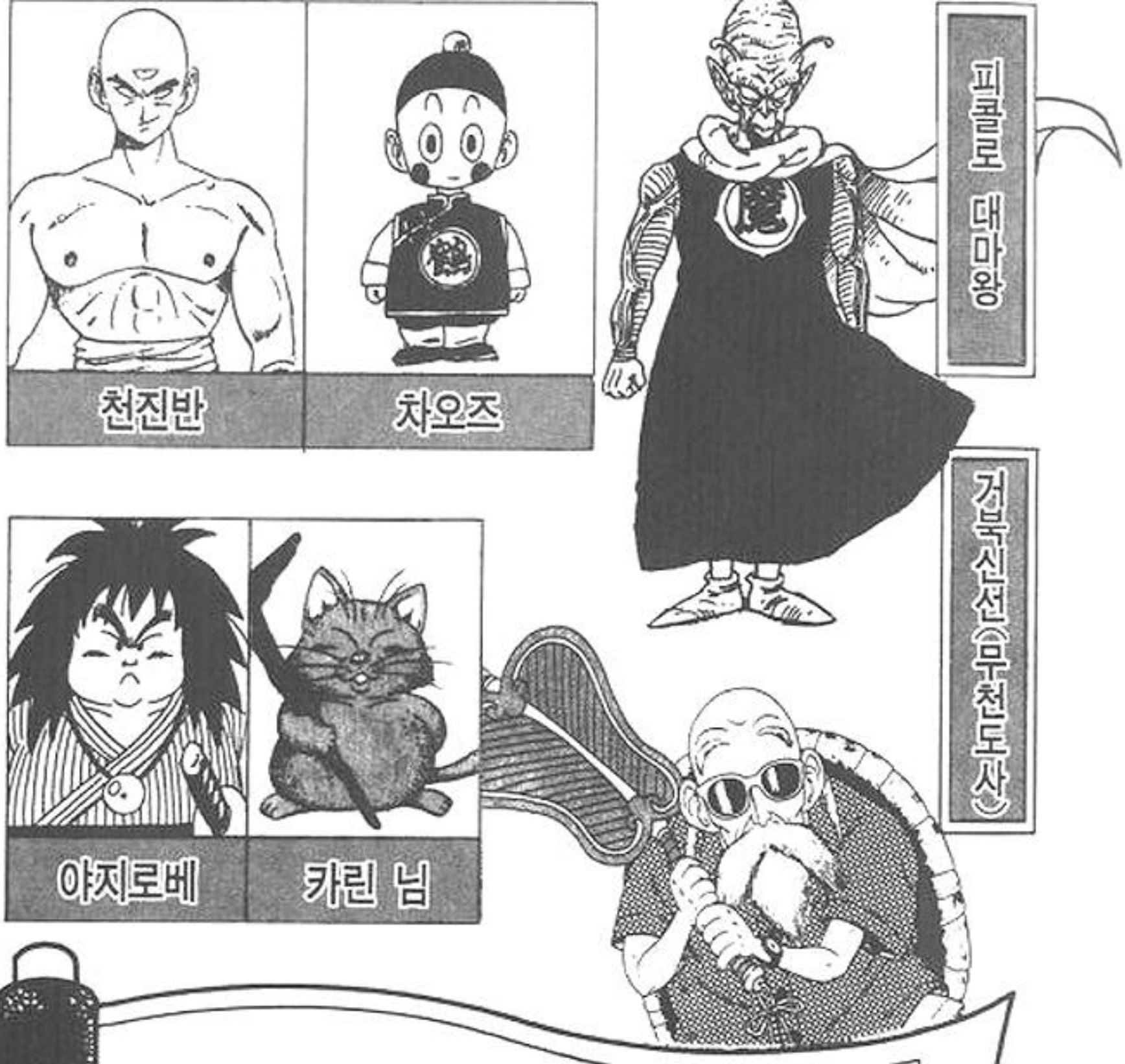
드래곤 볼

제14편 눈부신 도약

AKIRA TORIYAMA

등장인물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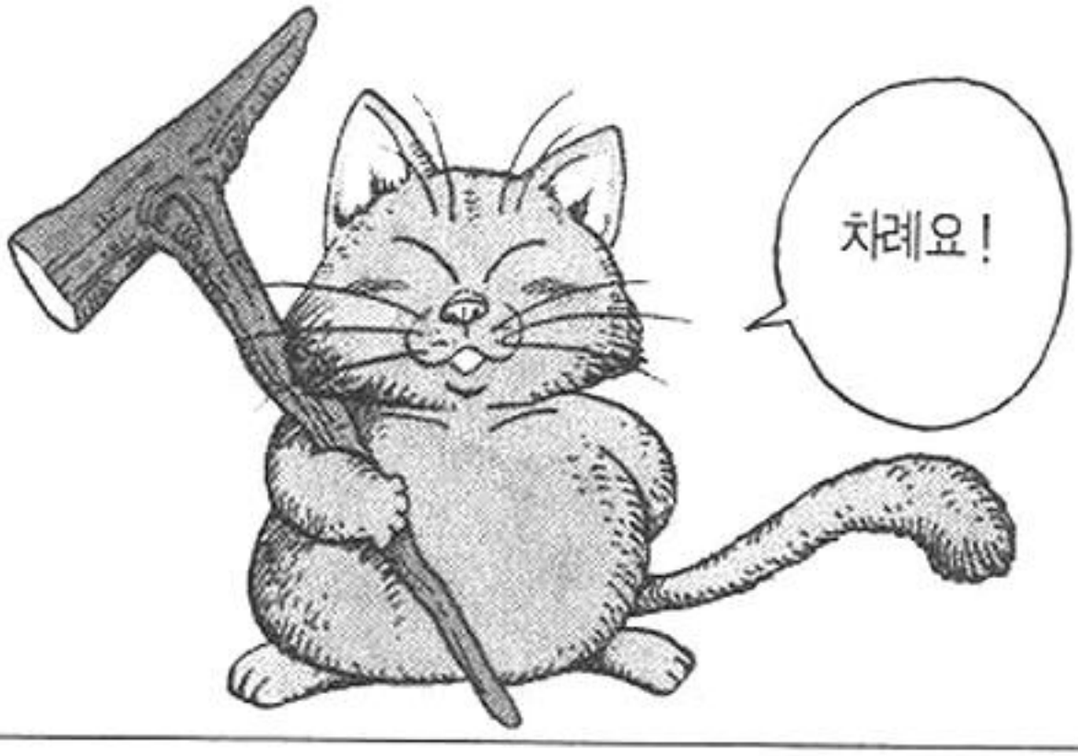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준다는 신기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악당 피라후가 못된 소원을 빌려 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먼저 말해 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모험여행을 떠난다. 더욱 수련을 쌓은 오공은, 3년 후의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다. 하지만, 세계 정복을 꿈꾸는 피콜로 대마왕에게 친구들이 계속 죽임을 당한다. 한 번 패한 오공은 보다 강한 파워를 얻어 다시 피콜로에게 도전한다!!

DRAGON BALL 14

눈부신 도약



제157화 불사신의 결전!! ····· 7
제158화 손오공 최대의 위기!! ····· 22
제159화 황야의 대 격투!! ····· 36
제160화 손오공 최후의 도박!! ····· 50
제161화 손오공의 승리!! ····· 64
제162화 여의봉의 비밀 ····· 78
제163화 신전 ····· 92
제164화 신님의 등장 ····· 107
제165화 용신 부활!! ····· 122
제166화 각각의 재회 ····· 136
제167화 파란의 천하제일 무술대회 ····· 150
제168화 8명의 승자 결정!! ····· 164
표지 페이지 대특집 XIII ····· 181

DRAGON BALL

제157화
불사신의 결전!!




역시…, 놀라운 파워군.
과연 허풍만은 아니었어.


각오는 다 됐지?
내 풀파워의 유력을 보여주마!


너나 각오해! 나도 모든 힘을 쓸 테다!


크흐흐….




타!


끝났다!!


당했다!!


탁—
아…
아앗!!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존재할 리가 없다구!!

끝났군…! 으하하…! 박살이 났겠지!

모…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인가~!?

에~.

이 목소리는 …?

어…?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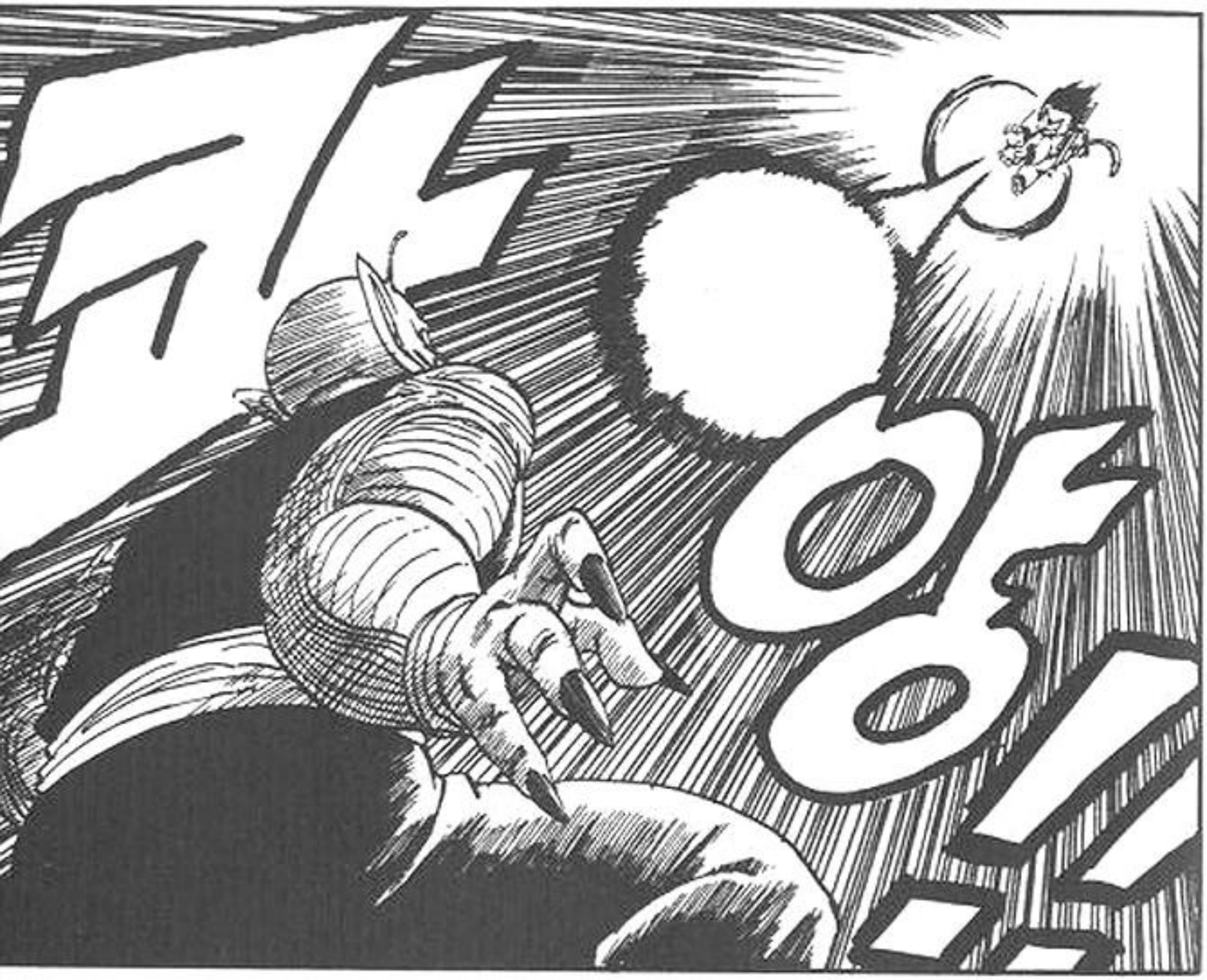
기~.

르~.

오, 오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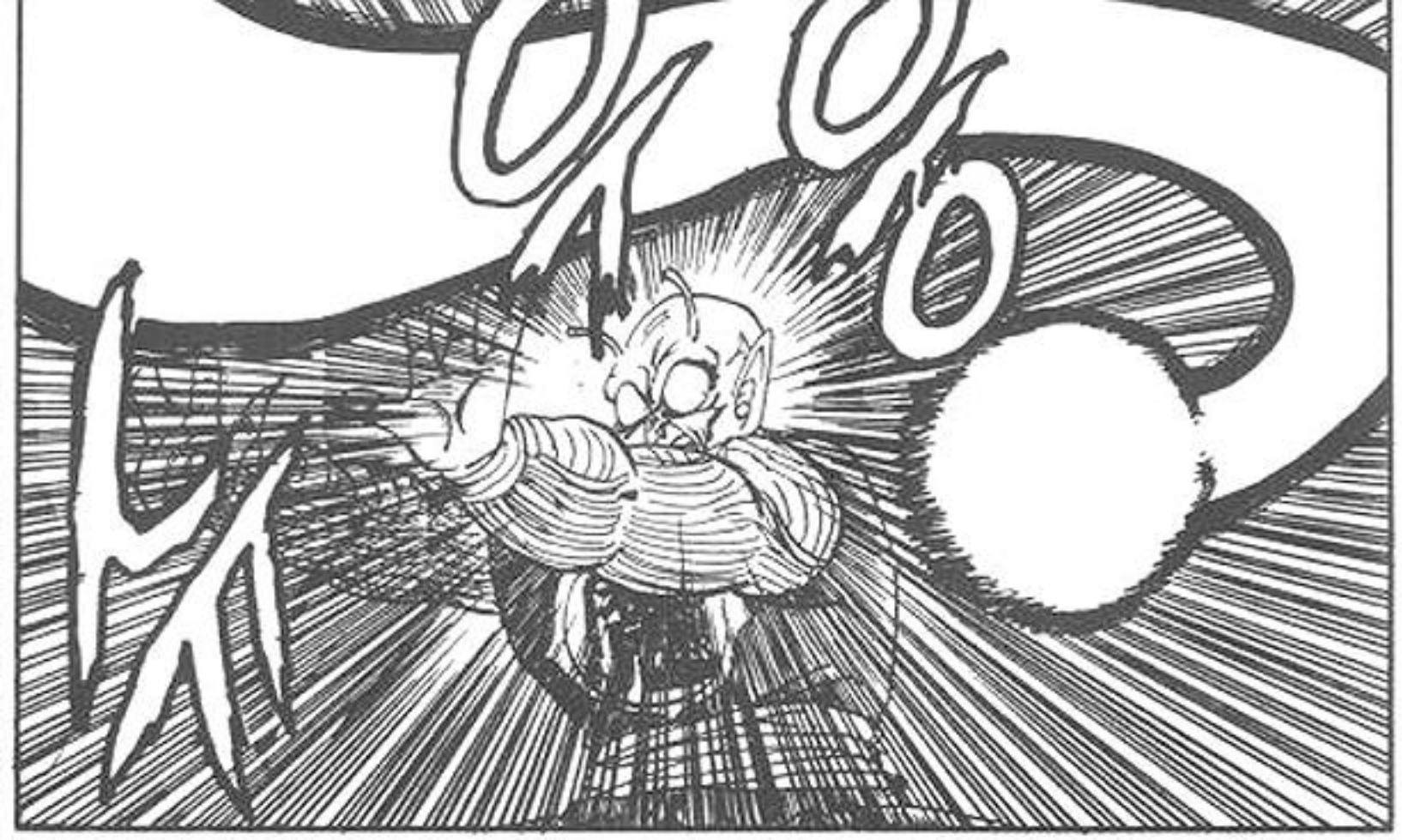

서….
설마…!
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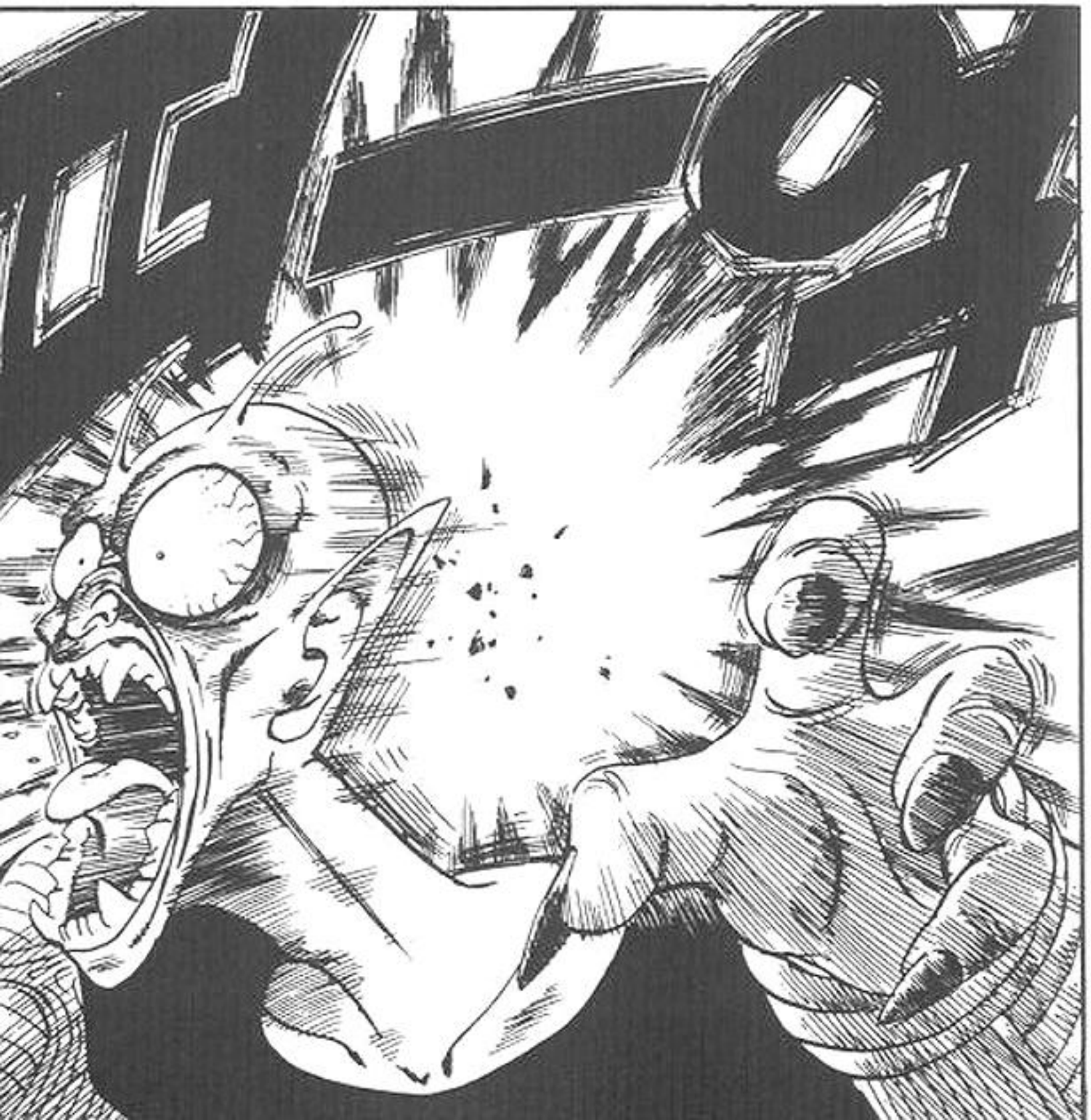

파ー!!


앗!


그 기술은
통하지
않아!


지금이다!!
!!
타앗!!





으…
으윳…!!

됐다!!
성공이야!!

지금의 에네르기파는 그냥 맛보기라구!

일어서! 별로 아프지 않을 텐데!

타

대… 대단한 솜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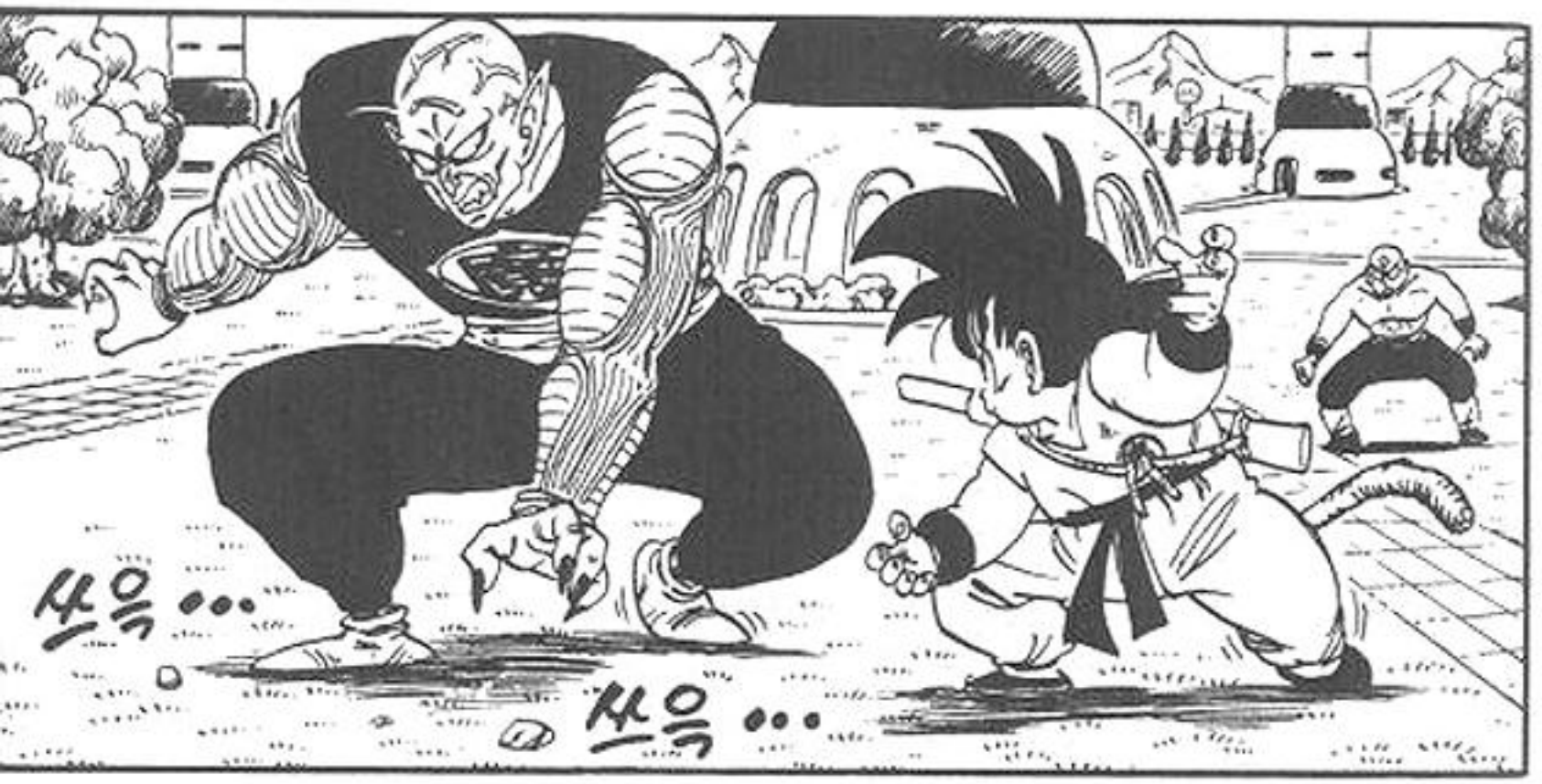
에네르기파를 회전시키다니…!

그건 서로 마찬가지!

너… 너, 혹시 괴물 아냐…?


물론
네가
죽겠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구….
이 승부는
….


쓰읍…
쓰읍…


퍼버버버버


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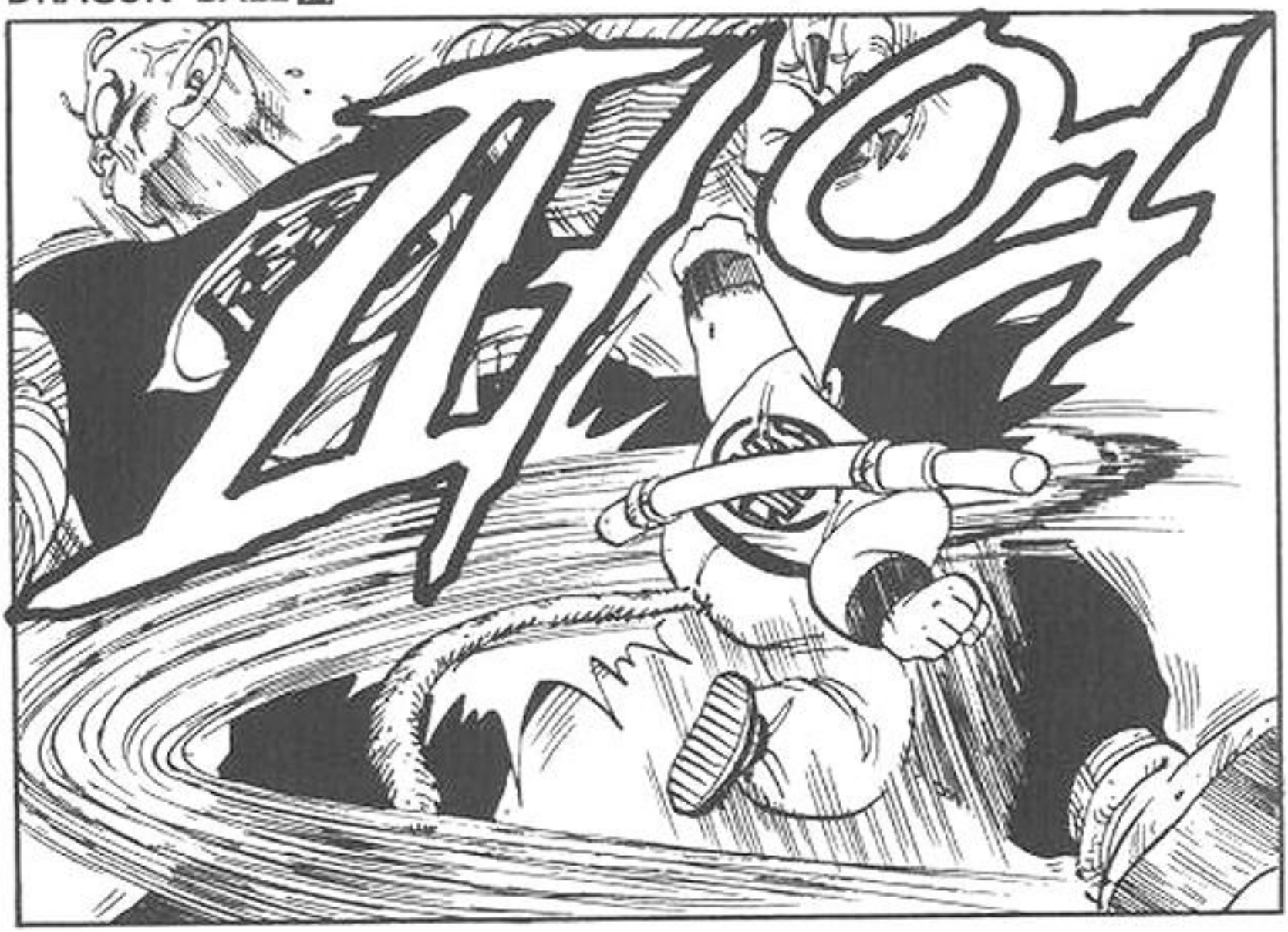
파악
파팟 파팟
파팟
타닥

!?

너… 너무 대단해…! 도저히 내가 끼어들 틈이 없네….

다음은, 제158화 손오공 최대의 위기!!




ZAP


Z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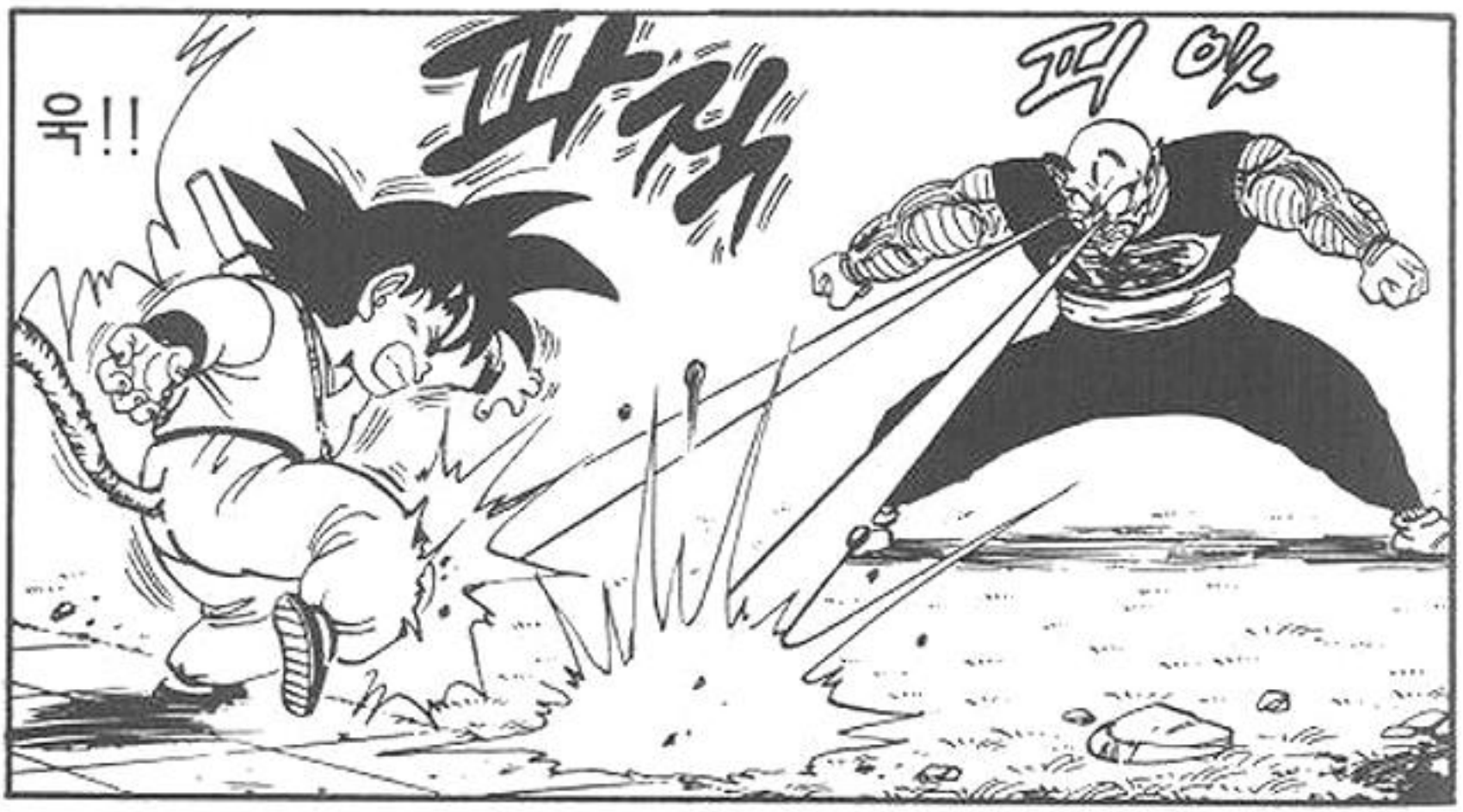

BAM


KABOOOO



쿵…
헉
헉
끄으으으…!
헉헉
자, 잘 한다!
오공이 약간 유리해!
뭔가 밖이 꽤 소란스러운데요….
으음.
국왕님, 저것 보세요!
피콜로 놈이 아직 서쪽 도시로 안 가고 있습니다!
뭐!?
정말!?


어라?
저 두 사람은
누구지?
지.
진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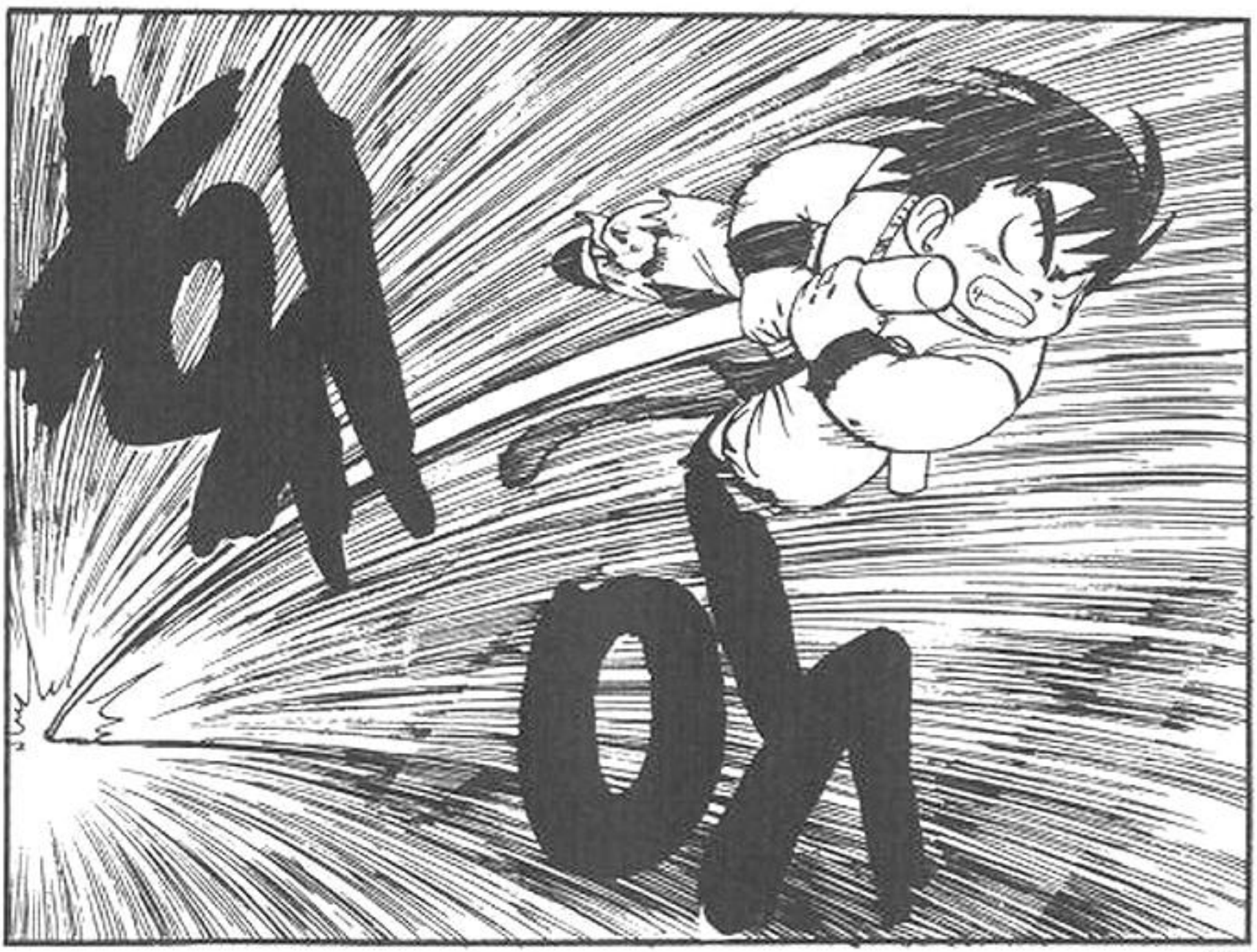

욱!!
파앗
피 앗


쳇!
한쪽
다리로도
충분
하다구!


으하하!
됐다!!
한쪽
다리로는
빠른
동작이
불가능해!


아….
아따거~!


으하하!
헛소리
마라!
늘어나라,
여의봉아!
탁
퍽


악


앗!?


탓!!


그…
그러나….
국왕님!
어쨌든 여긴
위험하니 지금
피하십시오!


우, 우와!
저 앤
누구지!?


그때 국왕이신
당신이
안 계시면
세상은 어떡
하라구요!?
전 세계의
미래를
저 애들에게
맡깁시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야….

아…, 알았다…. 애들이 싸우고 있는데 우린 도망만 치다니….

제길…!

끙…!

이상한 막대기를 쓰다니…!

내 실력이 어떠셔?

헤헤~!

죽지 마라, 천진반!

10분 정도만 더 가면 도착한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피콜로 대마왕은 아직 킹캐슬에 있다고 합니다!

앗!

천진반이 막고 있을 거야!

서쪽 도시가 파괴되었다는 뉴스는 아직 없어!

CAPSULE


위험해서
접근이 불가능해
거의 알아볼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은
청년….
이 화면은
망원 카메라로
잡은 영상
입니다.


두 사람!?


킹캐슬
안에서
무시무시한
싸움을
벌이고
있답니다!


혹시
손오공
….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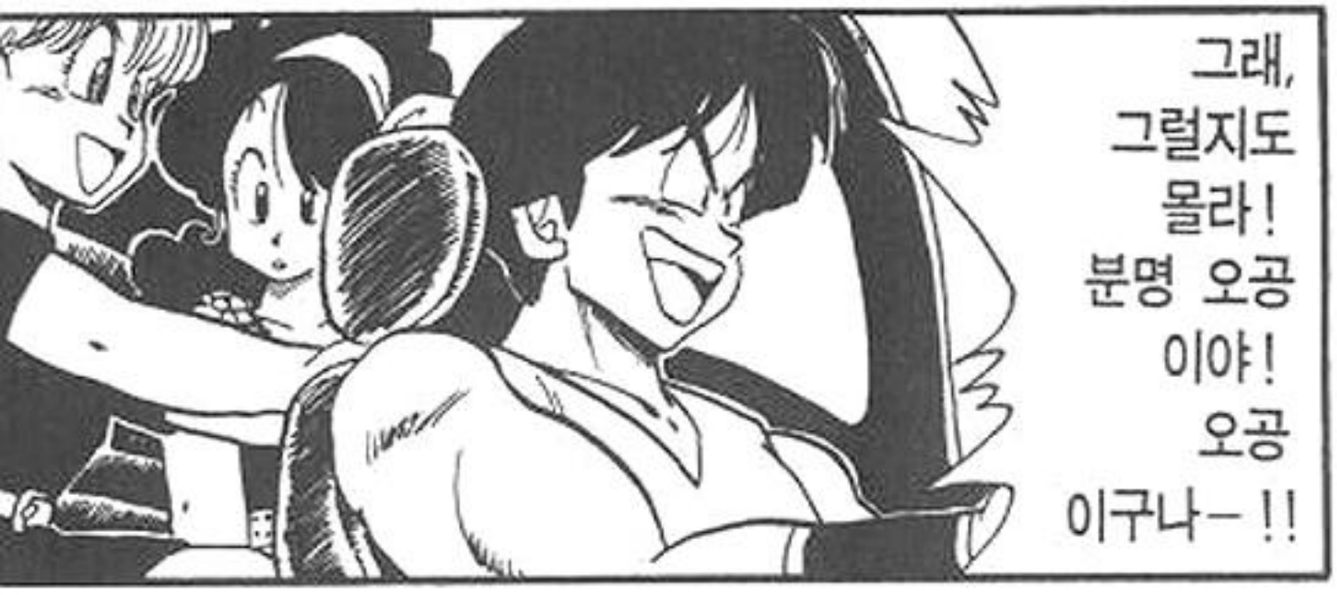

앗!


소년
…?


점쟁이
바바 님의
얘기….
참, 기억
안 나?


그치만 누구도
죽은 걸 본 건
아니잖아.
그냥 추측일
뿐이지.
바보야!
손오공은
이미
죽었어…


저 녀석이
언젠가
이 세계를
구해줄 거야.
정말
대단한
꼬마로구나.
아!


그래,
그럴지도
몰라!
분명 오공
이야!
오공
이구나-!!


요…, 용서할
수 없다….


오공이
세계를
구해준다-!!


놀군!


하아아아!!


어쩔
셈이지!?
아니!?


!?


이…아닌…!!

이거 큰일났네….
엄청난 파워를
집중시키고
있잖아!

휘우우우


크, 큰일 났다!!
데굴 데굴!


파앙
앗!!


빠른 동작을 취할 수가 … !!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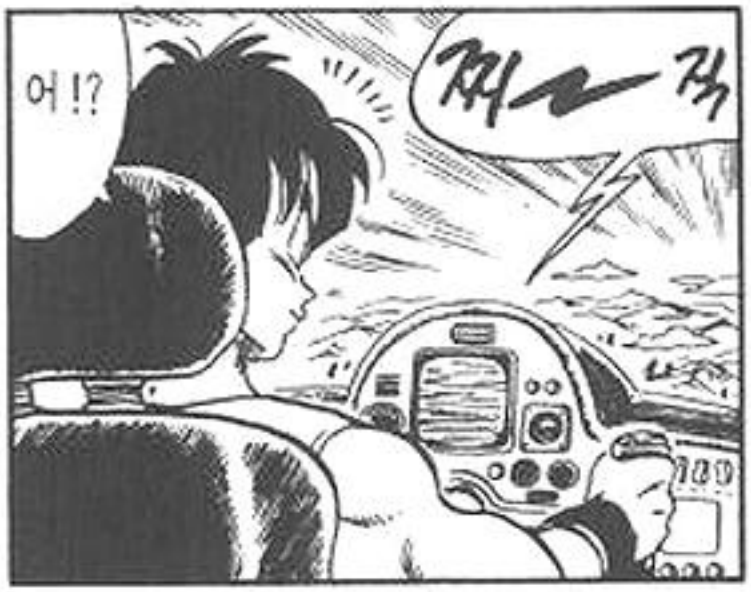

막대긴 없어 졌다!!


넌 이제 끝장 이다!!





다음은, 제159화 황야의 대 격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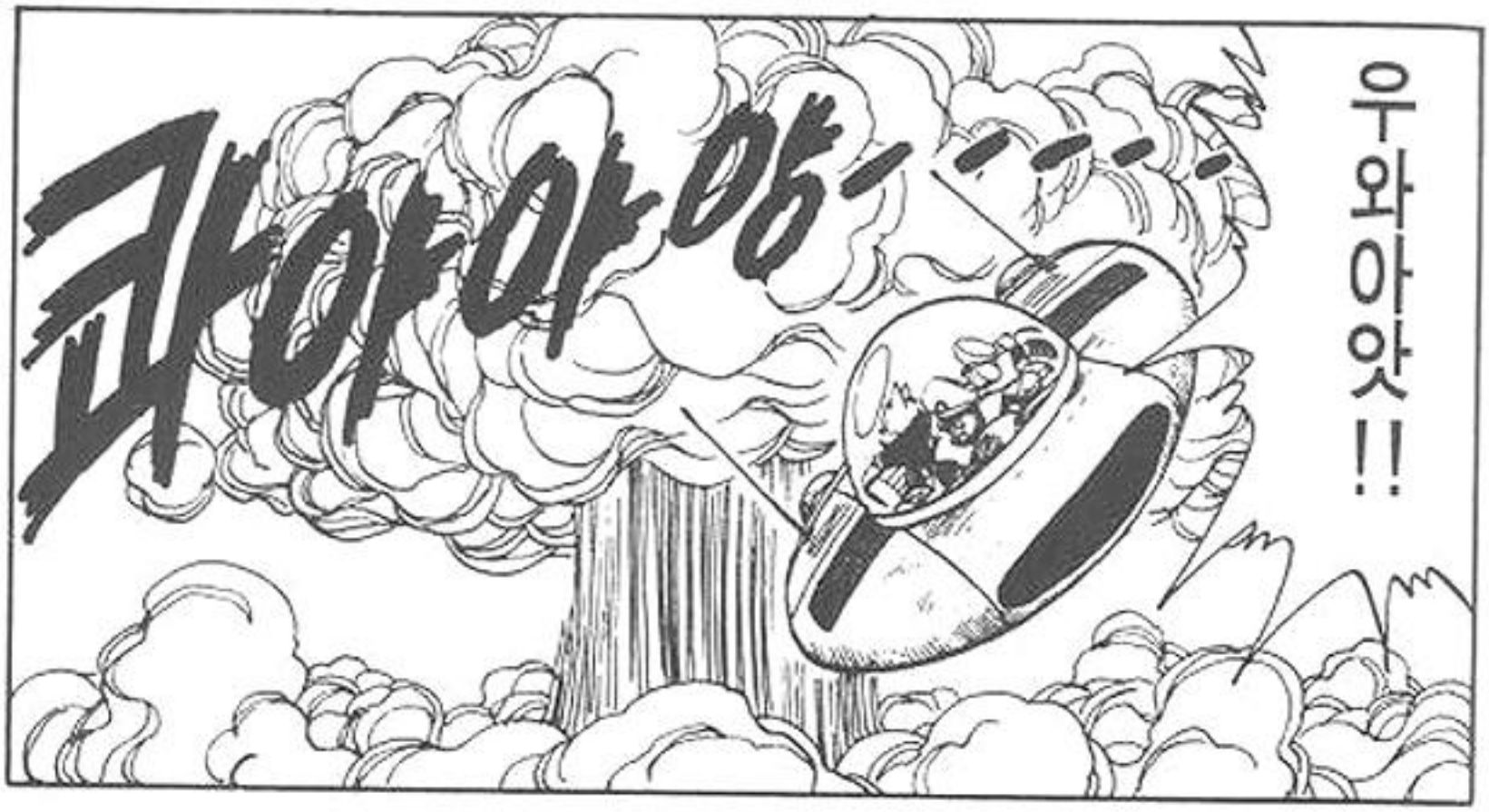

어!?
찌~~~직


이상하네.
왜 TV가
안 나오지…?
찰칵
찰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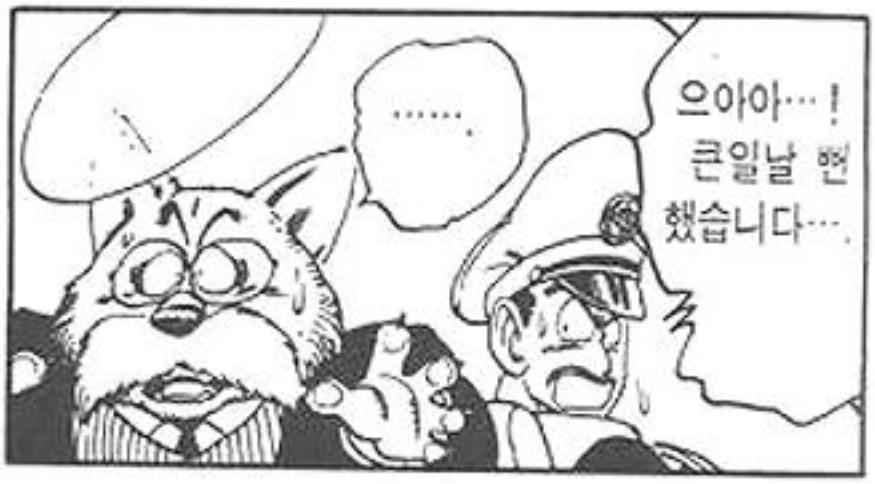

어?
저거
봐…!

킹캐슬
방향
이다!!
뭐,
뭐지!?
쿠쿠쿠쿠쿵




파아아앙----
우와아앗!!


도…
도시가….
킹캐슬이…!


……
으아아…!
큰일날 뻔
했습니다….


휘이이앙----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완전
콩가루가
되어
사라
졌다구!

후하하
하하하!!

후후….

멈췄

!!

야호-!

이…
이럴 수가!
그 정도로
부상 당해서
피할 수 없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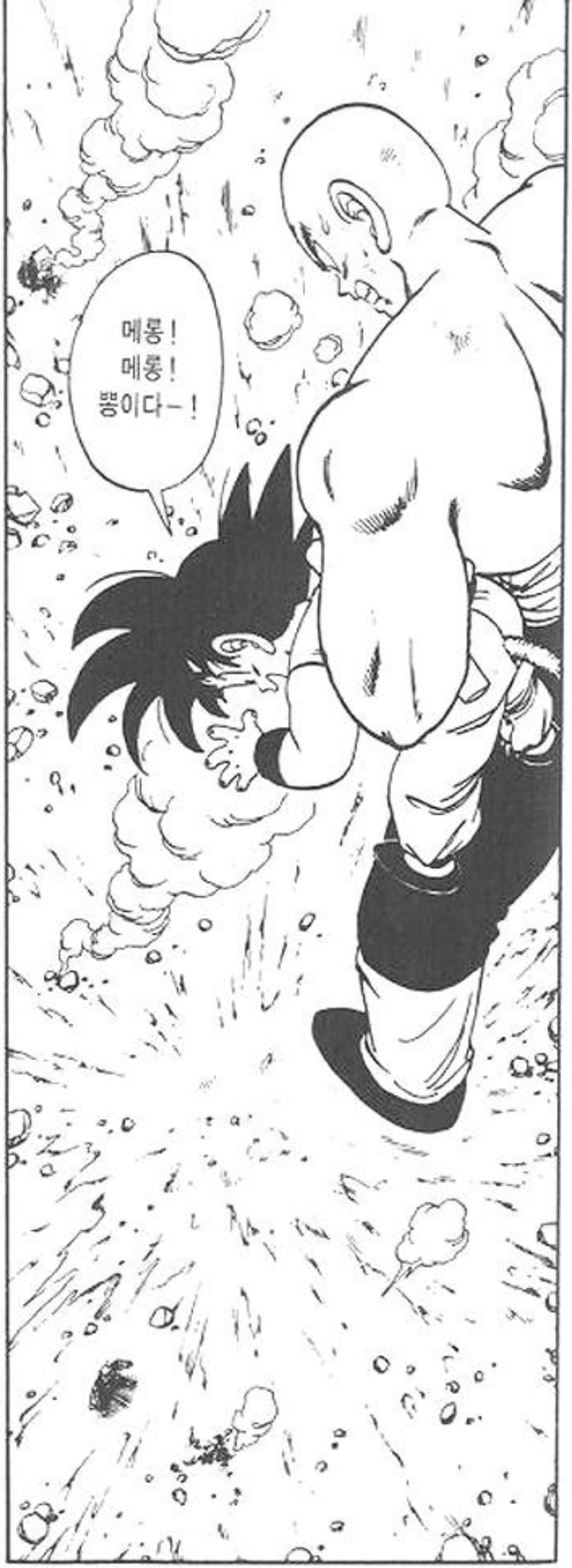
기다!
노, 놈의
기가 아직도
느껴지네…!

아!!


저…
저놈의
무공술이
있었구나
…!
그랬군…!


흐


고마워~!
땡큐!
탁


메롱!
메롱!
뿡이다-!

괜찮아, 천진반?

앗!

덜썩

그래…, 최후의 힘을 다 짜내서 쓴 무공술이었군….

크흐흐…, 이제 네놈은 완전 내 밥이다.

크흐흐…, 죽는 시간이 아주 약간 연기됐을 뿐이지….

한 번 더해 보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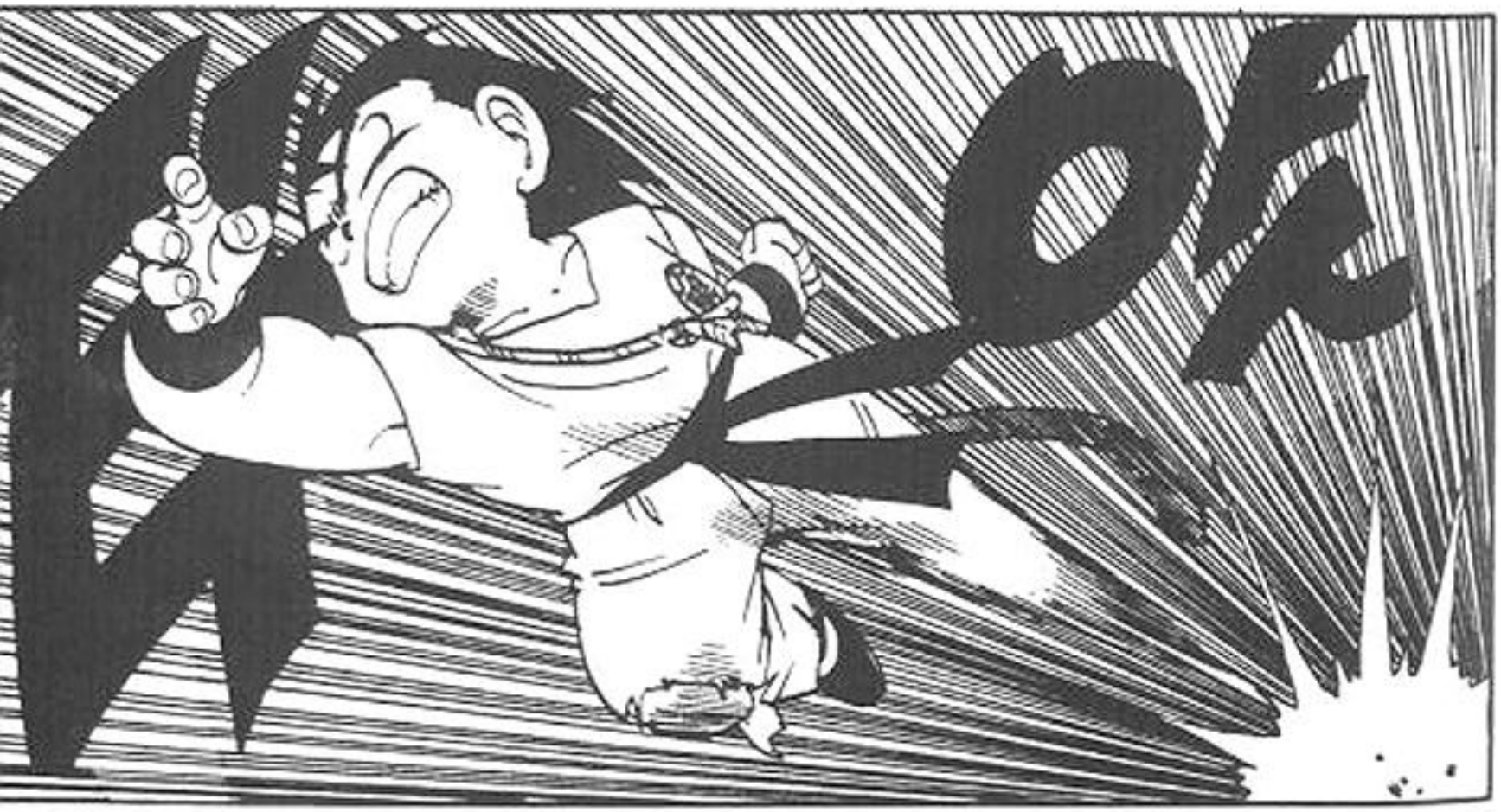
지금 공격 때문에 너도 힘을 꽤 많이 썼을 텐데?

호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한쪽 다리로…? 아니면 이번엔 정면으로 내 공격을 받아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내 폭력마파를
얕보면
큰코 다쳐…!!


이때를
기다
렸다!!


허점
투성이잖아!!
따끔따끔……
우오
우오…!


OF


THE END


타닥
비틀-
큭…!
안 돼!!
한쪽 다리 때문에 힘이 부족했어!

이놈!
사라져
버려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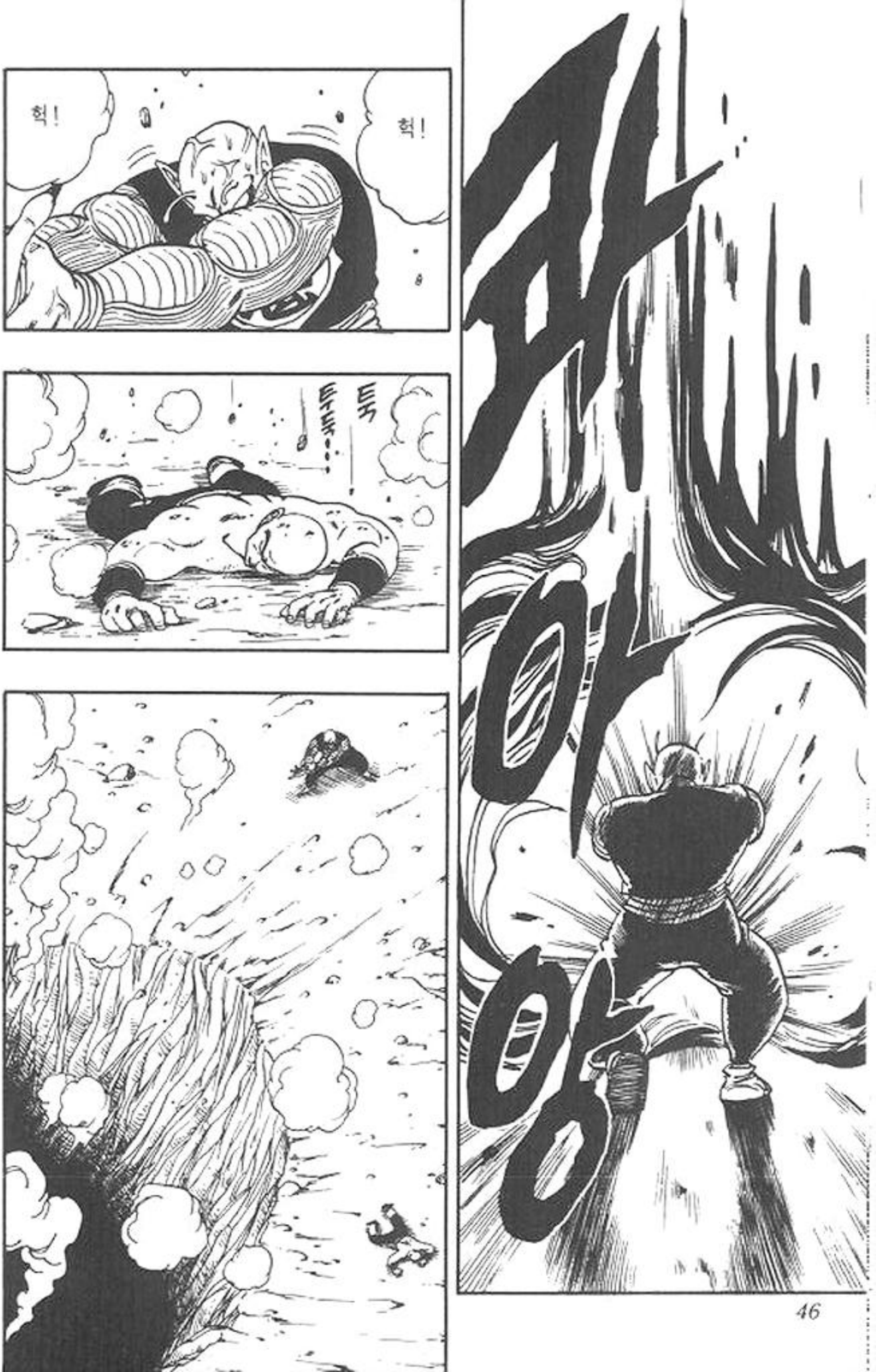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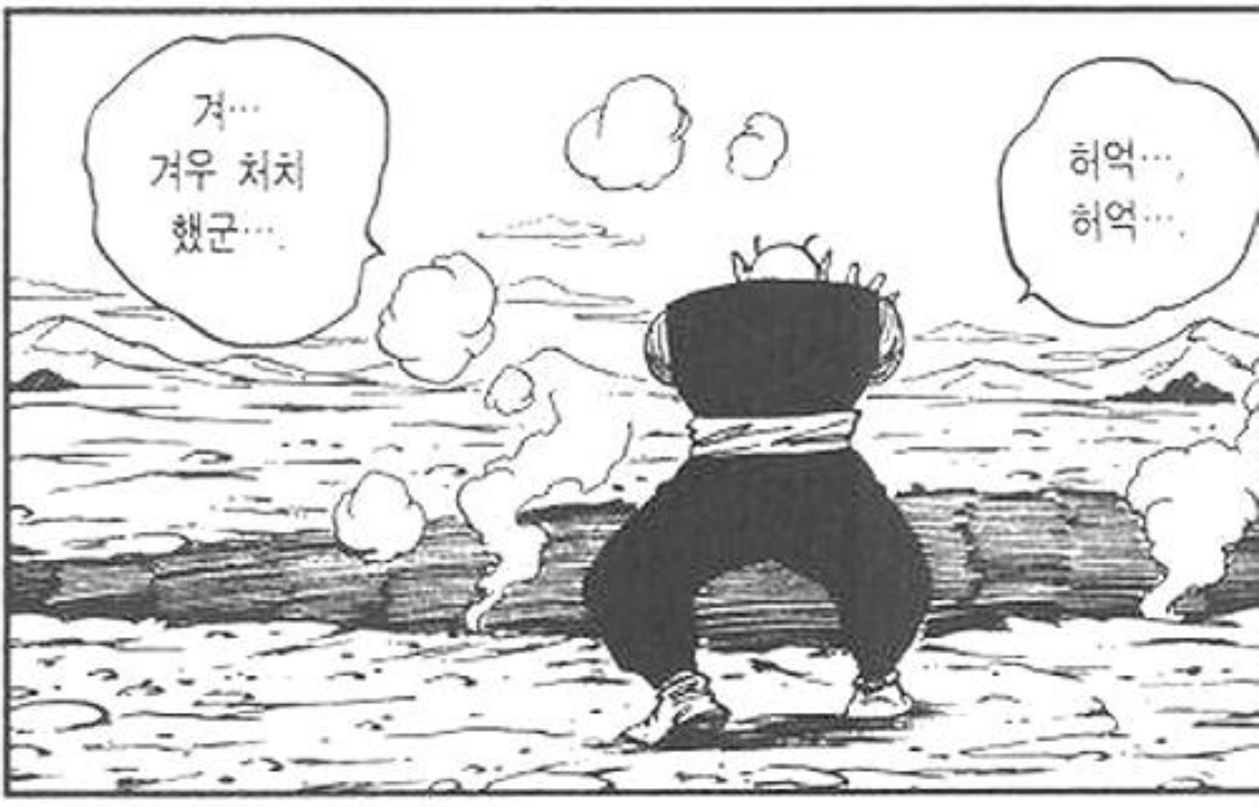

크!!




으아아아…!!


어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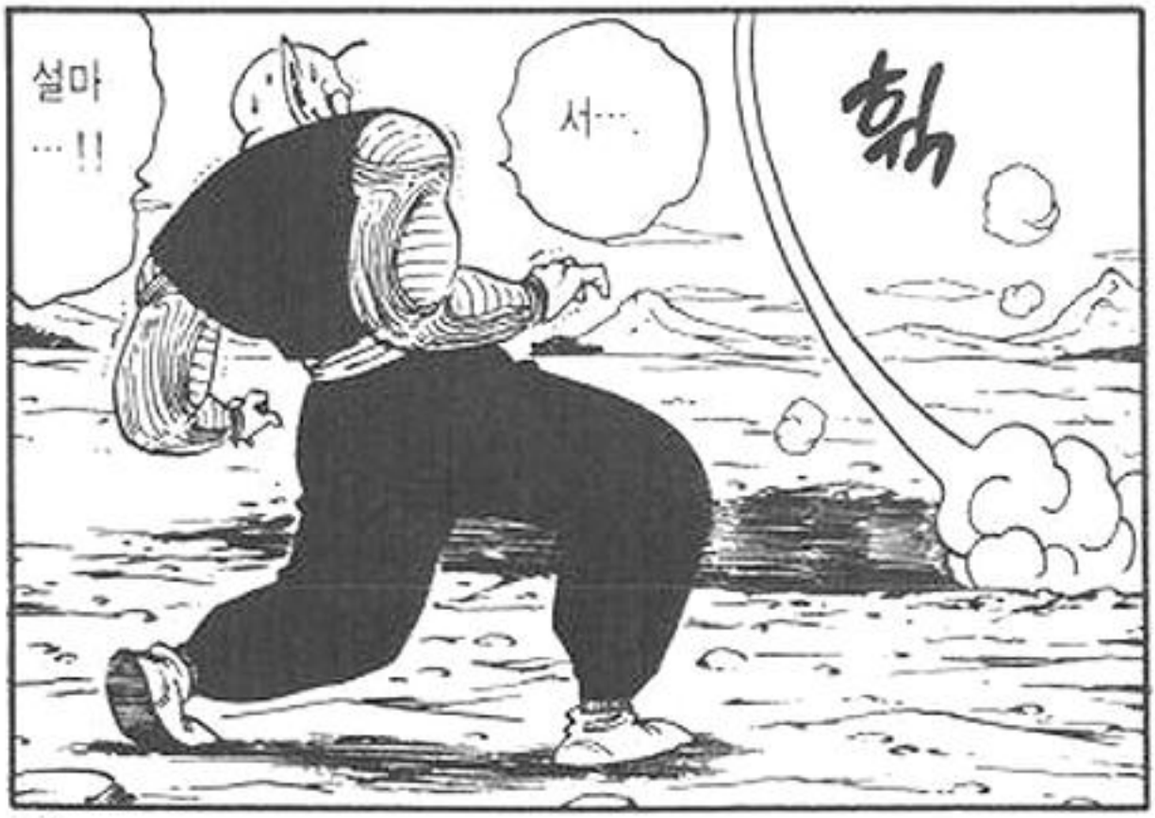

헉!
헉!
투
투투…


겨…
겨우 처치
했군…
허억…,
허억…,




그…,
근두운…!


쥐방울만한
놈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설마
…!!
서…,
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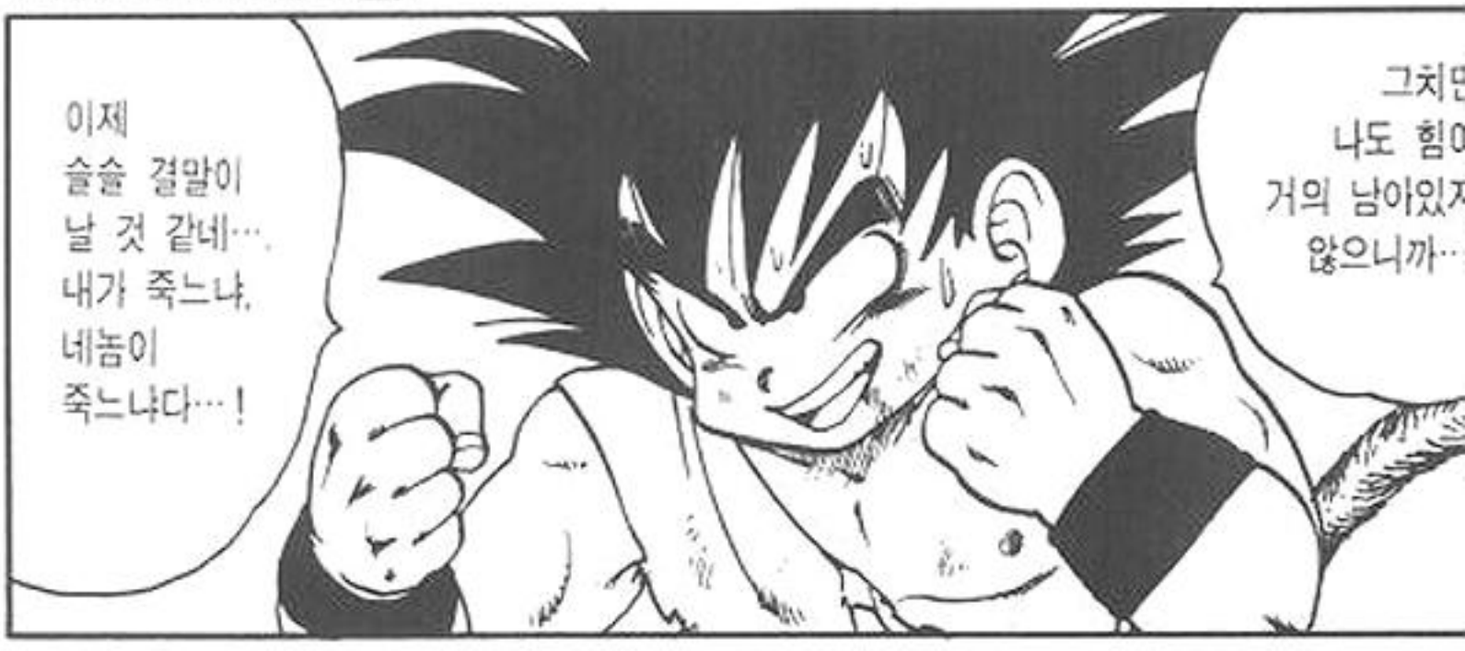



으…!
히히히…
겨…
겨우
견디긴 했네.


세…
세상에나…,
이럴 수는
없어…!




헤헤헤~!
역시
네 힘은
많이
떨어졌어.
탁!!!
……











다음은, 제160화 손오공 최후의 도박!!


윽… !!


제길… !


소…,
손오공!
난 상관
하지 마…,


이놈의
머리 정도는
순식간에 가루를
만들 수 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해봐… !
魔


쓸데없는 소리 집어쳐!
꾹…
지끈…지끈…
크아아 아아…!!
그만둬!!
그만 하라구!!
시,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으으…
말 한번 잘 듣네.
자…, 움직이지 마라….

크이이….

꼼짝도 하지 마….

알았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놈 목숨은 없을 줄 알아….

하아아….

후우

크…!

완전히 비정해질 수 없는 놈이 어찌 악을 이길 수 있겠냐.

크흐흐! 너희들 인간의 약점은 그 정신이 물렁하다는 거지….

이젠 그 팔도 못쓸 거다!

으하하 하하—!

으… 으윽….

……

난 피콜로를 없애야 겠어!

천진반, 미안하다!

그래, 어쨌래?

무조건 우리를 죽일 셈이구나.

으…! 이놈.

얘… 얘가 죽어도 좋다는 거냐!?

이… 이놈이!!

해봐!!

드래곤 볼로 다시 살려내줄 테니까!!

으하하! 멍청한 자식!

용신은 이미 내가 처치 했다네!

뭐… 뭐라고!?

뻥치지 마!

거짓말 같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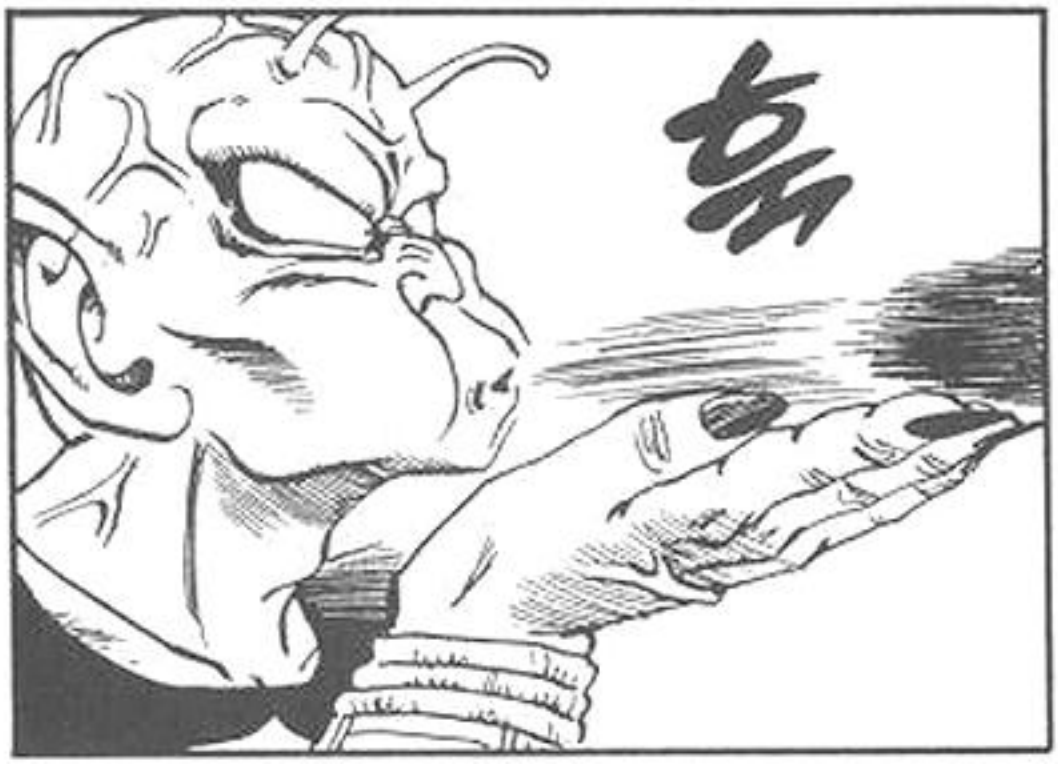
나한테는 그따위 용을 죽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도 가능해.

……

이… 이럴 수가…!

후후후… 안 됐군.

그러니까 이놈을 죽이면 다신 못살린다는 거지.


흠


해볼
테면
어서
덤벼.
이놈을
죽이고
싶다면….


끼아!!
OOF




OOF
OO…!


Eh, Hh

나중에 천천히 요리해 주마!

이젠 이놈도 필요없다.

털썩..

이제 넌 더이상 일어설 수도 없어.

크흐흐! 불쌍한 놈….

마치 애벌레 같군!

으으…

우선 널 축제의 제물로 바친 다음에!

드디어 끝났다! 피콜로 대마왕님의 승리야- !!

으하하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

암흑 세계의
지배자한테
반항했던
어리석은
놈아!





죽어랏—!!

넌 실패했어!
팔 하나는
남아있다구!

타앗!!


FF
OF
OF

아니!?


GOKU


불끈
척
내 모든 것을 이 주먹에 건다!

완전히
저승으로
보내
주마!!

박살
낸다
—!!

하앗!!

다음은, 제161화 손오공의 승리!!

크윽!!

내 모든 것을
이 주먹에
걸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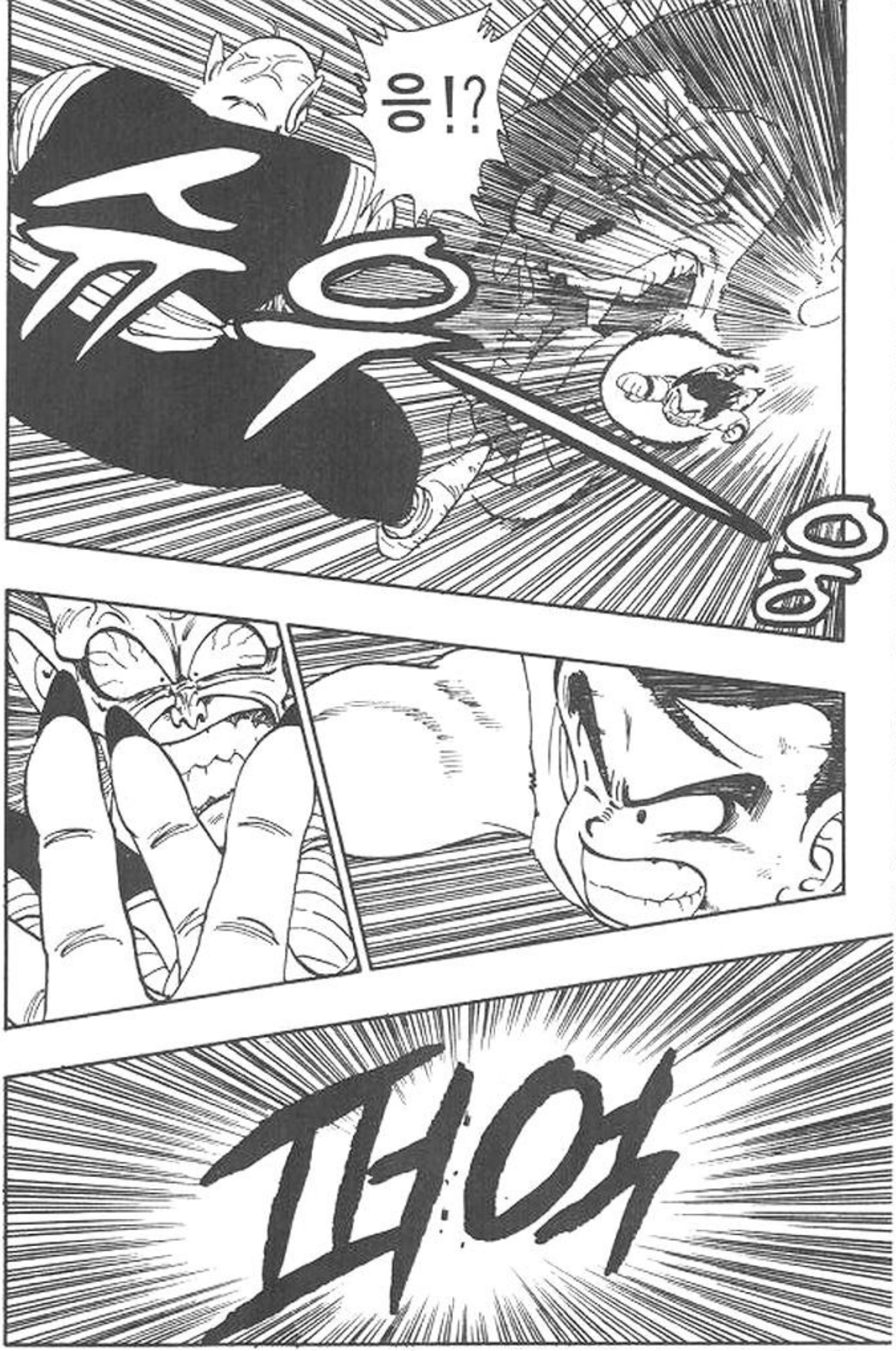
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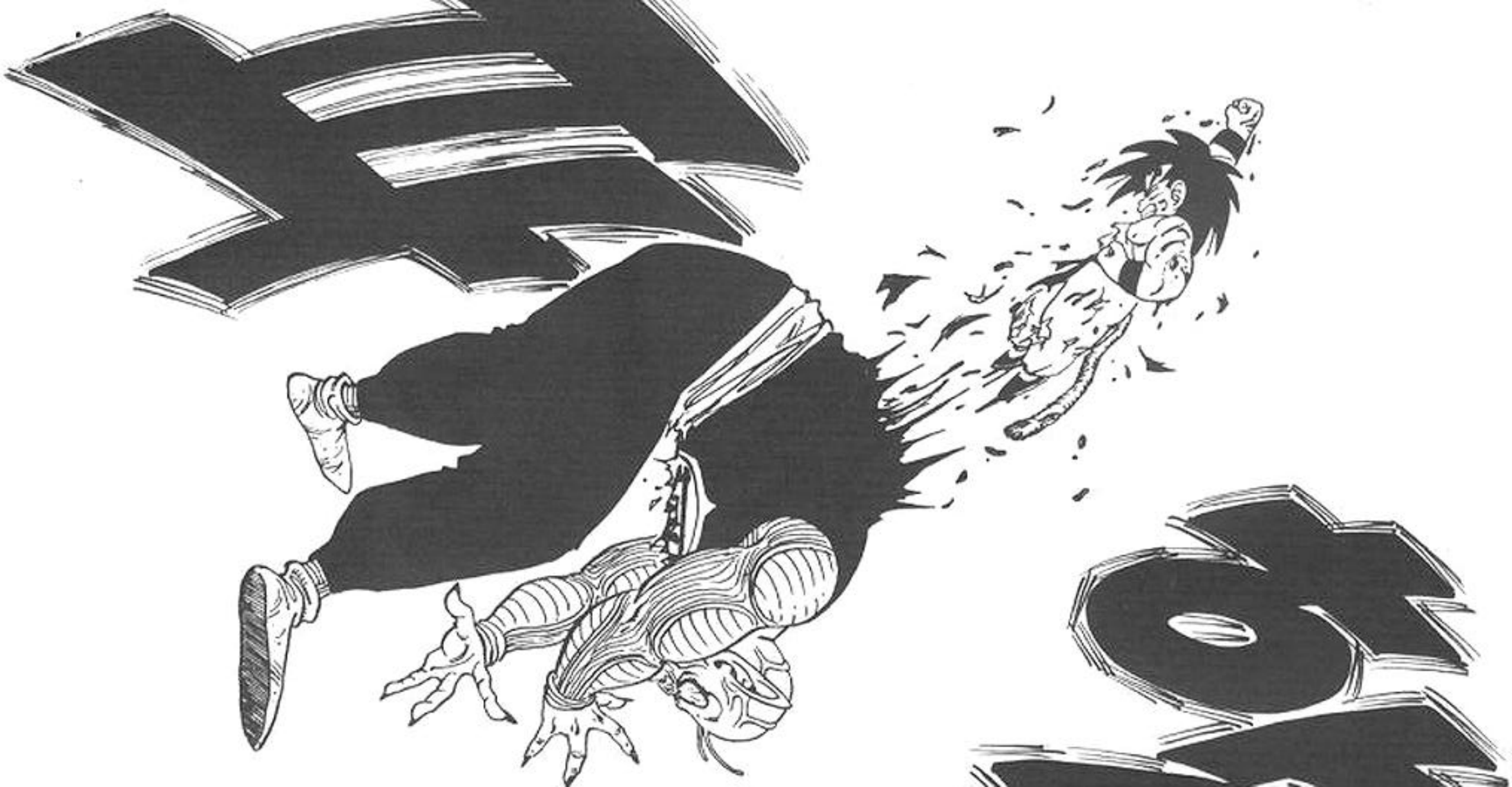
완전히
저승으로
보내주마!!

박살낸다—!!

하압!!




응!?
THOM



이…
이겼다…!!

이겼다…

이…
이겼어
!!

나… 나
피콜로 님이
패하다니….

이…
이럴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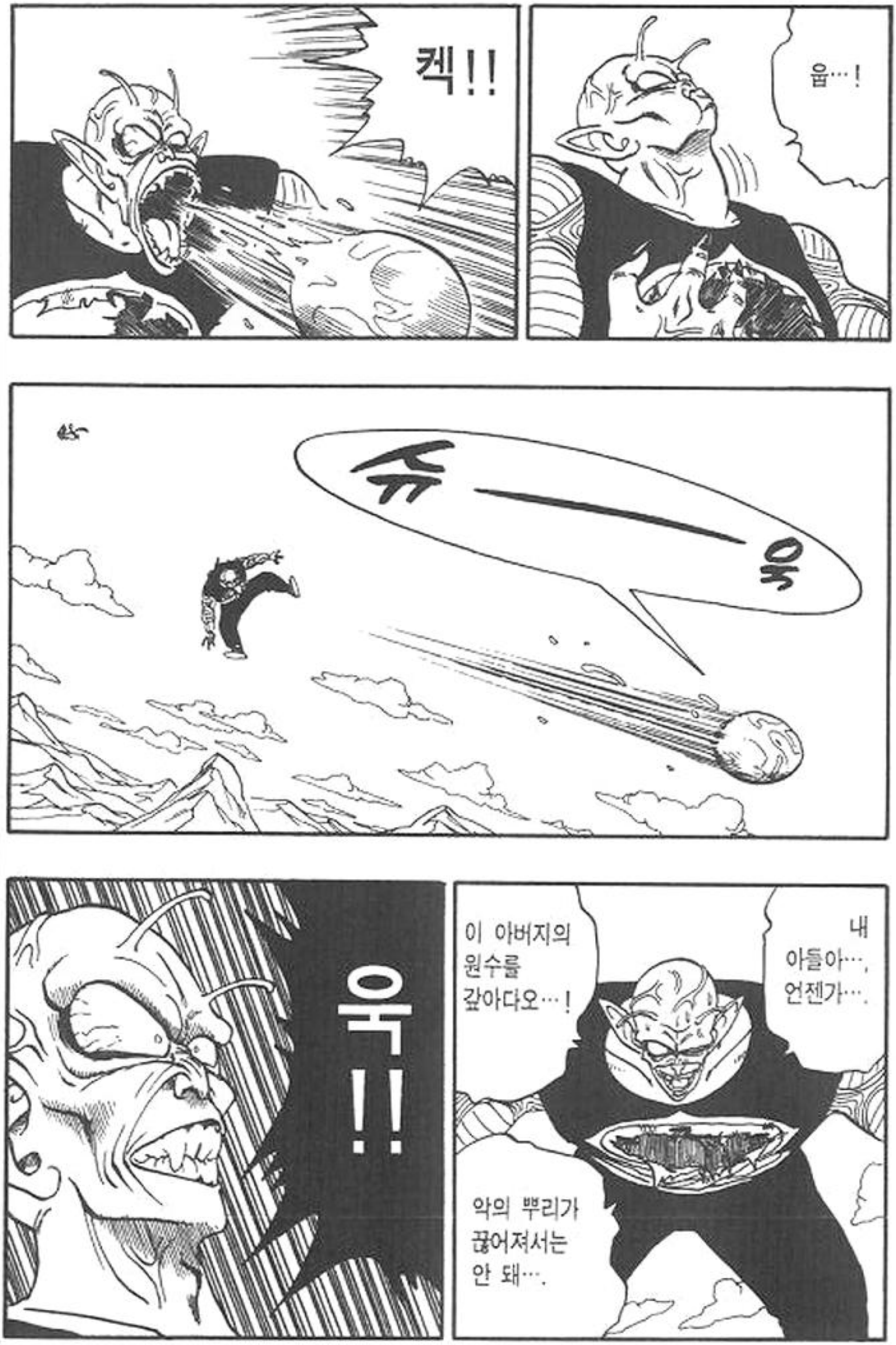
크…
크으~ !!

후…,
훌륭하단
말밖엔
할 얘기가
없군….

크…
크크크….

사라진다는
착각은
마라… !

하… 하지만
이대로
마족이….



켁!!
웁…!
슈——욱
욱!!
내 아들아…, 언젠가….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악의 뿌리가 끊어져서는 안 돼….

06

크!!


우욱…!
소…, 손오공…!
철썩
영차…!
어… 어라? 야지로베 잖아?
안뇽!
휴우…
우…우리 편인 가…?


머…, 멀어서 잘 보이지 않네….
어… 어떻게 된 거야…?
CAPSULE


지… 지금 폭발 소리는 뭐지?


아…, 말은 잘한다….
쳇! 오처럼 피콜로는 내가 없애려 했더니….


조…, 좀 위험한 분위긴걸….
여…, 역시 가서 도울 거야…?
다…, 당근이지! 친구를 죽게 놔둘 순 없어!


둘 다 차에 타. 우선 그 상처를 치료해야 해!


손오공…, 너 정말 대단한 애다. 진짜 너무 잘 싸워줬어.
헤헤…. 나도 몸이 엉망이야….


어서 거북 하우스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모두한테 알려 주고 싶거든.
정말 편찮아…?
난 됐어…. 손오공만 데려가.

거북신선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사실이니…?

천진반….

빨리 나아라.

그래….

알고 있었니…? 그래, 사실이야….

차오즈 녀석도….

용신도…?

꼬덕…

……

그… 그래…?

손오공, 나는 이제부터 더 열심히 수련할 거야!

너랑 이렇게 실력차가 난다는 게 너무너무 분하니까!

다음 천하제일 무술대회는 또 내가 우승할 테야!

히히히…. 그렇게는 안 될걸.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후우….

부상이 다 나으면 돌아와! 모두 기다릴 테니까.

그럼 또 보자!

도시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 놈한테 이기다니….

CAPSULE

근데 진짜 놀랍다…. 너무 대단한 녀석이야….

쿨쿨….

오공이 애지중지 하는 막대기인데….

이걸 잊고 가다니…, 완전히 기운을 다 쓴 모양이구나….

엉?

너… 너희들!

피콜로는 어디로 갔지!?

처, 천진반! 무사하냐?

그래.
대단했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그랬군~!
역시 오공
녀석이….

깩
깩
깩
….

처치
했다구요….
누구냐고요…?
그건….

아. 그게
아니라
죽었어요!

여보세요!
TV방송국
이죠?

저기.
모든 사람에게
알리세요.
이젠 괜찮다고….

그럼
수고~!

당연히
정의의
사자가
해냈죠!

와 와

NBS

NBS

이렇게 해서
세상은
단 한 명의
소년이
악의 손아귀에서
구해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아주 잠시
동안일 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자!
평화는
싫어!

언젠가
반드시
처치할
거야!

魔

다음은, 제162화 여의봉의 비밀

이야호
-!!

그래!

내기
만든 약초
효과 죽이지?

겨우 하루
사이에
거짓말처럼
다친 데가
다 나았어!

죽인다-!
벌써 다
나았네!!

설마 그
피콜로 대마왕을
처치할 수
있을 줄이야….

그런데
네 파워에는
정말 완전히
질렸어….

운이 좋으면 무승부 정도는 될 줄 알았지….

솔직히 말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

으음~.

아니, 이길 가능성이 있어서 손오공을 보낸 게 아니었나!?

그동안 놈한테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려낼 생각이었지!

사실 난 손오공이 죽어도 드래곤 볼을 모아서….

어쩔 수 없잖아! 피콜로를 쓰러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오공 뿐이었으니까!

심하다~!

용신은 이미 피콜로 놈한테 죽었다는 것도?

뭐?

그럼, 당연하지! 난 모르는 게 없어!

카린 님도 드래곤 볼에 대해 알아?

그…, 그랬구나…. 하… 하긴, 그놈이라면 용신을 죽일 수 있었을 거야….

서…, 설마! 그… 그게 진짜냐…?

병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야.

어쩔 수 없지…. 그게 운명이란 거니까….

우… 우씨…! 용신만 살아 있었다면 모두를 살려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귀찮게도 마족에게 죽은 사람의 영혼은 떠오르질 않아….

으음…, 분명 야지로베 말이 맞아….

다행이다. 난 그 신세가 안 돼서….

……

저승도 가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공중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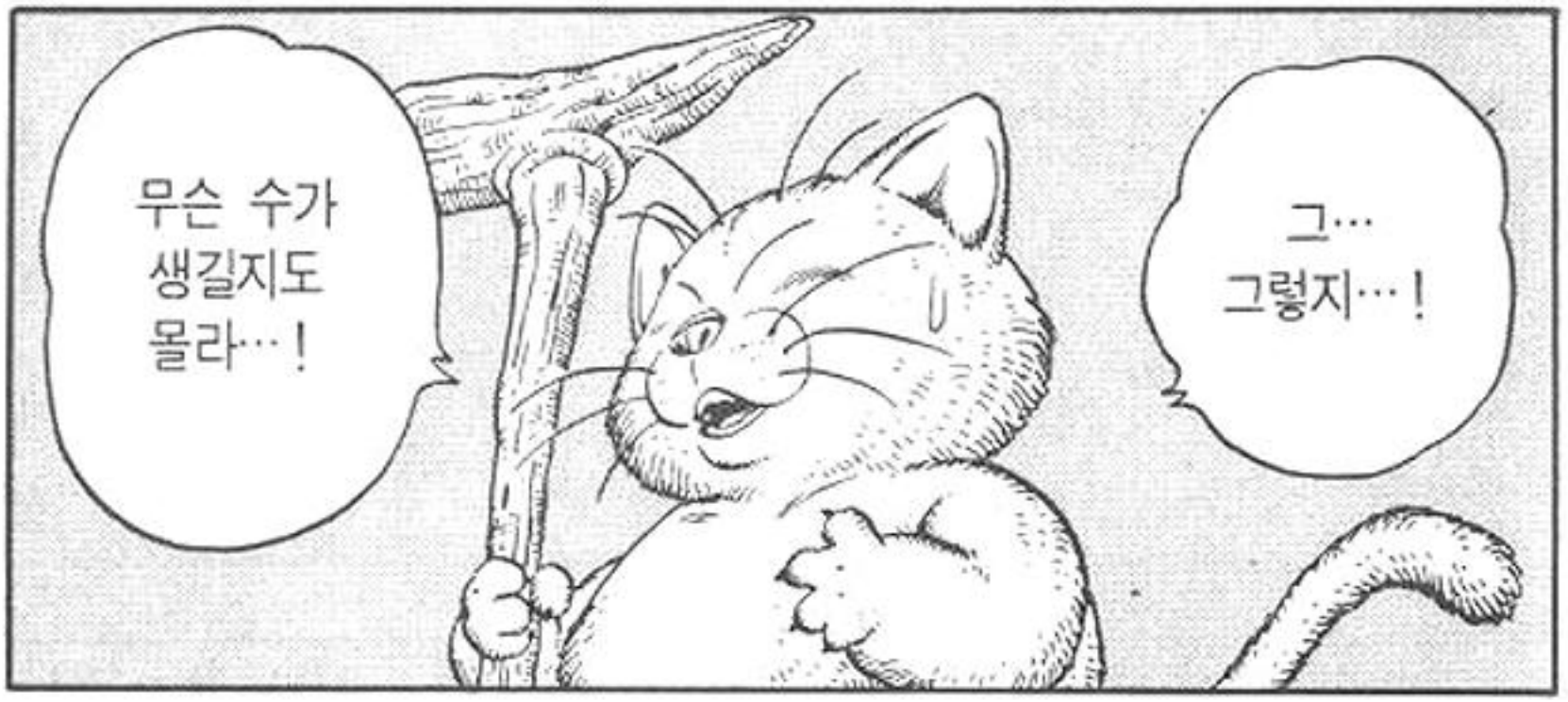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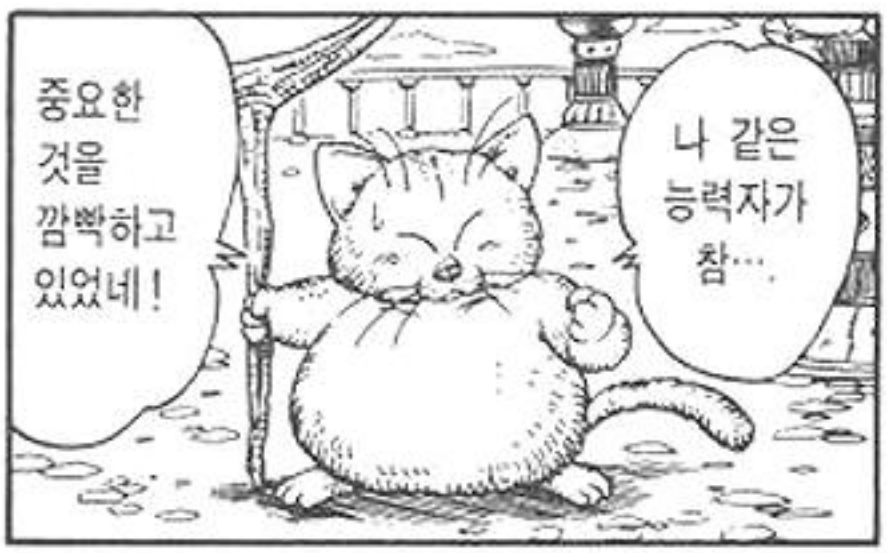
용신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잖아….

그건 무리야….

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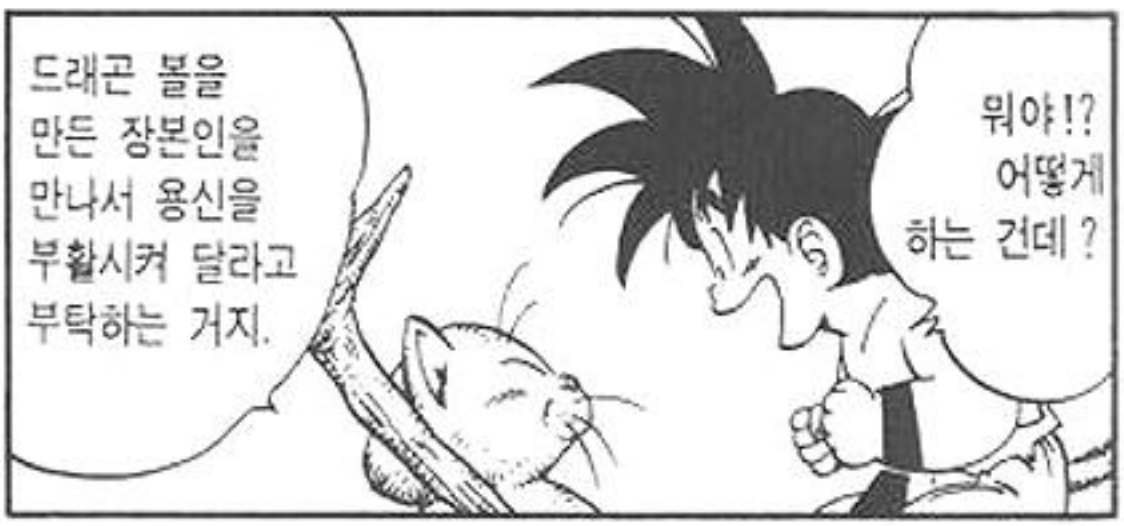
그건 너무 불쌍해…!


무슨 수가
생길지도
몰라…!
그…
그렇지…!


중요한
것을
깜빡하고
있었네!
나 같은
능력자가
참…


저,
정말!?
뭐!?


드…
드래곤 볼을
만든
사람…?


드래곤 볼을
만든 장본인을
만나서 용신을
부활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신님이야!
그야
뻔하지….


누,
누구야!?
그, 그 구슬은
사람이 만든
거였어!?

그…, 그 신님이란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지?

쳇…! 장난치냐? 무슨 얘길 하나 했더니 신님이라고라! 지금 그런 뻔한 농담할 때냐!

시…, 신님…?

강하고, 늠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신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내 허락을 받은 사람 뿐이지.

너, 무슨 소린지 이해 안 되니? 신님이라잖아! 그건 세상에 존재 안 해!

그래서,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지!?

신은 신전에 계셔.

야지로베는 안 돼!

시끄러!

오공, 너는 정말 그 자격이 100%야!

거봐, 뻥이야, 뻥! 여기가 제일 꼭대긴데!

위!?

이 카린탑 위에!

저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떠있다니!?
정말
농담도
심하셔~!

훨씬
위에 떠
있으니까.

신전은
이 카린탑
상공에
떠있다.

너 자꾸
왜 꼭 끼나?
잠자코
있어!

떠,
떠있다고?

근두운으론
무리야.
더이상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

좋아!
나, 근두운을
타고 가볼게!

아무리
나라도
그렇게 높이
점프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하면
좋지…?

그런 걸로
신전 근처에
가봤자
튕겨나오게
돼있을
뿐이라구.

헤헤헤!
안 돼,
안 돼.

좋아!
그럼 내가
로켓이라도
홈쳐올게!

그래서 네게는 여의봉이란 것이 있잖아.

후후후…. 오공, 넌 진짜 행운아야.

그 옛날에 무천도사 녀석이 하도 졸라서 빌려준 거야. 어차피 신전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서….

원래 여의봉은 이 세상과 신전을 잇는 봉이지.

여의봉…!?

어라!?

난 여의봉이 무기인 줄만 알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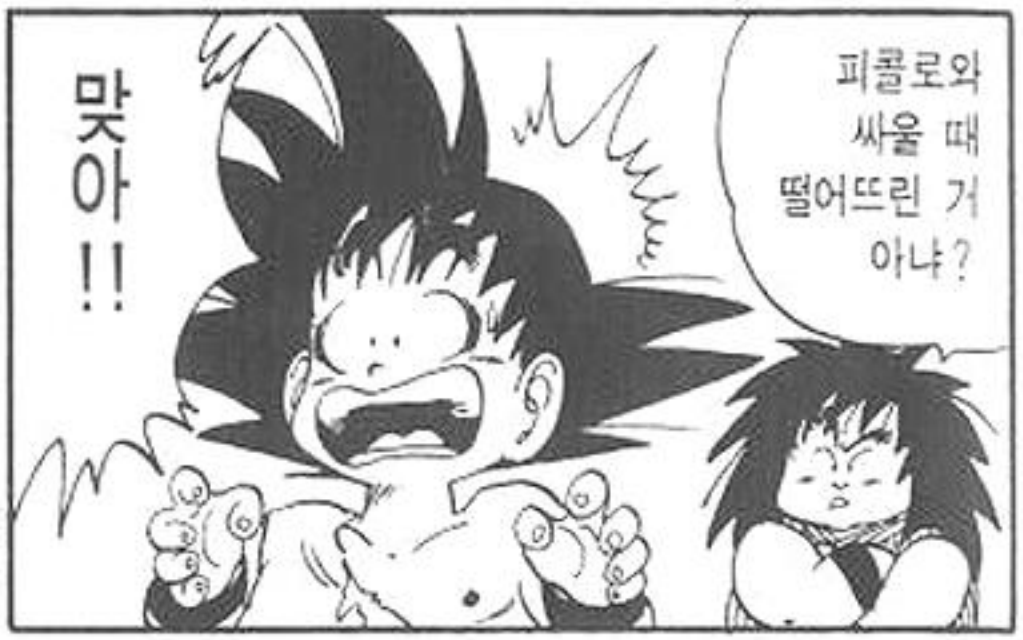
그런가…? 그걸 죽은 우리 할아버지가 얻어서…, 그걸 또 내게….

뭐!?

어, 없어졌네!

아니-!? 여의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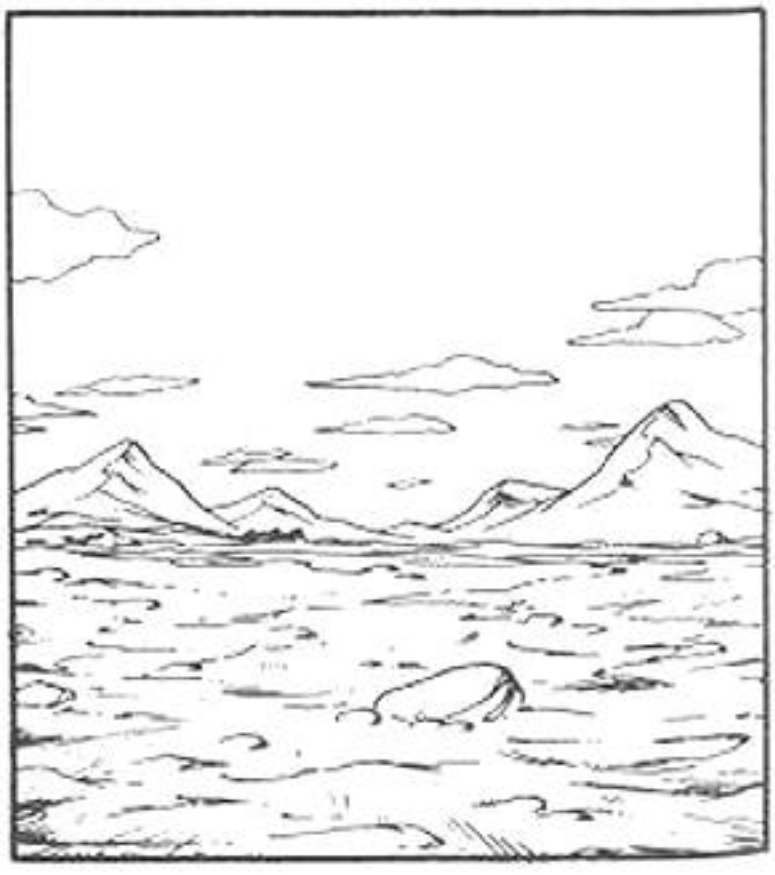

큰일났네 !!
근두운 !!


맞아 !!
피콜로와 싸울 때 떨어뜨린 거 아냐?


어서 가자 !


응 !!
알겠지 !? 꼭 찾아야 해 ! 모든 게 여의봉에 달려 있으니까 !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
없네, 없어 !



아, 곤란할 땐….

점쟁이 할머니 바바….

이거 큰일났다, 끝장이야~!!

우왕~! 엄마야~! 어떡하면 좋지!!

쉬 익

그렇다!!

…그러니 여의봉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줘!


공짜로 점쳐 줄게.
얘가 정신 못차리네! 누가 피콜로를 이긴 무시무시한 놈과 시합을 하겠냐…!


빨리 선수 내보내!
빙글 빙글
5명과 정확히 시합할 테니까!


어디 보자….


동생의 목숨도 걸려 있으니까….
정말!? 땡큐-!


왜 저기 있지…!?
거북 하우스 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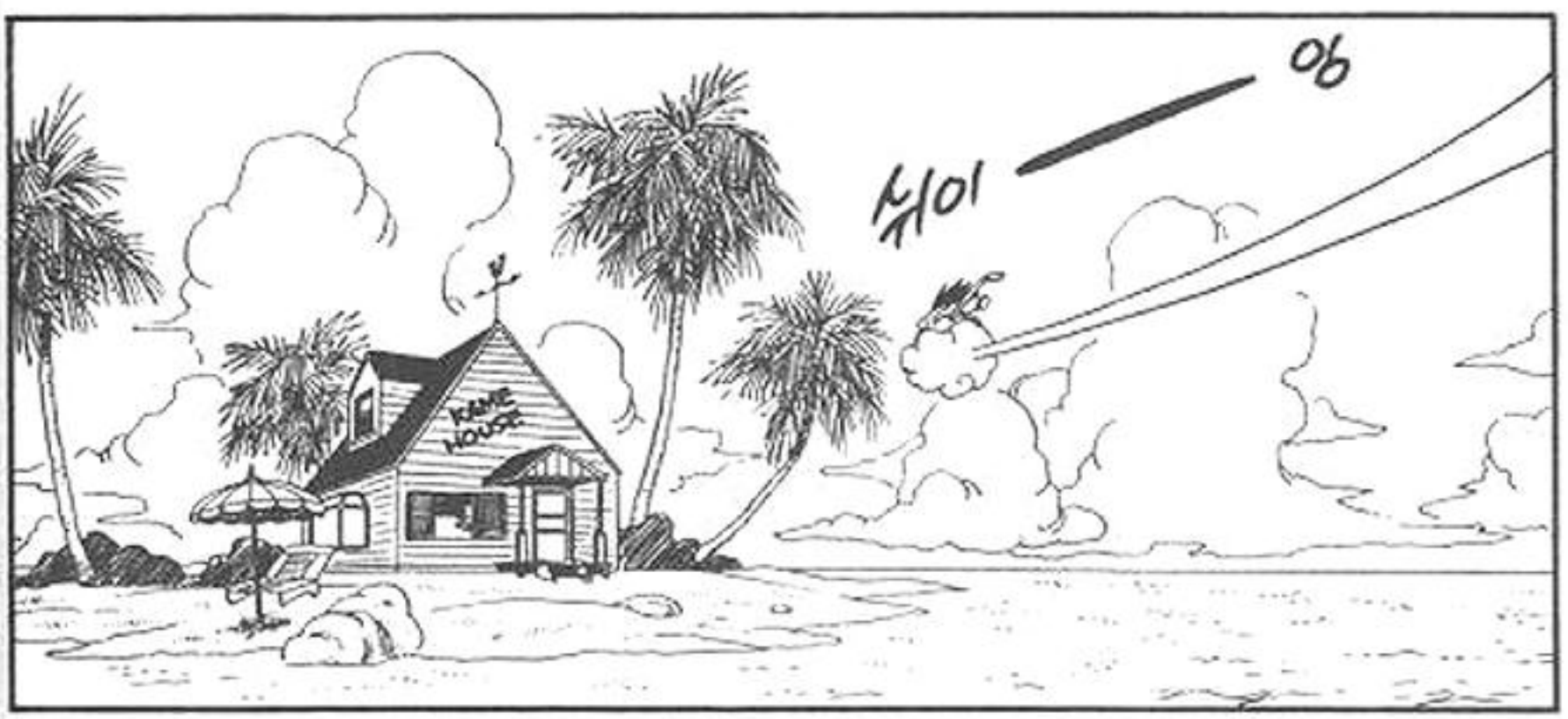

저 집에 있는걸.


휘 잉
고마워요!

별로 대단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요….

게다가 신전에도 갈 수 있다니…. 신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은 쟤가 처음일 거야….

저 애가 진짜로 세계를 구했어….







이걸로 거북신선 할아버지도 크리링도 차오즈도 모두들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몰라!

있다 — !!

아! 그거…

거기 떨어진 걸 내가 가져왔지…

야호 — !

06

그럼, 나 신님에게 갔다 올게!

모두의 시체를 태우면 안 돼 — !

후다닥

모두를 살려낼 수 있다니…. 신이 어쩐 다나….

뭐… 뭐라고…?

……

찾았다,
찾았어!
여의봉이
있었어-!

응!

그럼
여의봉을 갖고
지붕 위로
올라가.

이런,
이런….

헉헉!

으아앗!

이렇게!

끙…

그 꼭대기에 구멍이 뚫려있지? 거기에 여의봉을 꽂아서 고정시켜.

야, 손오공…

알았어! 그럼 갔다 올게!

이 방울을 가져가. 신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표시니까.

짤랑…

이제 여의봉을 늘어나게 하면 스스로 신전을 향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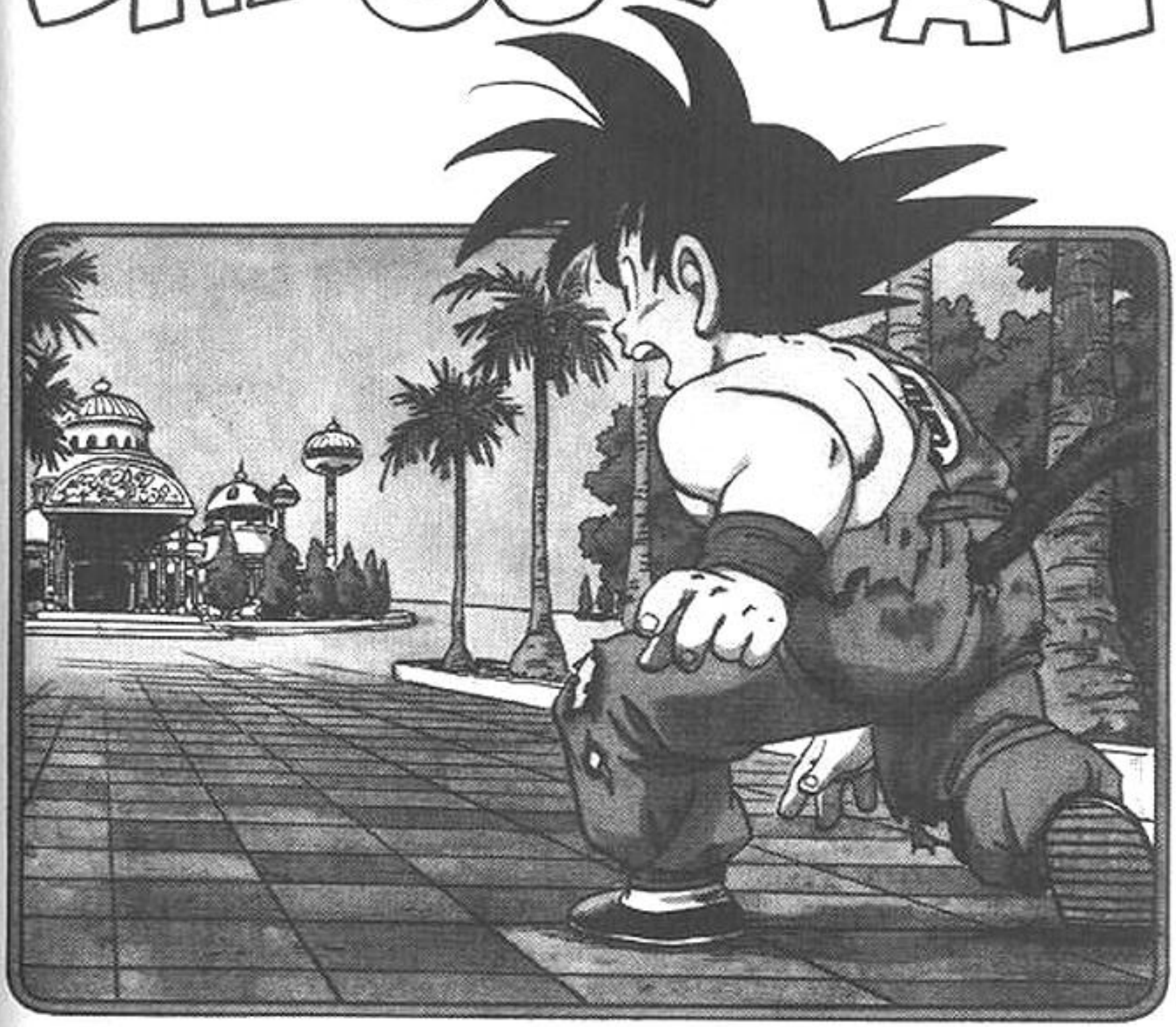
됐다!

뭐!?

뭐, 그건 상관없어. 새옷 입고 가도 어차피 걸레가 될 테니까…

자…, 잠깐만…. 만약 진짜 신을 만나게 되면 그런 옷차림으로 가는 건 실례가 아닐까…?

DRAGON BALL



제163화
신전




신님은 위험한 녀석인가?
어차피 다시 걸레가 된다니…, 무슨 소리야?
아냐, 아냐! 무슨 소릴! 물론 훌륭한 분이지.


됐어, 어쨌든 갈 테야!
뭐야~? 왠지 마음에 걸리는 소린데….


너라면 분명 신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어!
악간의 테스트를 받는데…. 걱정 마, 죽진 않을 거니까!


늘어나라, 여의봉—!
자, 가자—!


…?
자, 힘내. 포기해선 안 돼!
그… 그래….

저 녀석이 무서워하는 게 세상에 있기나 할까…?

글쎄…, 저 녀석만은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렇게 못생긴 얼굴이니?

그렇지만 아무리 오공이라도 신님의 얼굴을 보면 한방 먹을걸…,

으음…, 그렇기도 하지만…,

아는 얼굴이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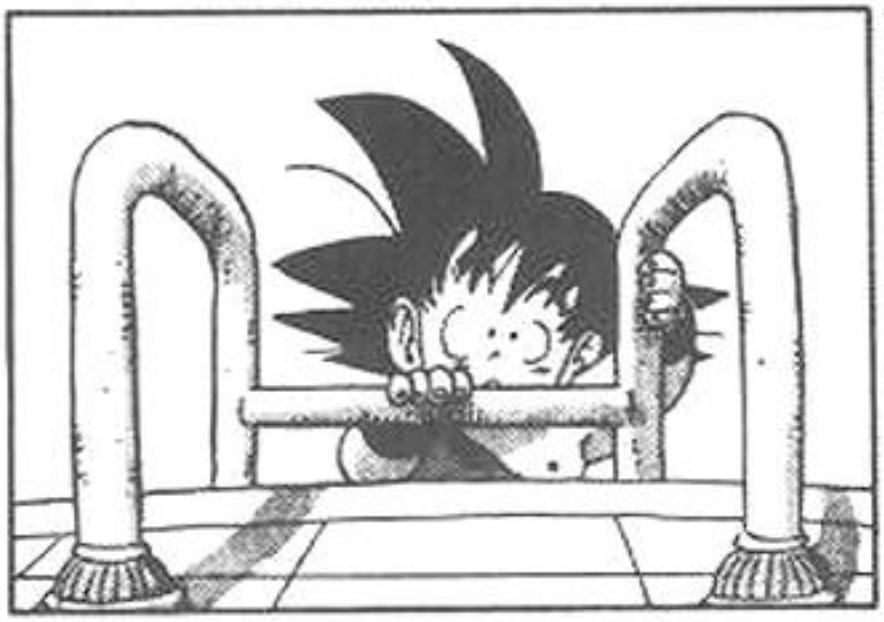
전혀 끝이 안 보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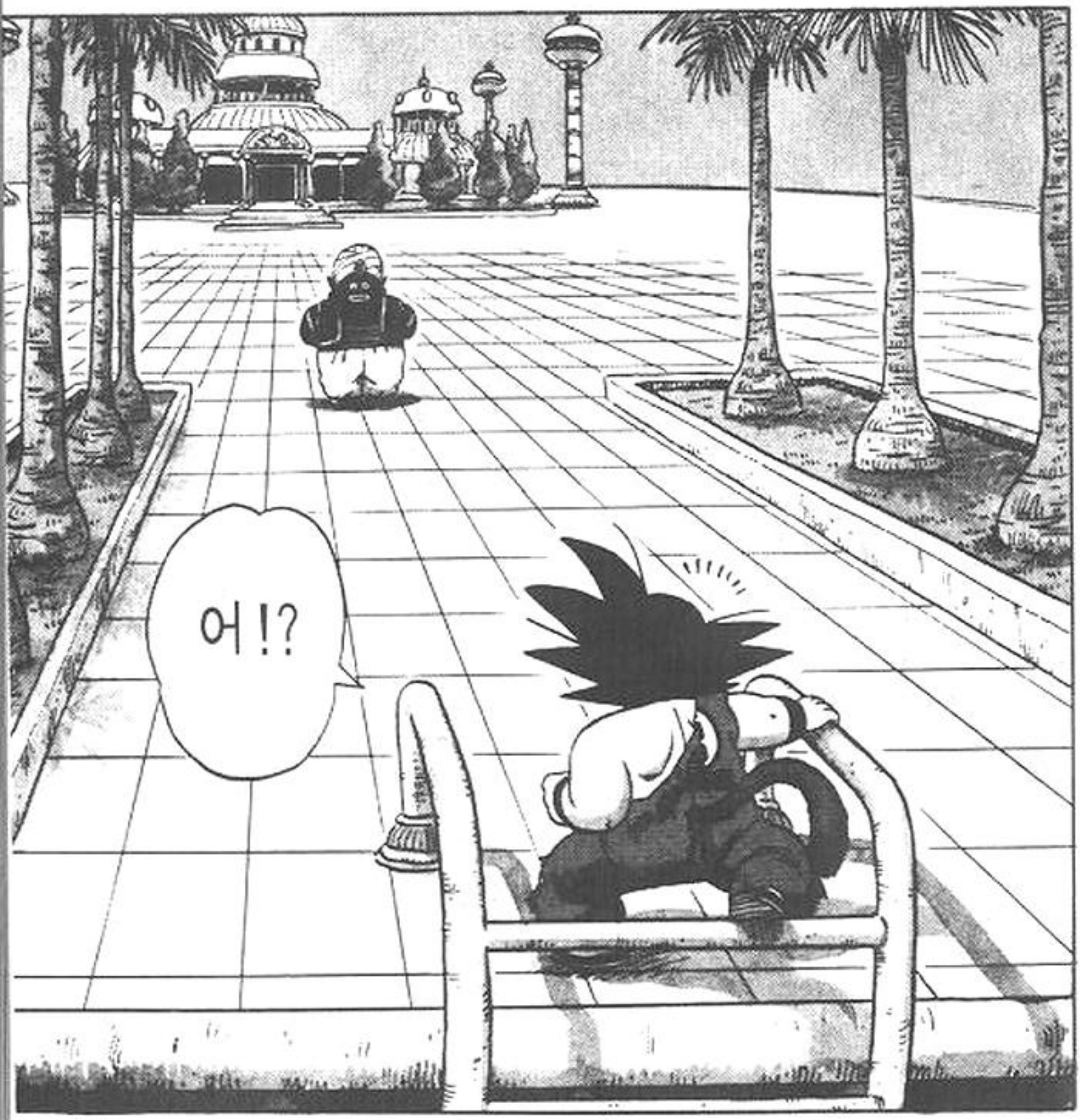

엄청 크다! 여, 여기가 신전이란 곳인가!?
앗!!
뭔가 보인다!
자자자——잔
우와! 굉장하다!



슈우우…웅
철컹
붙었네…!
사다리다!
영차!
빙글
사삭
달달달달…




어영차!


어!?

방가
방가….

안뇽.

신님의
종이야.

난
미스터
포포.

아니.

네,
네가
신님이니?

신님은
위대하지.

신님은
무엇이든
알고 있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인간
인데도 멋지게
피콜로 대마왕을
쓰러뜨렸더구나.

가져 왔지.

아, 이 방울?

저기, 그럼 신님이 저 집에 있니?

만나게 해줘!

카린한테 인정을 받은 표시는 가져왔어?

헤헤헤 …

깔랑 깔랑…

음, 맞군. 넌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테스트 받을 자격이 있다구.

뭐? 테스트?

그래. 테스트.

넌 미스터 포포와 시합한다.

미스터 포포를 이기면 넌 신님을 만날 수 있어.

뭐야~! 그렇게 간단한 거였어?

알았어! 빨리 하자!

여기 온 인간은 네가 처음이야.

테스트가 기대 되는걸.

그럼 항복할 때까지야?

내게 혼 좀 날걸~.

두근 두근.

야압!

어라?

사라졌네.

이건가?

이야~!!


첫~! 우연히 맞았으니.
할 수 없지….


아! 맞았구나!
아… 아야~!


좋지!
각오해라!


더 이상 행운은 없다.
치치칫….


퍽


이 한방에 「항복」을 받아내 주마!

진짜 피콜로 대마왕에게 이겼니?

넌 별거 아냐, 약해.

아야!

어우!

또 맞았다.

내… 내가 약하다고…?

이… 이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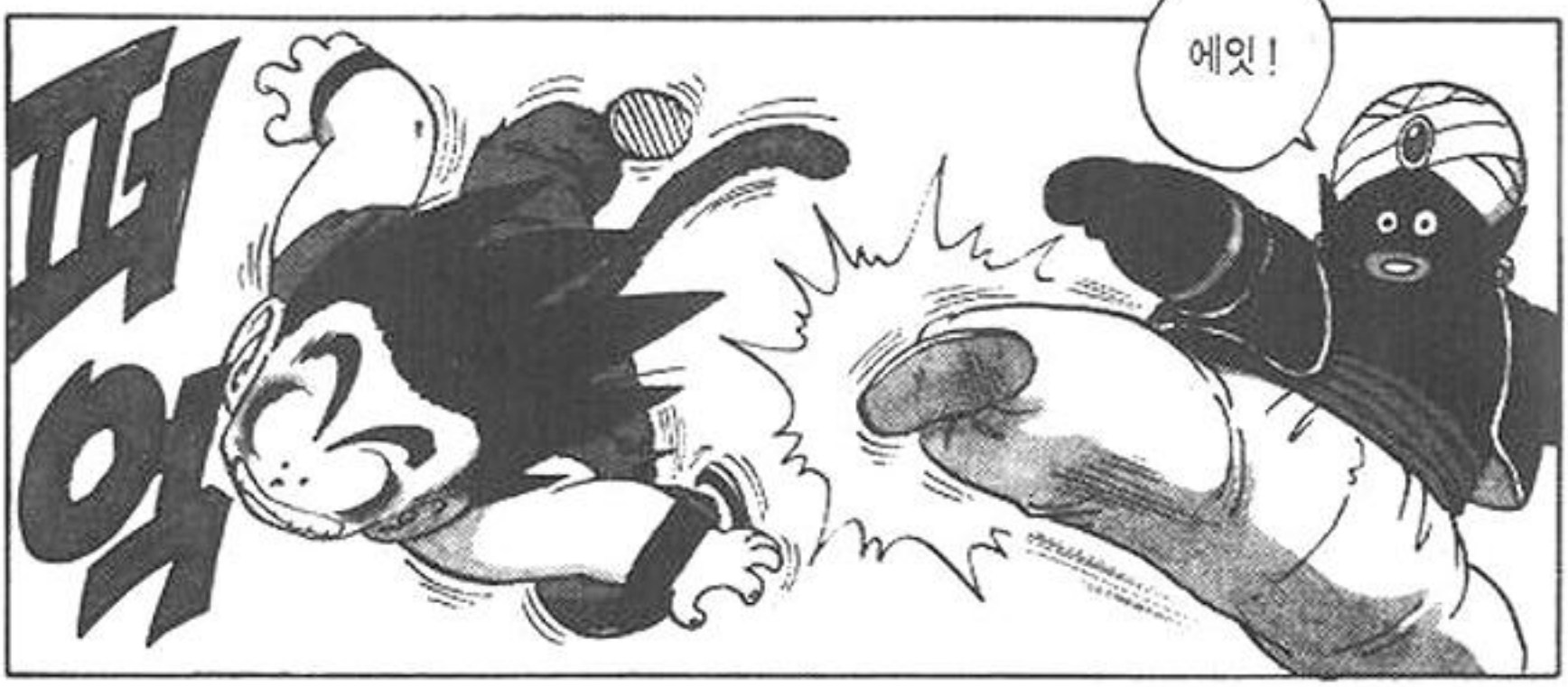
정말? 나야 좋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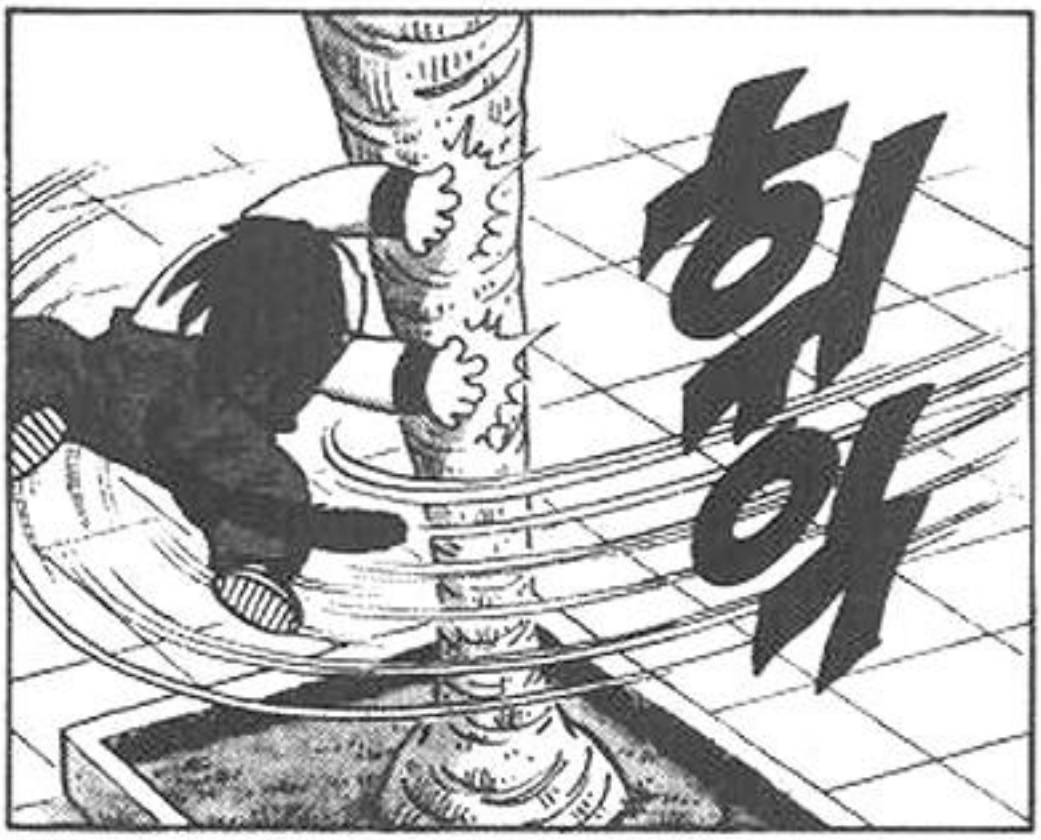
진짜로 실력발휘를 해주마!

날 물로 보지 마!!


앗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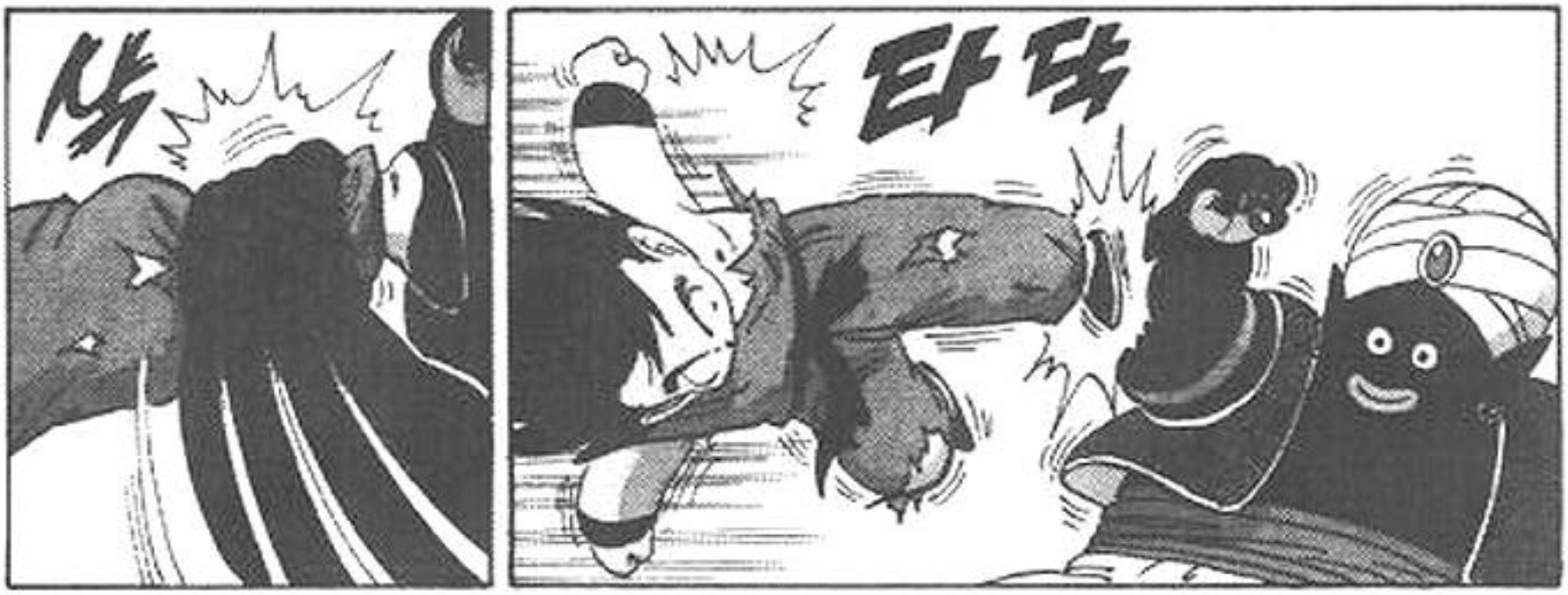

파팟


에잇!
퍽


하아


크!!

야압!





혹시 카린이 실수로 널 이리 보내 준 거 아냐?

넌 약해. 그 정도 실력으로는 신님을 못만나.

이스터 포포는 실망했어.

우…! 우욱…!

야압!!

이… 이놈을!

이… 이럴 리가 없는데….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

파밧

퍽

퍽퍽

퍽퍽

야앗!!

뾰옹!

이럴 수가…!!

익!

너, 파워는 굉장하지만 전혀 쓸 줄을 모르는구나. 그럼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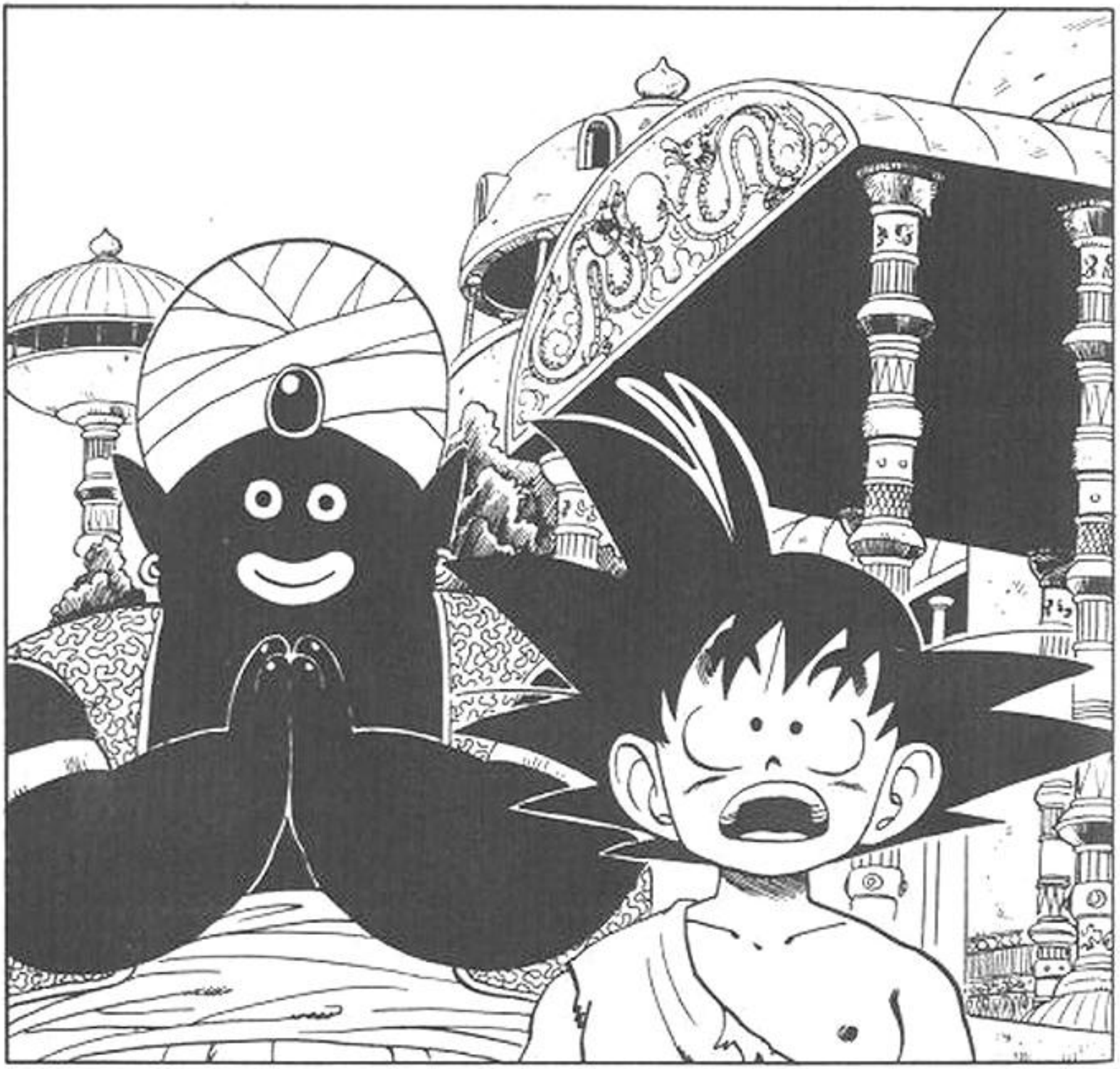
테스트해봐야 헛고생이다. 돌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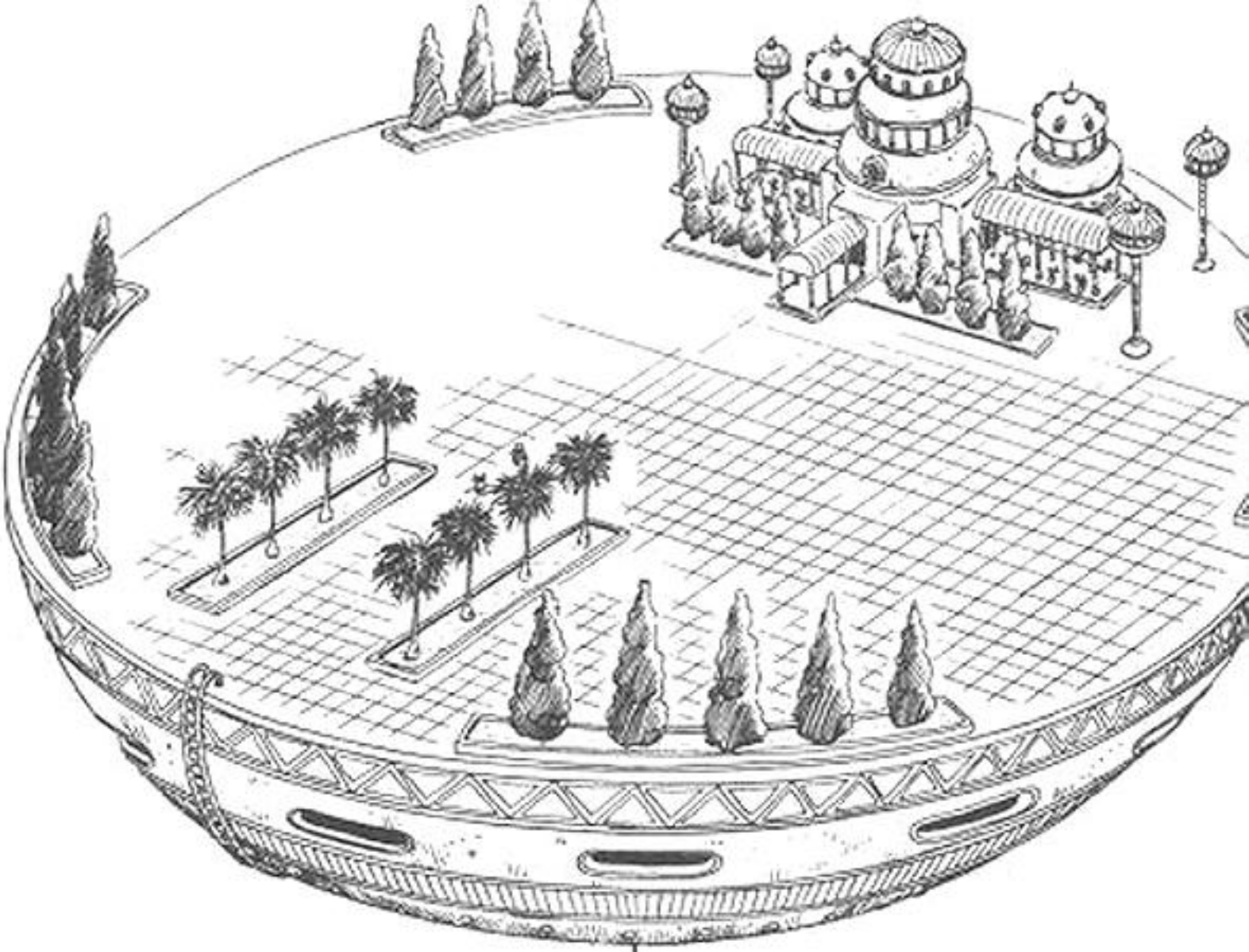
머~~~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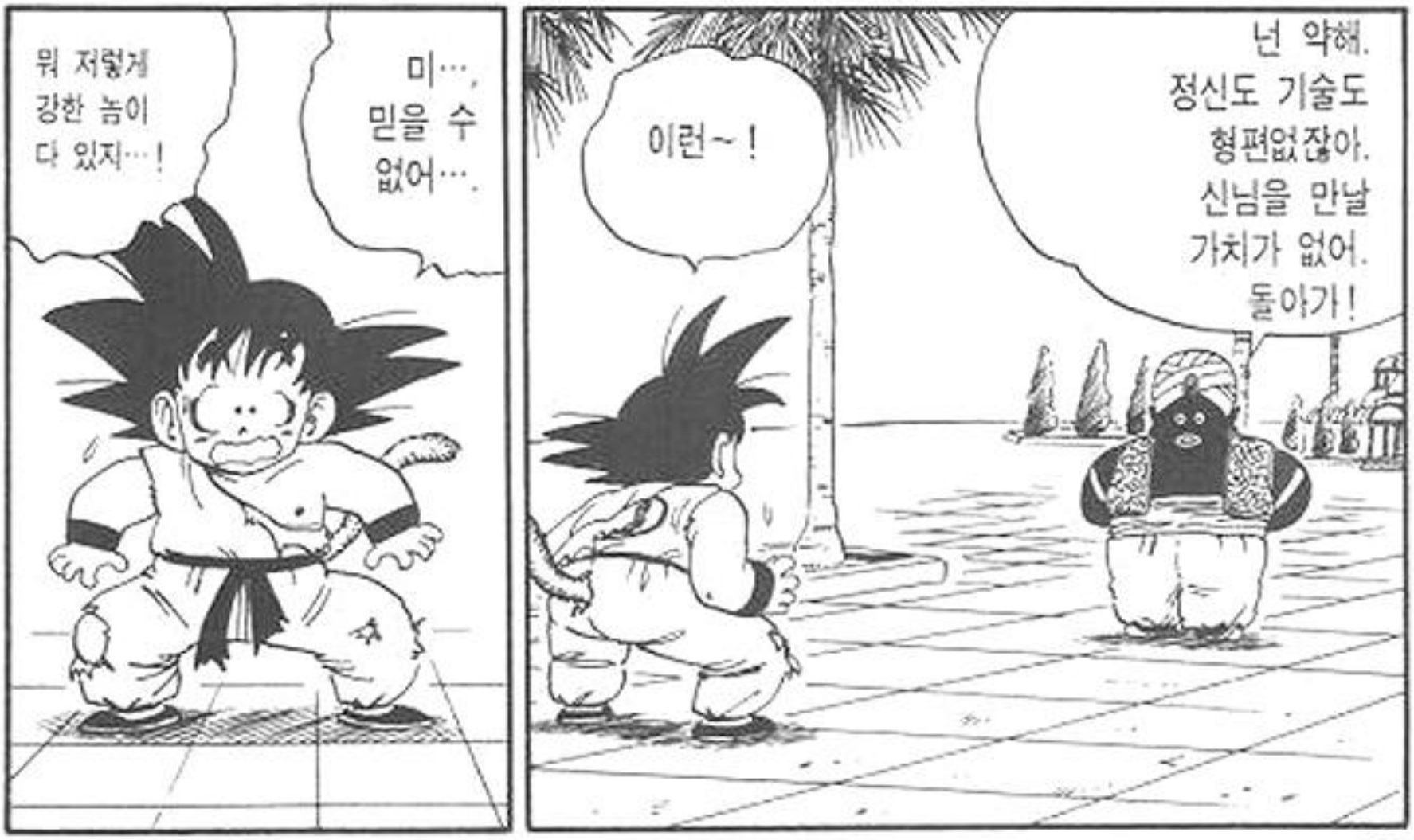
……

DRAGON BALL

제164화 신님의 등장






미…, 믿을 수 없어….
뭐 저렇게 강한 놈이 다 있지…!
이런~!
넌 약해. 정신도 기술도 형편없잖아. 신님을 만날 가치가 없어. 돌아가!

으… 으응….

나 너무 창피한걸….

너, 피콜로를 처치했다고 해서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구나.

세상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걸 잊지 마.

힘만으론 나 미스터 포포를 이길 수 없어.

신님을 만나게 해줄 때까지….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는 안 돼!

빨리 모두를 살려내야 해!

자, 이제 돌아가. 어서.

여기서 특훈을 하고 싶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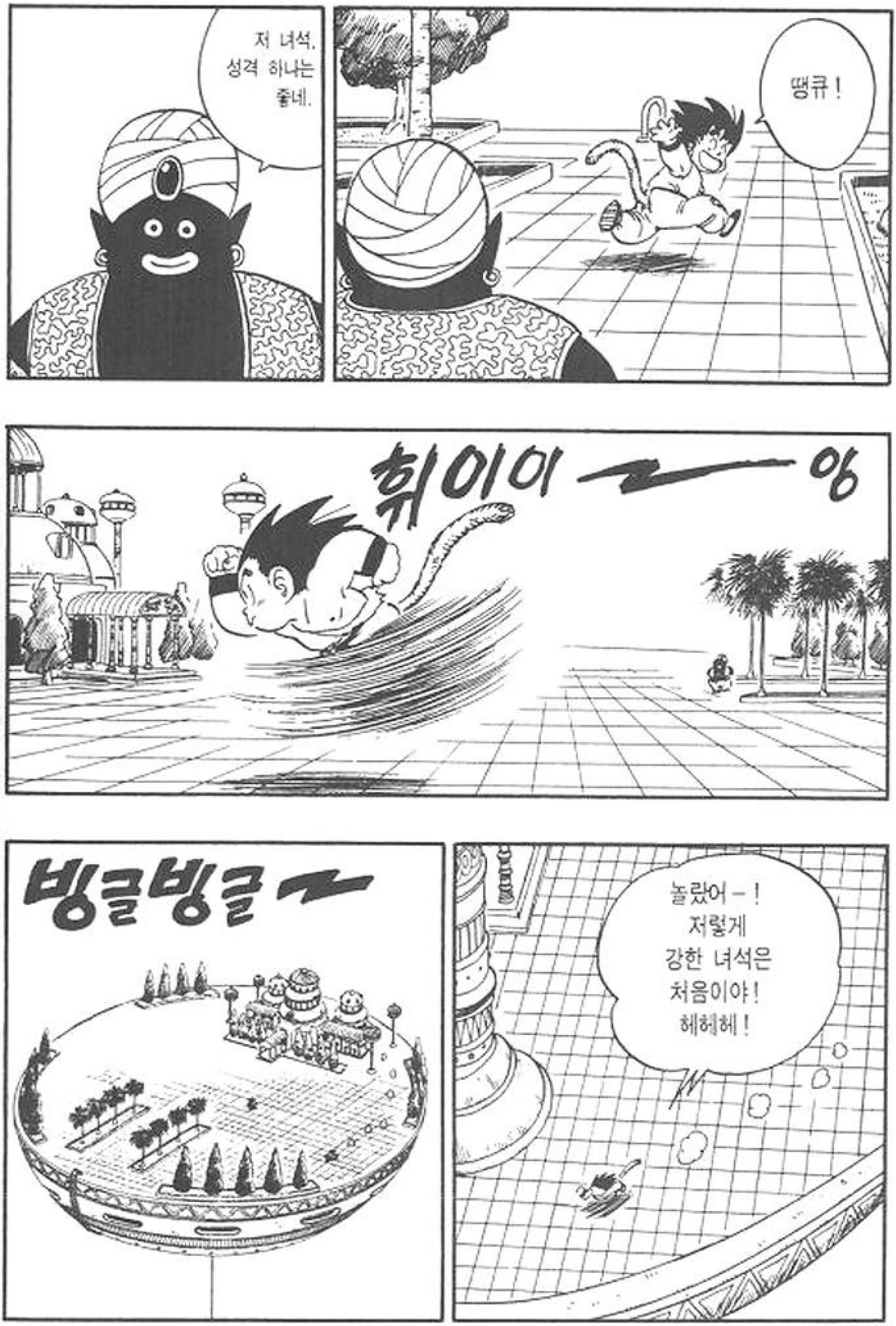
특훈?

저기, 어기를 좀 써도 좋아?

뭘 하게?

쓸데 없는 짓!

그치만 좋을 대로 해봐!


저 녀석, 성격 하나는 좋네.
땡큐!
휘이이 ~ 앙
빙글빙글 ~
놀랐어 - ! 저렇게 강한 녀석은 처음이야! 헤헤헤!

헉

헉헉

너희 인간들에겐 힘들지.

여기는 굉장히 높은 하늘이야. 그래서 공기가 적어.

머, 머리가 어지러워….

왜, 왜 벌써 숨이 차지…?

이… 이상하다…?

그… 그래?

이건 지상에서도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처럼 쓸데없는 동작이 많은 녀석은 안 돼.

번개보다 빨리 움직여야지.

하늘처럼 조용하게 있다가….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은걸….

움직인다!

번개보다 빠르게….

하늘처럼 조용히….

저…, 전혀 기가 안 느껴져….

우… 우와…! 정말 조용하다….

마음을 무(無)의 상태로 만들어.

이렇게 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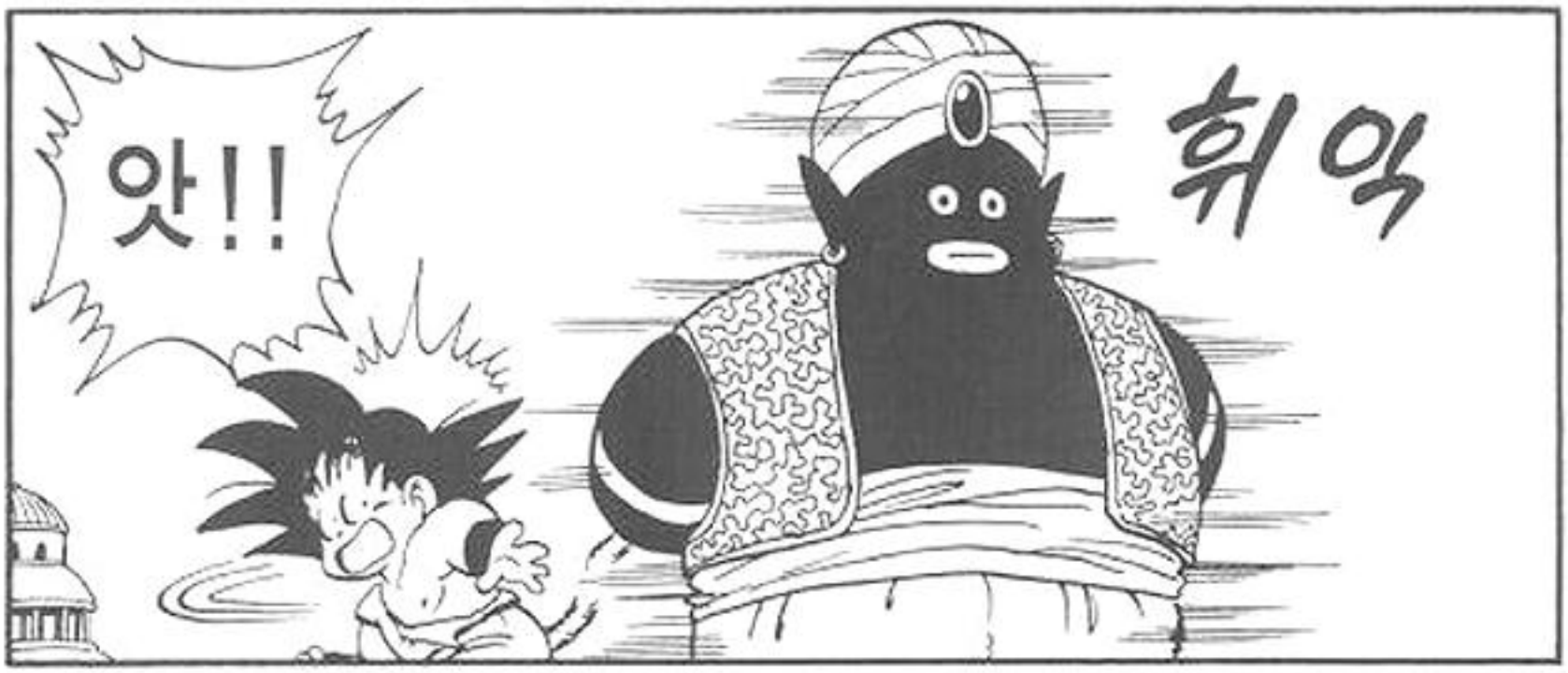
마음을 비우는 것과 달라….

그건 단지 아무것도 생각 않는 거야.

이렇게?

번개보다 빨리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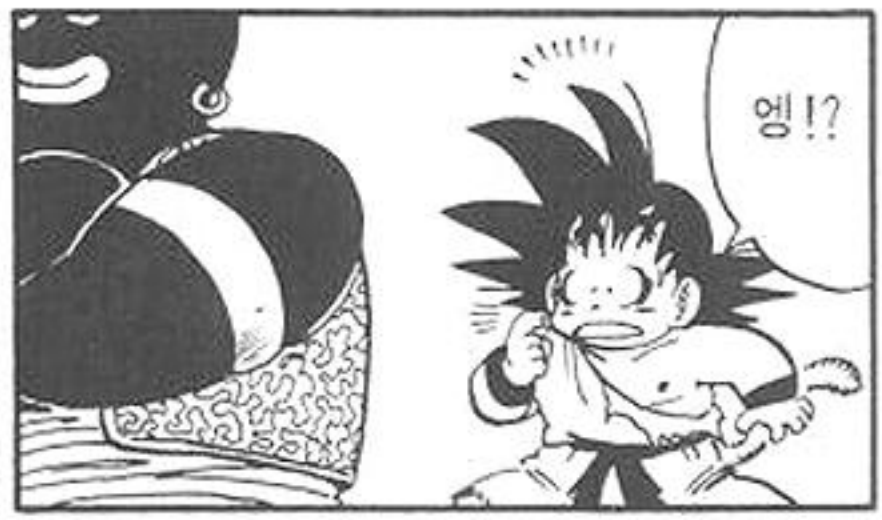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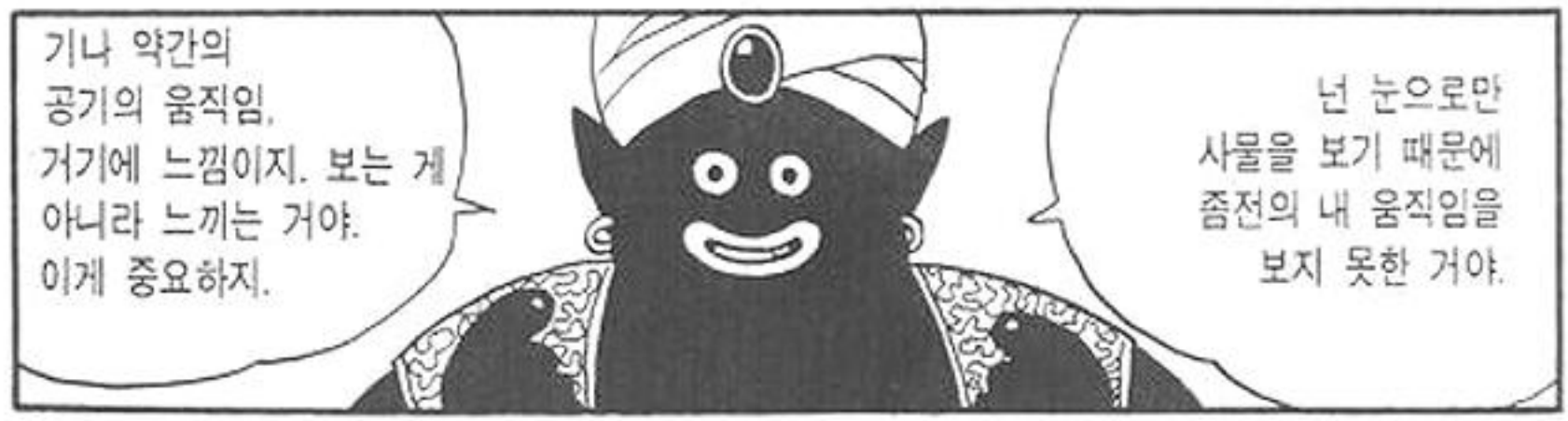

앗!!
휘익


넌 지금 오른손으로 얼굴 만지지?
이런 것도 알아.


헤헤헤! 미스터 포포 솜씨 어때?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
대단해! 어느새 뒤로!


아냐.
어떻게 알았지! 뒤에 눈이 달렸나?


엥!?


기나 약간의 공기의 움직임. 거기에 느낌이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야. 이게 중요하지.
넌 눈으로만 사물을 보기 때문에 좀전의 내 움직임을 보지 못한 거야.

터 포포는
님한테
이 많이
웠거든

에헴!

미스터
포포는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
하다~!

그러니
내가
졌지.

우와~!

그럼 신님은
포포보다
훨씬 더
대단해?

당연하지.
신님은
훨씬 더
훌륭해.

난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가슴이
두근거려!

왜,
겁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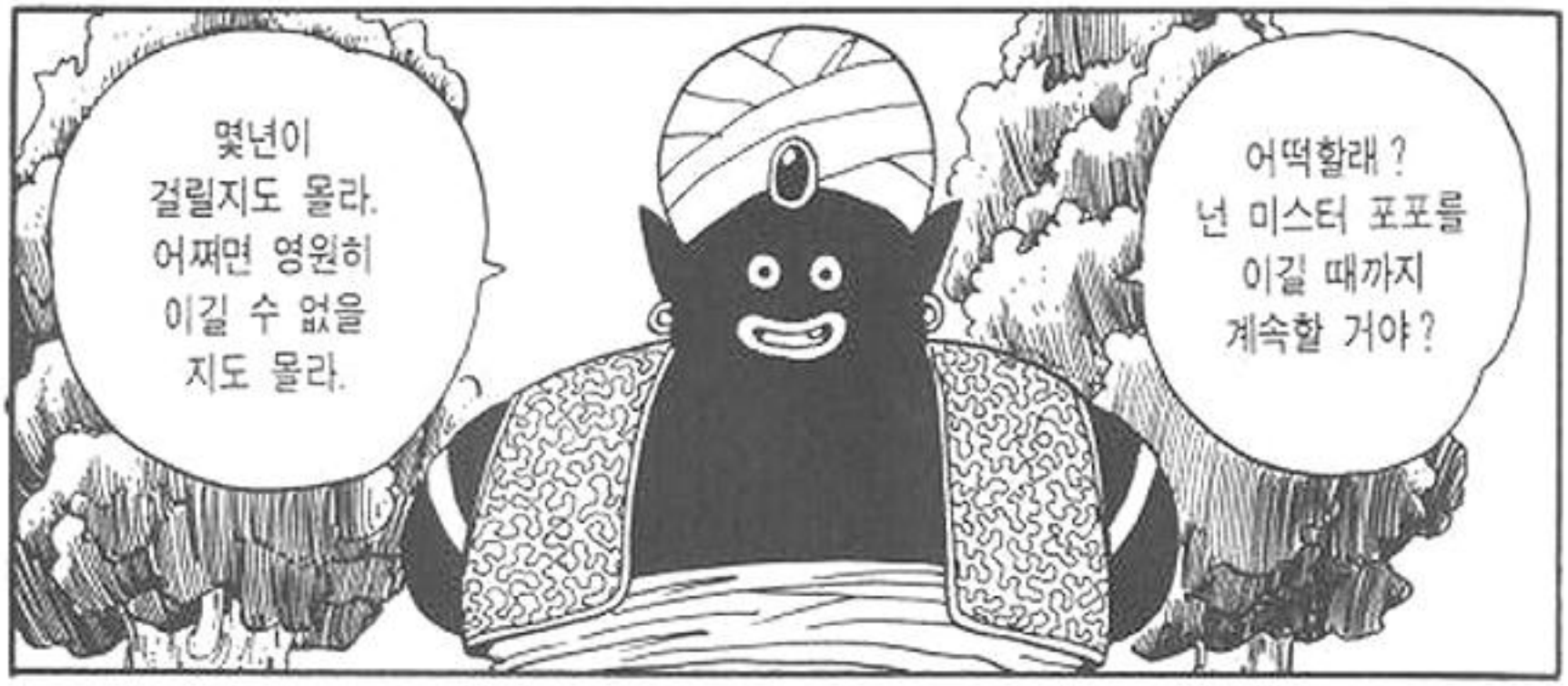
그래,
겁나!

하지만
기뻐~!

그런데,
그렇게 강하다면
피콜로를 처치했으면
좋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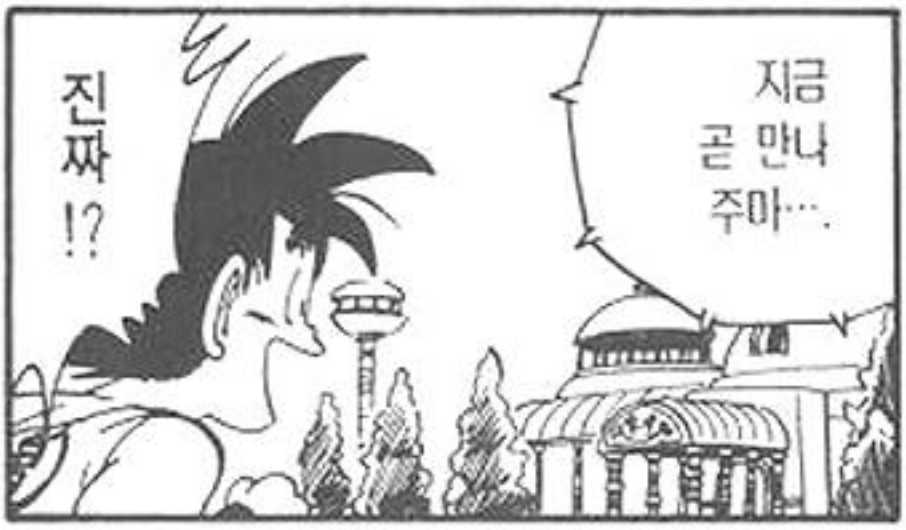
너,
밝은
애구나.

하하….


몇년이
걸릴지도 몰라.
어쩌면 영원히
이길 수 없을
지도 몰라.
어떡할래?
넌 미스터 포포를
이길 때까지
계속할 거야?


마음에
들었다.


꼭 해야만
하고,
해보고
싶어!
할
테야—!


진짜
!?
지금
곧 만나
주마….


그래.
누구지?
신님인가?


너,
운 좋다.
만세—!!

신님,
고마워-!

따라와.

으, 응.

여기서
기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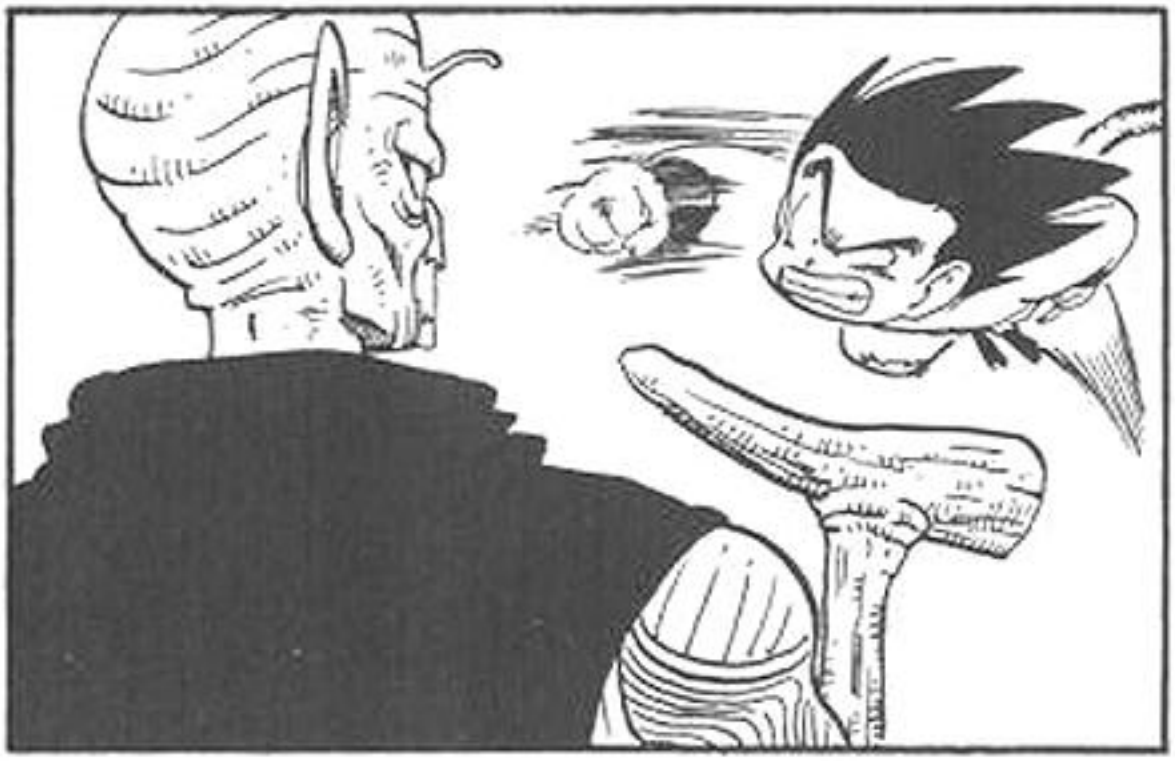
허허…,
어쩐지
가슴이 다
두근거리네….

헤헤
….


神


피콜로!!

이놈!
아직 살아
있었냐!!



이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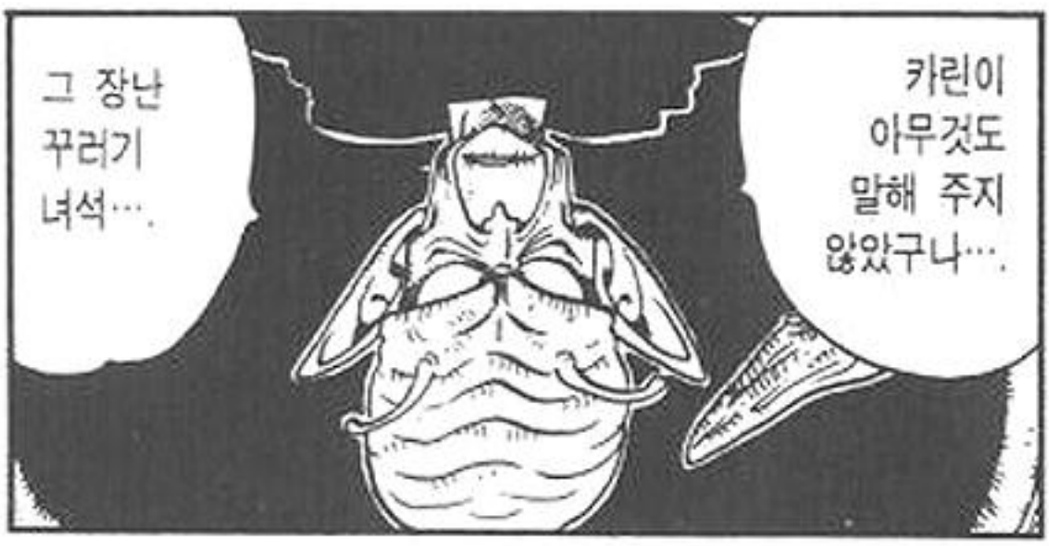
아!






진정해, 피콜로가 아냐.
그냥 닮았을 뿐이야.
아…아 으윽…!!


덥썩


그 장난 꾸러기 녀석….
카린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았구나….




한 사람의 천재 무술가였지….
나와 피콜로는 하나였다….


그 옛날….


어느날 신의 존재를 알고 여기 왔어. 너처럼….

그건 마음 깊숙한 곳에 아주 약간이지만, 악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지….

또한 어려운 수련 끝에 나는 그 악을 쫓아낼 수가 있었지.

신은 그걸 알아챈 거야….

그렇지만 신은 시간이 지나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

나 자신은 스스로 나 이상 훌륭한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아쉽지만 신도 죽는다…. 난 신의 새로운 후계자가 되고 싶었어….

그걸 보답하는 뜻에서 소원을 들어주마.

정말?

그 피콜로를 네가 처치해 준 거지….

나는 새로운 신이 되었지만, 녀석은 지상으로 도망쳐 사람들을 괴롭혔지….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 약간의 악이 피콜로 대마왕이야….

그건 오히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야!

물론 기쁘게 수련하겠어!

다만 네가 이대로 여기서 좀더 수련을 할 생각이 있다면 가능한 조건이지만….

그러나 용신은 내가 만든 거란다. 살려낼 수는 있지. 나머지는 용신에게 부탁하면 돼.

좋아! 네 소원은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신이라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진 못해….

이번만 특별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단, 내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이번 뿐이다. 다음엔 안 돼….

아….

고마워!

드래곤 볼의 부활이다!

자, 그러면 우선 용신을 부활시켜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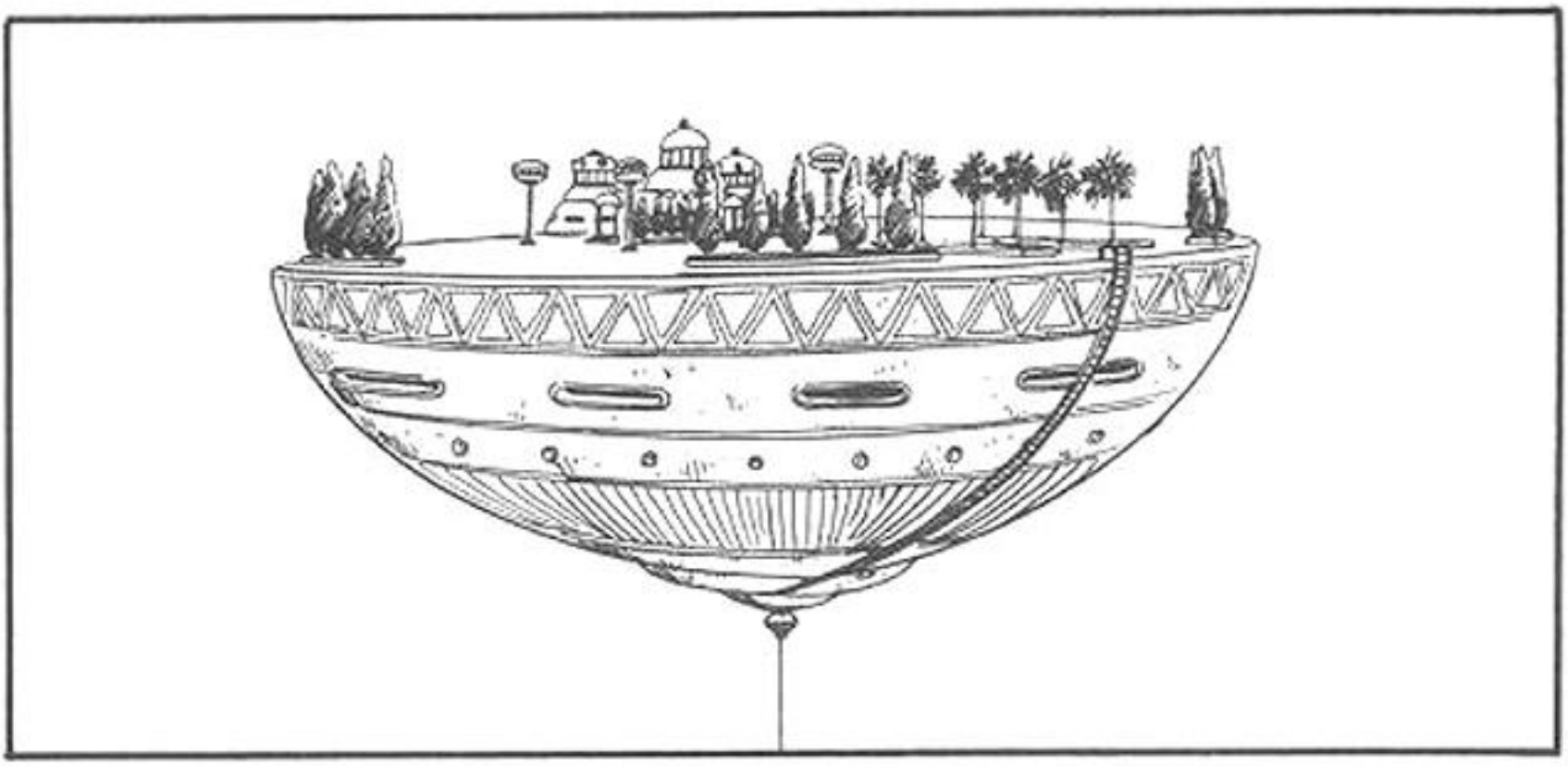
만약의 경우, 단 하나의 찬스로서 드래곤 볼이 있잖아.

세상은 역시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의 경우엔 신이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마음 한구석으로 나를 의지하면 곤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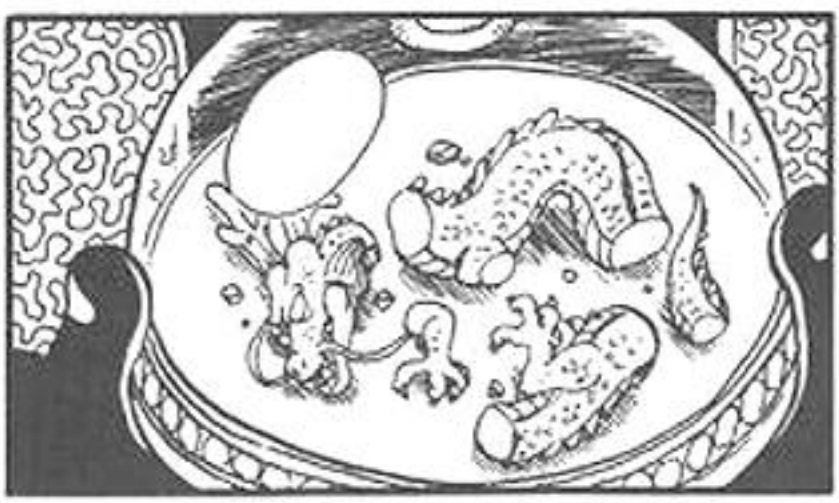
그래!

다음은, 제165화 용신 부활!!




가져
왔습
니다.
神


예!
포포!
용신을
가져와.
그럼
용신을
부활시켜
줄게….




어?


여,
간단해요.
호오-!
완전히
엉망이 됐군.
고칠 수 있니,
포포?
神

포포가 만든 것에 신님이 생명을 불어넣지.

신님의 것은 포포가 만들어.

이, 이게 용신이야…?

지상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만든 게 드래곤 볼이지만, 모두 올바르게 쓸 생각은 않고, 욕심만 차리려고 들어서….

사실 이제 이 용신은 그대로 놔두려고 했지….

고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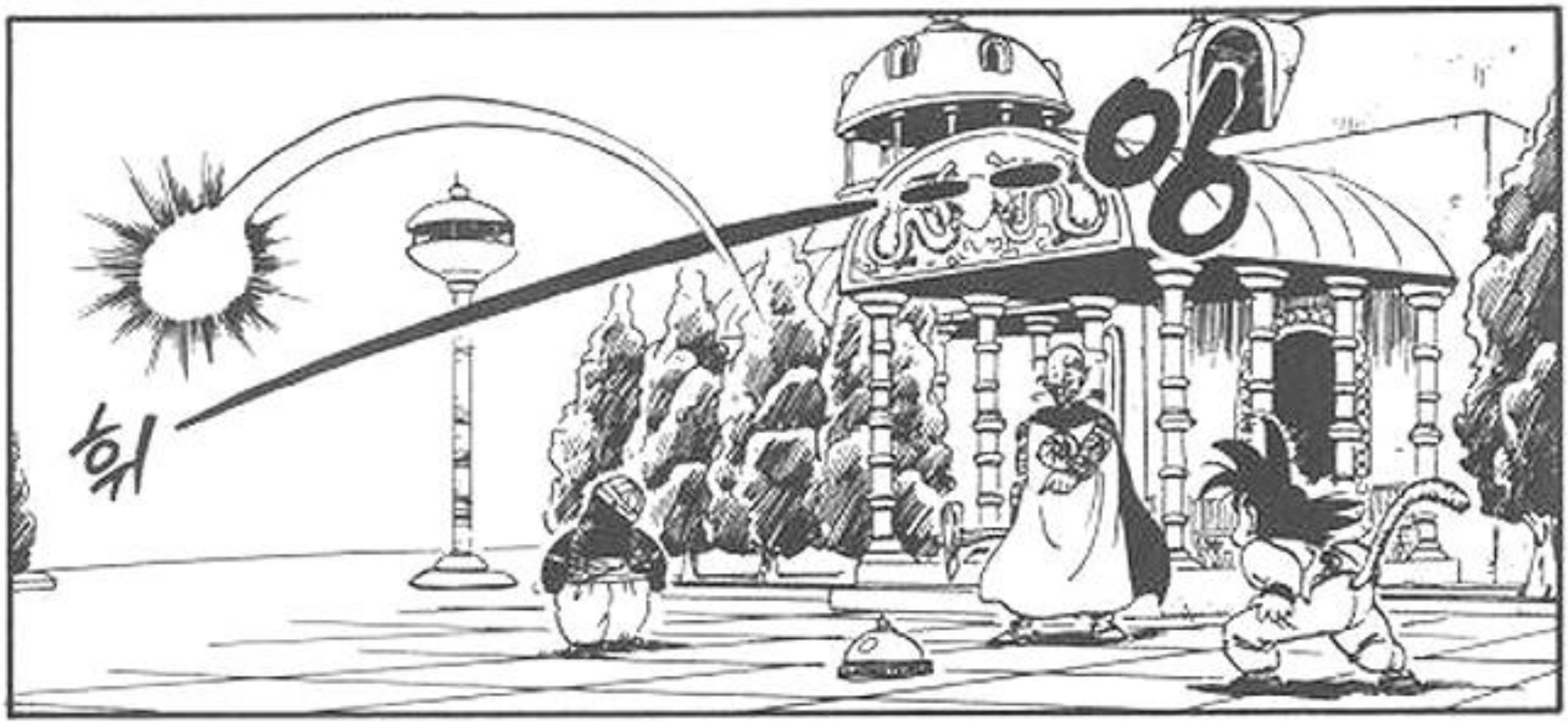
많이 망설였지만 너 같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드래곤 볼을 부활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지만 넌 달랐어.

神

탁…


떨어져 있어.
파....앗
피
뷰유유----웅
뷰유---웅


휘


정말!? 나도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걸 보러 가도 돼?
넌 여기서 수련을 하기로 약속했잖아!


드래곤 볼로 돌아간 거야.
원래는 1년 동안 단순한 돌멩이가 되어 버리지만, 이번만 특별히 바로 소원을 들어주게 해놨어.
앗! 어, 어디로 간 거지!?


네 목숨을 노리고 말이지.
그 천하제일 무술대회엔 피콜로가 반드시 나타날 거야.


그런 것까지도 알아!?
천하 제일 무술 대회?


3년 동안 참아. 다음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참…, 그렇지…,

무,
무슨 소리야!
피콜로 녀석은
내가…!!

피콜로!?

그리고, 그 분신은
방해가 되는 너를
없애고 다시 세상을
손에 넣으려고 전보다
힘을 더 키우고 있어….

미안하지만
살아있어. 놈은
폭발하기 직전에
자신의 분신을
남겨놓았지….

놈을
쓰러뜨리고
참된 평화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알았지?

나하고
미스터 포포는
그놈과
싸울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여기 있으면
녀석은 널
죽이러 오지
못해….

3년 동안 열심히
수련을 쌓아, 다음에는
확실하게 피콜로를
처치해야 돼!

그…
그런….

좋아!
내가
해낼 거야!

반드시
처치
해다오!

아,
알았어…!

그 전에 먼저 쉬 좀 하고 싶은데.

화장실 어디야?

이얍!!

그러면 어서 수련을 하자!

싼다, 싸!

저, 저 안으로 들어가서 왼쪽….

시, 신님…. 원래 당신과 피콜로는 한몸….

피… 피콜로를 죽이면 신님도 죽게 되잖아요…. 이거 큰일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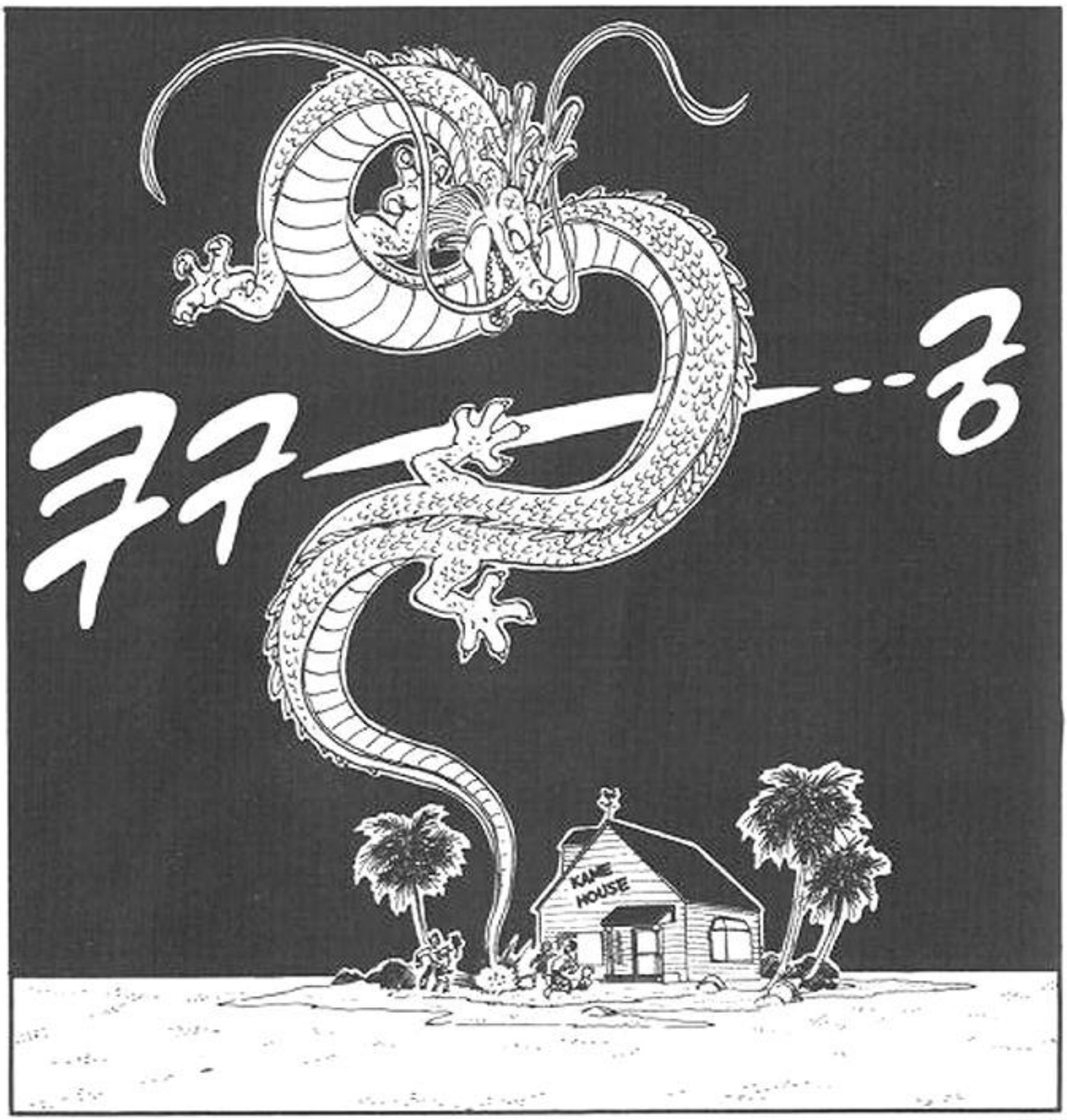
……

신이 자살할 수는 없잖아…. 저런 사람이 나타나길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할 수 없지…. 원래 내가 뿌린 씨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머리가
복잡해….
미스터
포포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神
저 손오공
이란 아이
라면….


KAM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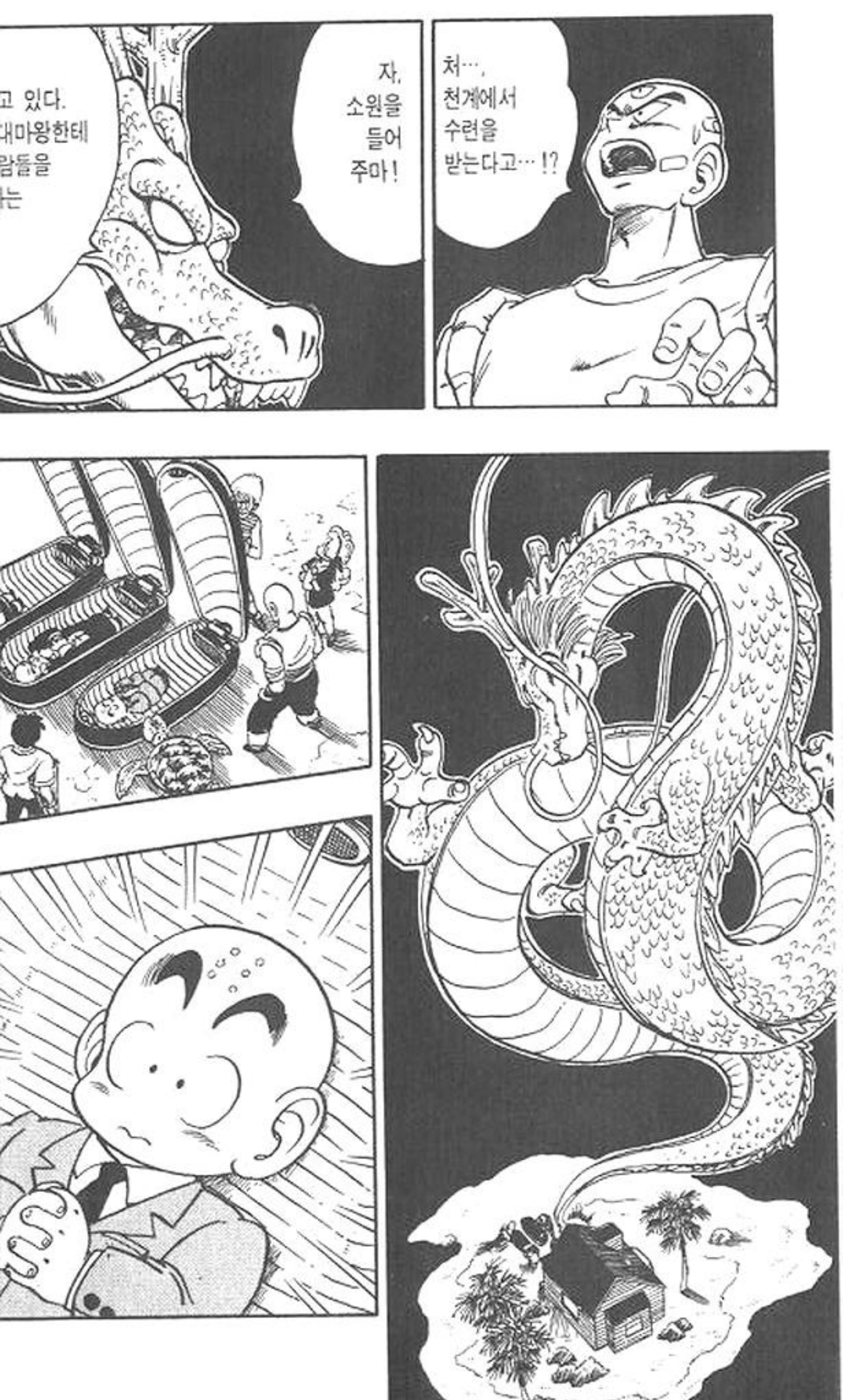

나, 나왔어! 진짜 나왔다…!
우와! 진짜로!!


손오공이 신님에게 부탁을 했어….
그리고 날 살려 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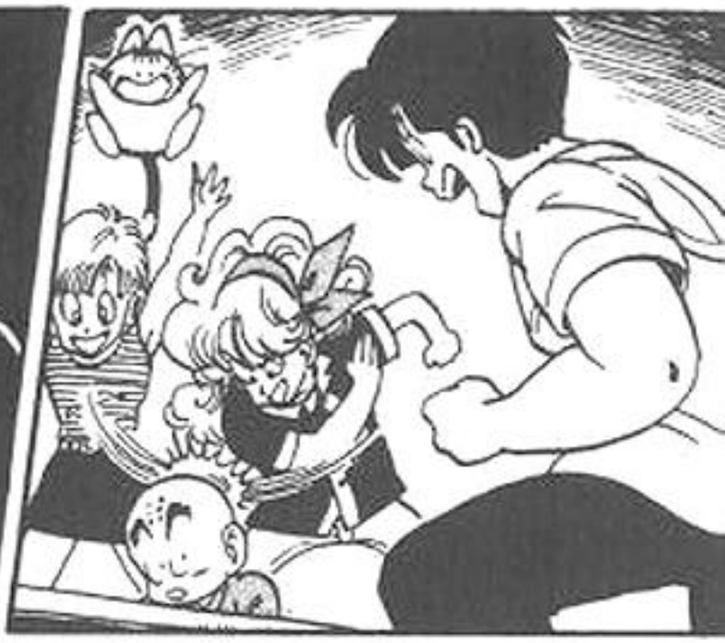

죽은 게 아니었구나, 용신…!
가, 갑자기 빛이 나서 이상하게 생각했더니….


손오공은 다음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대비해서 천계에서 수련하고 있어.
무술대회에서 만나면 자세히 물어봐.


오공이…, 신님에게…?
무… 무슨 소리야!?


고 있다.
대마왕한테
람들을
는
자,
소원을
들어
주마!
처…,
천계에서
수련을
받는다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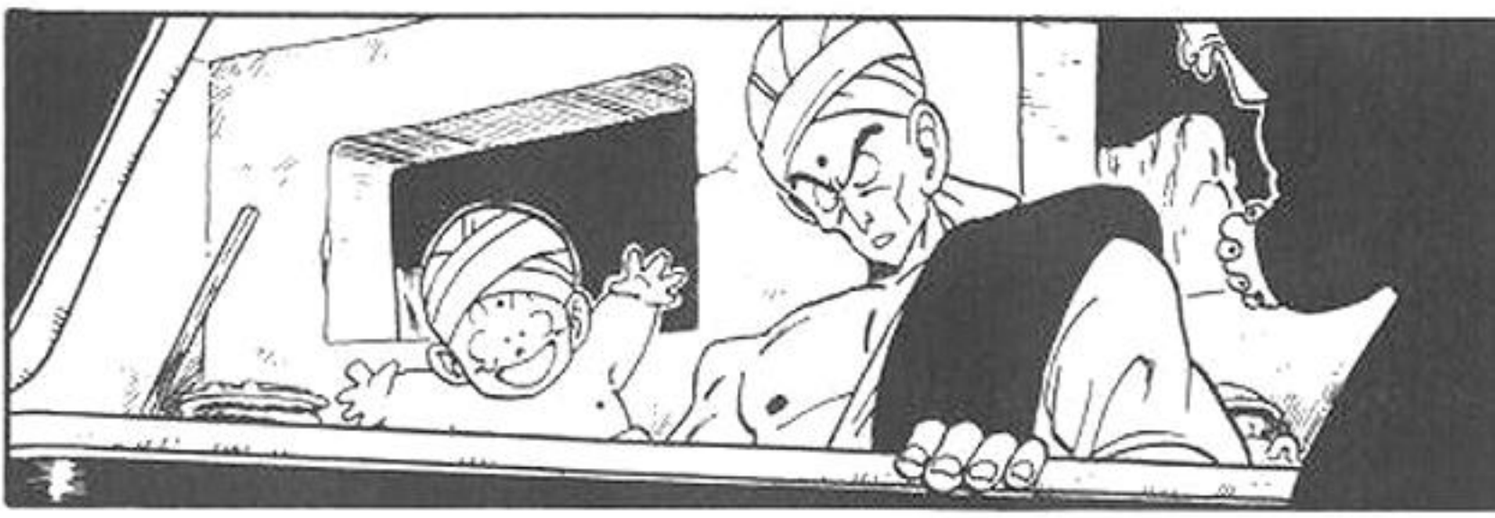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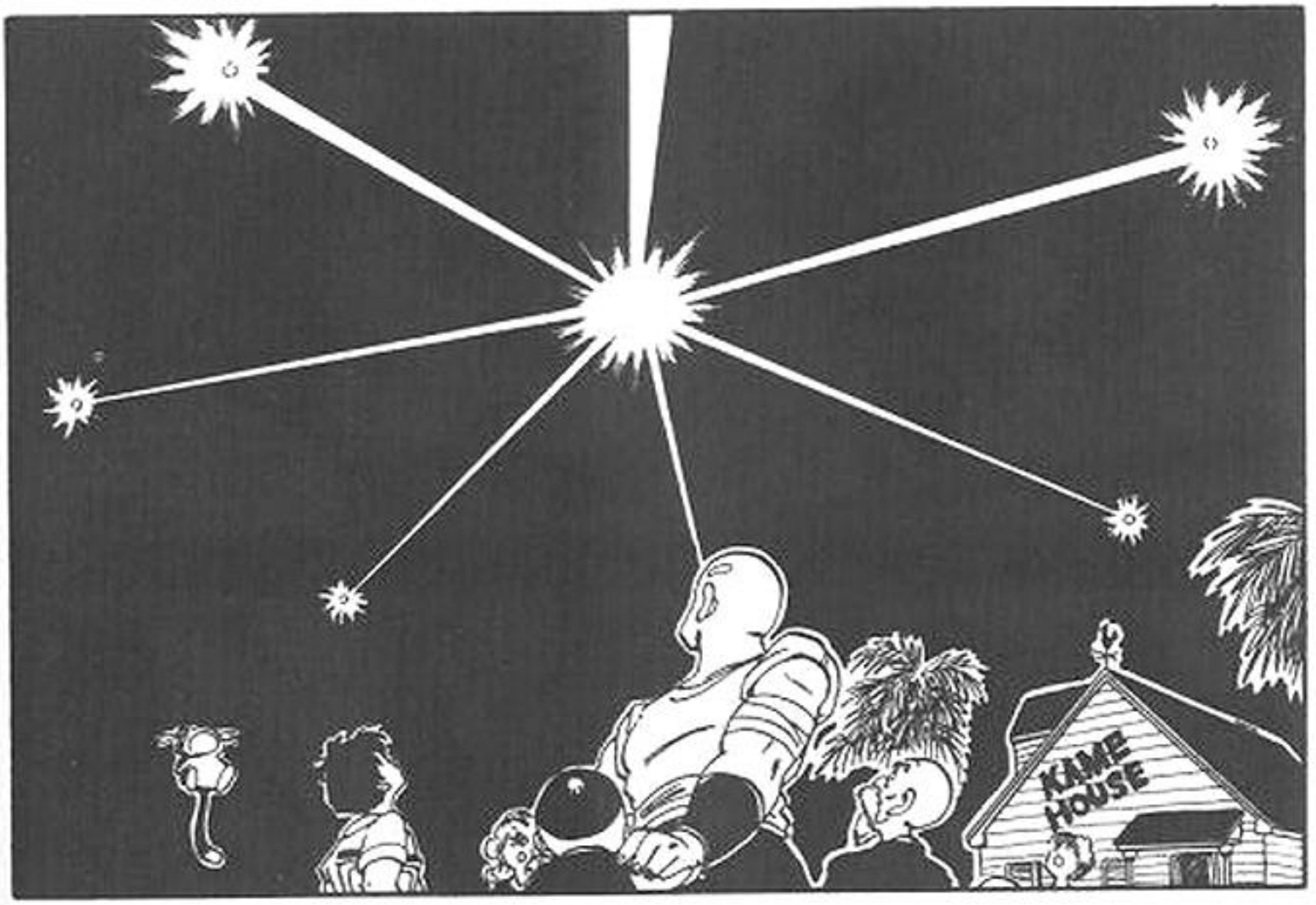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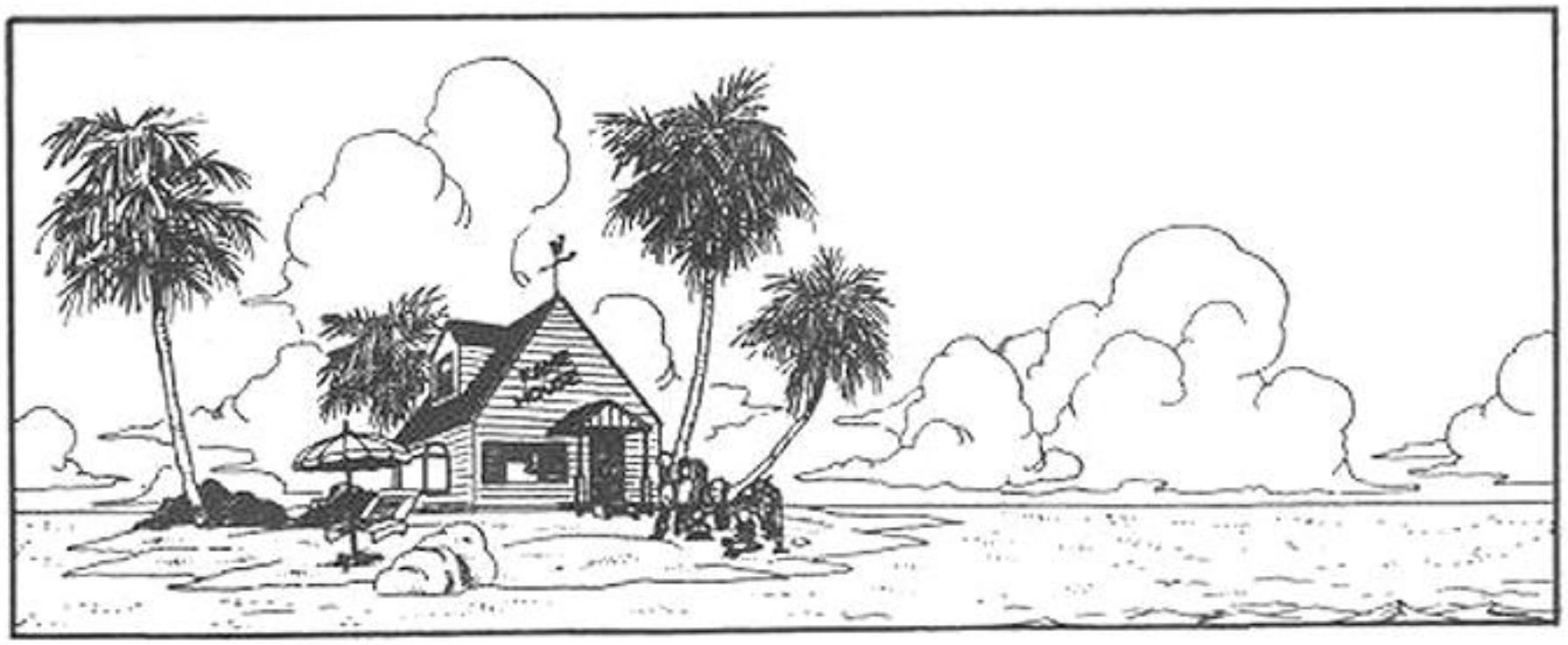









KAME HOUSE




그런데, 오공은 지금 어디 있지?
피… 피콜로를 쓰러뜨리다니….
그랬구나! 손오공 녀석이! 역시 대단한 놈이야!


우슨
얘긴지
아세요?
처, 천계
라고!?


용신
얘기로는
천계에서
수련을
한대요…
그게 저기,
잘 모르겠
지만…


만약 진짜로
천계에서
수련을 하고
있다면, 오공을
가르치는 건…
나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
지만…


하… 하지만
오공이라면…
가능할 지도
모르지…
서…, 설마…
믿을 수
없군…


신님이다!


시,
신님
이요!?

마…, 말도 안 돼…. 그런 게 가능한가…!? 설마….

오… 오공이 신님 밑에서 수련을…!?

신님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얘길…!

그러고 보니 그런 얘길 했어.

후후후…. 오공 녀석, 정말 대단해…. 이렇게까지 큰 그릇으로 성장하다니….

이제 내 힘은 그 녀석 발밑에도 미치지 못할 거야….

난 신 이상의 수련을 쌓아 다음 우슬대회에서도 우승할 테다!

신이라…, 재밌군!

대체 어디까지 강해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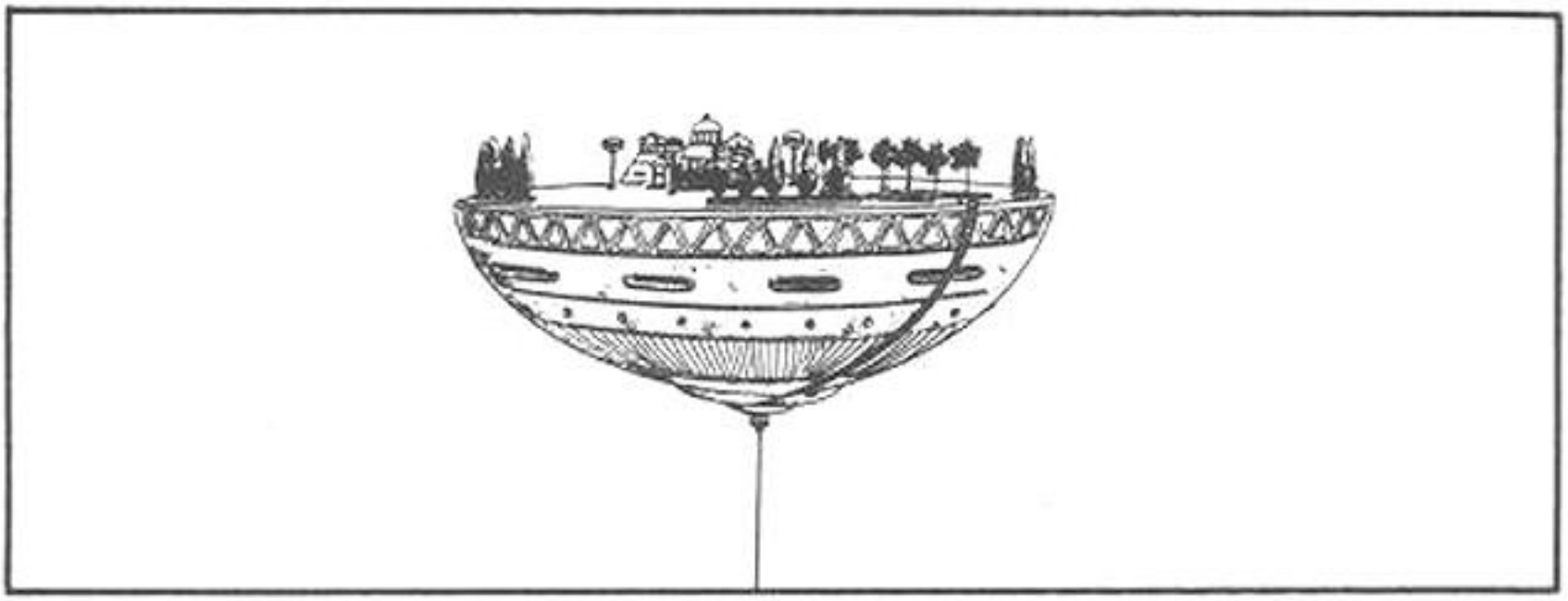
그놈….

점점 우리들과 수준이 전혀 틀린 단계로 가는 것 같아….

하하하! 그래, 좋아.

나, 나도!

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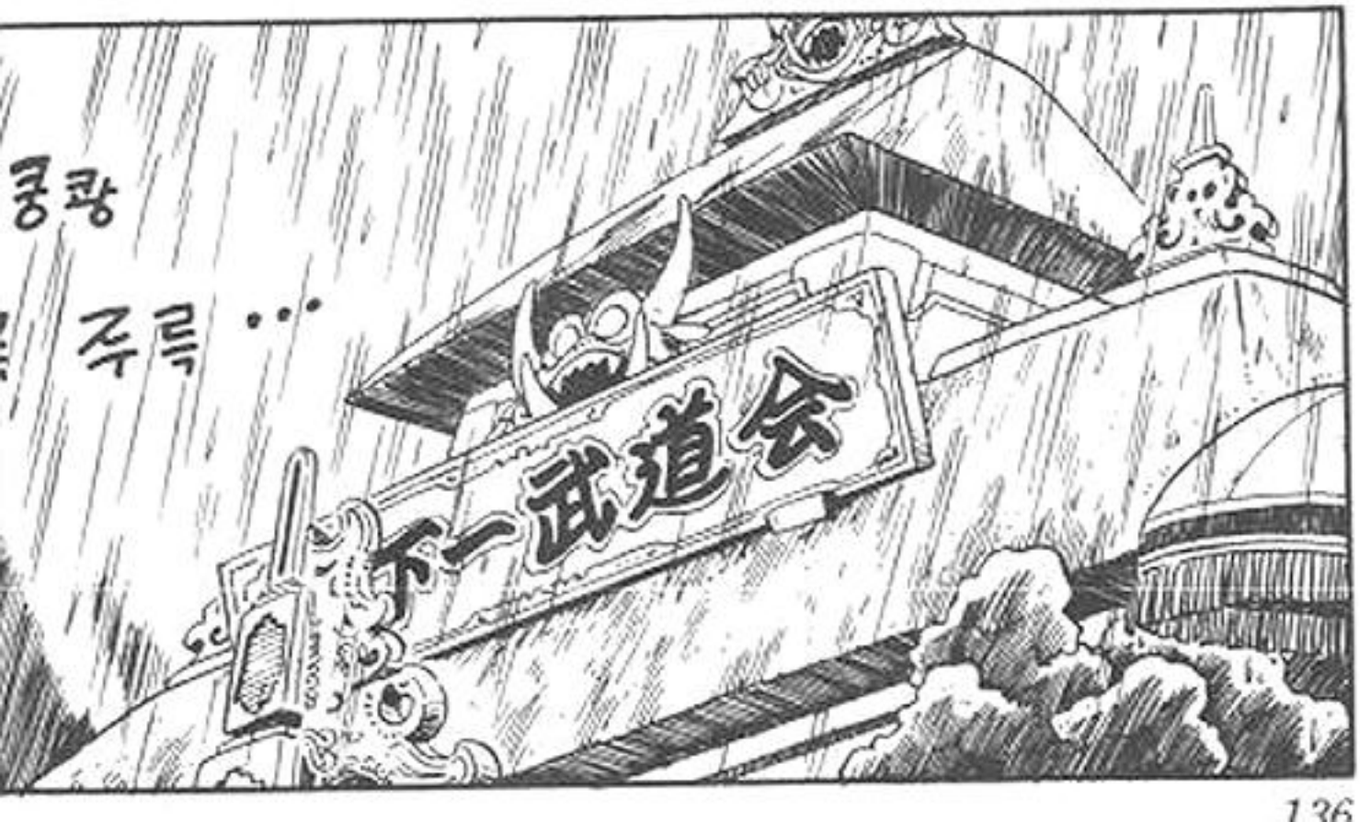






다음은, 제166화 각각의 재회


웅웅웅
쏴
BUD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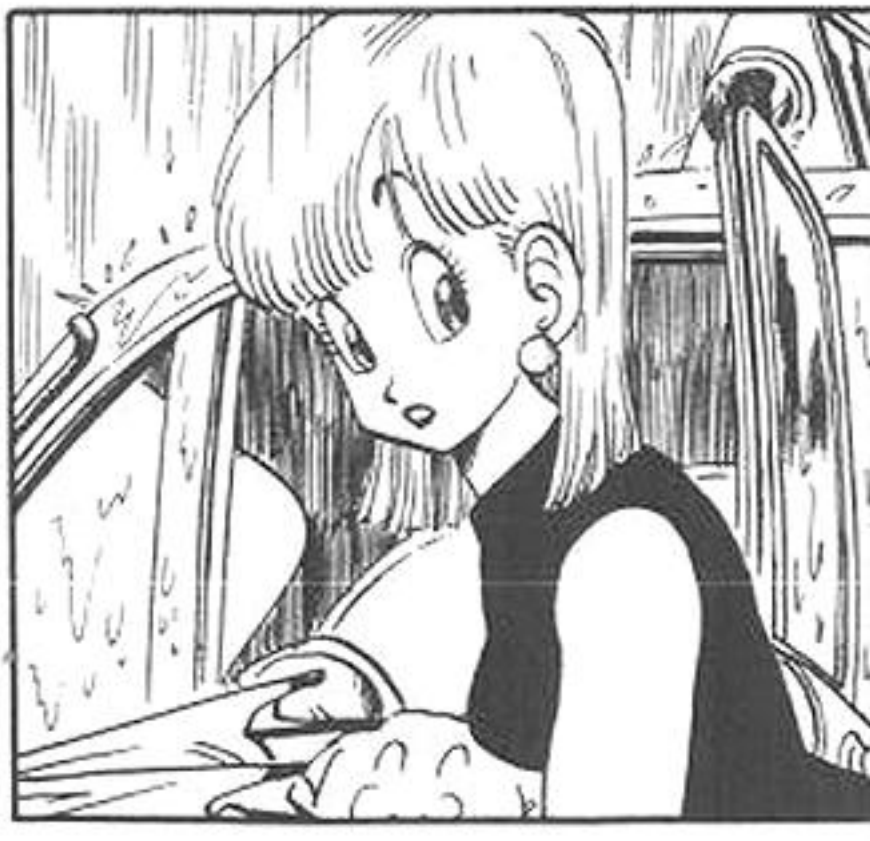

쿵쾅
주륵 ..
武道会


다들 늦네….
으음….


어머!


끽
TAXI


역시
부르마
씨네.
어머!
둘다
오랜만이야!



이야!
이거 죽인다!
완전히 처녀가
다 됐어!

다른
사람들은?
아직이야?

퍼
억

엉덩이
건들지
마!

같이
오지
않았니?

그, 그런데
야무치
녀석은
어떻게
된 거지?

괘차
마찬
가지네!

서…,
성격은
여전
하군….

날
두고….

혼자
수련
여행을….

그 친구는
서쪽 도시로
돌아가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3년 전에
오공에게
많은 자극을
받아서
그랬을 거야….

후후후후….
야무치도 그랬군….
크리링 녀석도
그렇게 말하고
수련을 떠나
버렸지….

모두들
건강해
보이는구나!

할아버지!
살아나서
잘 됐네!

안녕!

숨겨놓은
애인이니?

아니….

아니…,
아니….

설마…!

오…
오공….

정말!?

크리링하고
야무치,
천진반들은
어디 있지?

벌써
예선 대회장에
들어갔나?

비가 좀
그쳐가는
구나!

아,
다행이다.

어?
뭘 그렇게
놀라?
당연히
오공이지.

잘 봐.

이걸 풀 테니까….

아차, 머리에 이걸 감아서 올라보는 건가?

지, 진짜 오공 맞아?

마…, 말도 안 돼…!

네… 네가 커진 거지….

그런데 할아버지랑 부르마는 키가 줄어든 것 같네.

틀림 없지…?

어때?

카가 큰 건지도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

몰라보게 컸구나….

근데 정말….

립스틱 발랐어!

부르마, 너 입술이 왜 빨개? 어디 아파?

안녕-!

다들 여기 있었구나!

KAME

KURIRIN

오랜만입니다.

무천 도사 님!

왜… 왜 반가워 하지 않지…?

우리가 너무 변해서 놀란 거야!

KAME

잘 지냈니, 크리링!

어?

KAME

하하 하하….

저도 키가 너무 커서!

몰라 보시겠죠, 도사님?

KAME

이제 모두 모였구나!

저… 저게…, 손오공 이라고라…?

그런 가봐….

너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못하고, 정말 미안했다!

오공-! 임마, 보고 싶었어!

네… 네가 오공이니…!?

그래!

자-, 오늘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출전할
선수 여러분!

곧 예선이
시작되니
경무관쪽으로
모여주세요.

웅성
웅성
웅성…

시작이다!

할아버지,
항상 입는
내 도복
갖고 왔어?

무쓴 소리!
이제 너희들은
모두 각자 훌륭하게
제갈길을
가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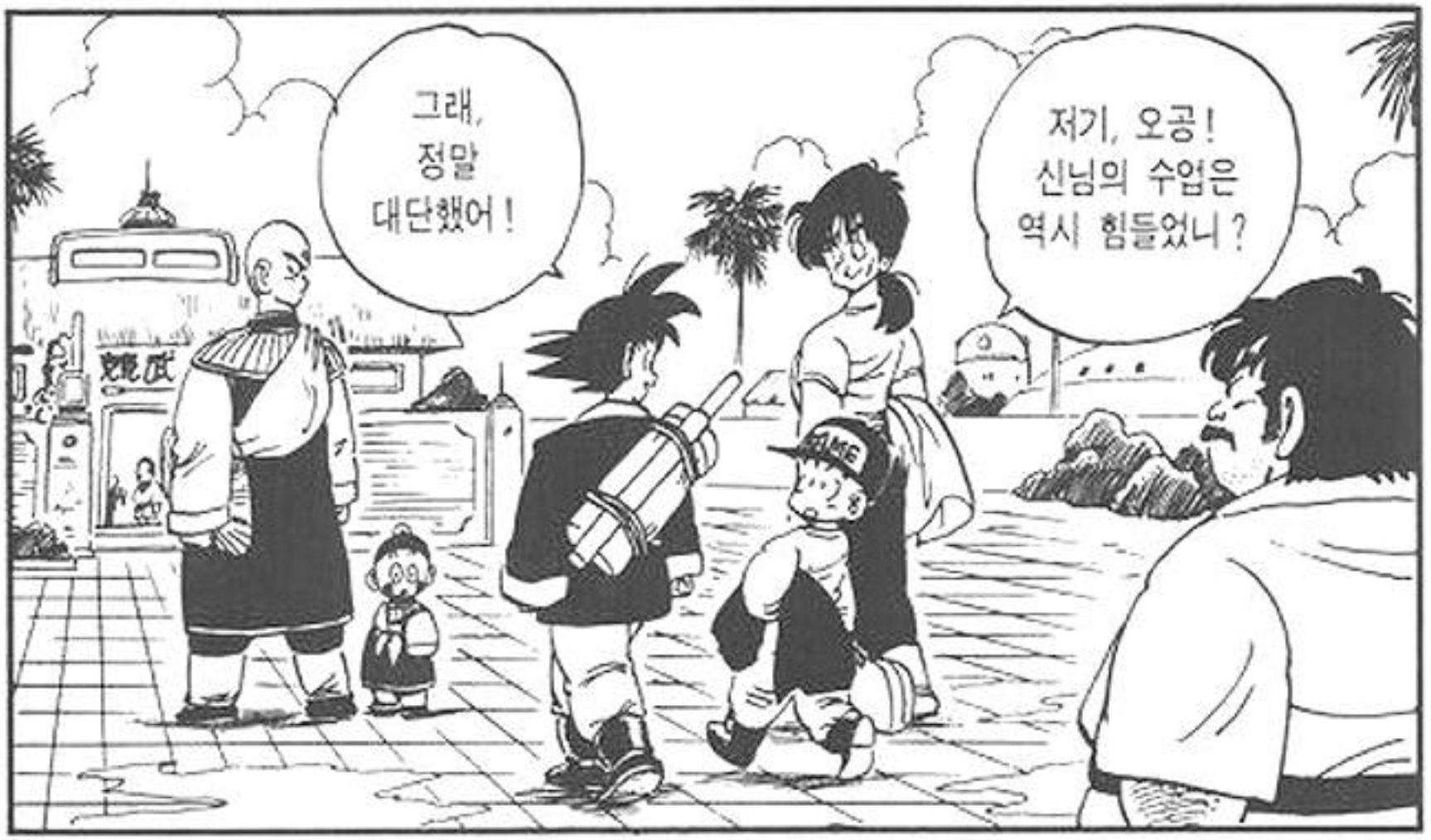
언제까지나
거북선류의
도복을 입을
필요가
없잖아!

자,
열심히들
해라!

옛!


첫!
이 여잔
남자만 보면
정신 못차린
다니까!
믿을 수 없어~!
개구쟁이 오공이
저렇게 멋진
남자가 되다니!


넌 포기.
이제 너희들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무천도사 님은
이번엔
출전
안 하세요?


그래,
정말
대단했어!
저기, 오공!
신님의 수업은
역시 힘들었니?
武道


武道館

해헤!
난 무천도사 님이
이번엔 거북선류의
유니폼을 주지
않을 줄
알고….

어때!?

미리
도복 가게에서
맞춰 입었지롱!

와글
와글

웅성
웅성

시끌
시끌

히히히~!
나도~!

칫~!
뭐야, 나만
튈려고
생각
했더니…!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 꼬리가 방해된다고 하시던대.

잘은 모르지만, 사라진 달을 다시 만들려면….

아! 신님이 떠어 버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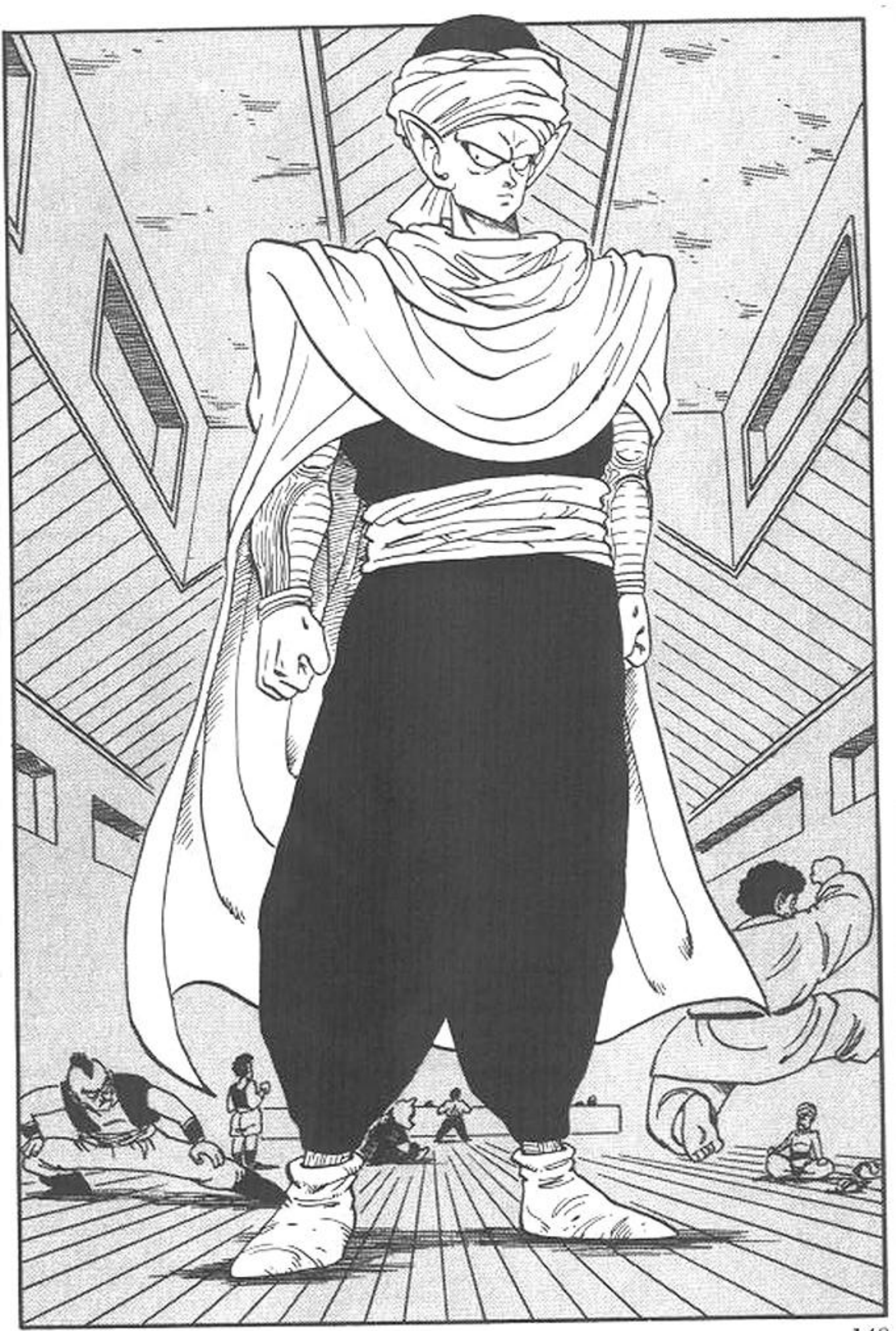
아니, 오공! 네 꼬린?

그… 그럴 듯한 얘기군….

흐… 흐음!

왜 그래? 오공….

무슨 일 있니?



아니…,
저놈은!

오공…,
아는 놈이니?

뭐… 뭐야…?
저 녀석
눈빛이
얼음 같네….

역시
왔구나…,
피콜로
대마왕…!

이…
이런…!
설마…!



다음은, 제167화 파란의 천하제일 무술대회




헉…!




응, 그런 것 같아!
여…, 역시 그렇군….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이야!
그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날 테니까….


오… 오공… 저 녀석 혹시…
피… 피콜로 대마왕의 살아남은 부하 아니니…?


저 분위기로
보이
보통 놈은
아니겠어…
뭐야? 아는 녀석이냐?
아, 아니야! 그냥 센 녀석 같다는 얘길 했어!
톡톡
어?
방긋
손오공…
엥!?
썰렁…


너 누구니?
발끈
바보!!
흥!
아…. 아니…. 쟤는 뭐야…?
오… 오공! 쟤는…?
우, 우와! 캡숑 예쁜 애다!
정말 몰라…!
난 저런 애 만난 적 없걸랑!

지금부터 예선을 시작하오니 중앙으로 모여주세요.

선수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임마-! 뻥치지 마!

제길~! 졌다~!

너 정말 그 동안 신님에게 수업만 받은 거야…?

이번 참가자는 72명으로 지난 번에 비해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난 대회가 너무나 수준이 높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여겨집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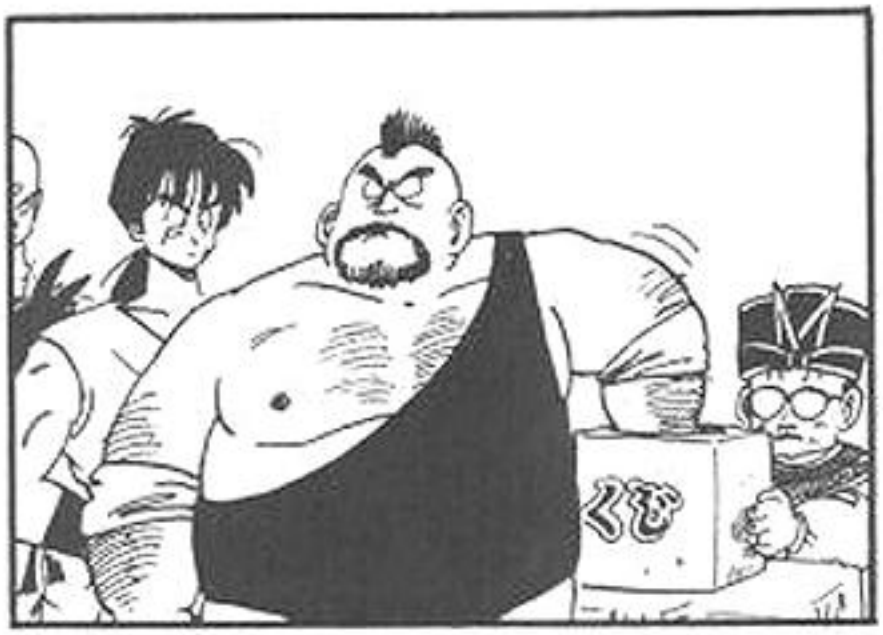
에-! 오늘은 3년에 한 번 무술을 겨루는 천하제일 무술대회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 피콜로의 부하가 왜 지금 와서 이 무술대회에 나왔지…?

아무래도 저놈이 눈에 거슬려….

규칙을 잘 지켜 천하제일의 기술을 겨루는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런 만큼, 이번 참가 선수 여러분은 모두 실력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응성
응성---
龜武館


알았어!
저놈도
다른 조로
만들어
실력을
보고 싶다.


알았지, 차오즈?
우리 번호는
다 흩어지게 해.
응!


각자
제비뽑기로
지정된
자기조의
경기대 쪽으로
모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8명의 천하제일
무술대회 본선
출장 선수를
결정하는
예선시합을
시작합니다.


우와-!
다행히 모두 다른 조에
들어갔네! 서로
안 부딪쳐서 다행이다!
정말 운이
좋구나…!
난 2번,
1조의 첫
시합이네!
龜


1조
다만, 상대선수를 죽였을 경우에는 즉시 실격이 되니 주의하십시오. 그럼 우선 제비뽑기 번호 1번과 2번 선수 올라와 주세요.
에…, 그럼 1조의 예선을 시작합니다. 규칙은 아시겠죠? 이 경기대 밖으로 떨어지거나, 기절하거나, 졌다고 말하면 패배입니다.


으음….
어, 벌써 손오공 차례다.


헤헤…!
오공! 신님의 수련 성과가 어느 정돈지 보지!


헤헤~! 역시 신경 쓰이지?
어디 보자.


뭐, 좋아…. 지난 번 복수를 한다는 의미에선 절호의 상대인걸….
또 만났군. 첫 시합 상대가 너라니….


어?

그래!
거북선류의
유니폼이다.

이봐!
저 친구, 저번에
준우승한 애
아냐?

저 박!
또 차파왕
이네.

키가
많이
컸구나….

네가
운이
없구나.

이제 넌
끝장이다.
지난 번 같은
일은
없을 거다.

그럼
시작!


정말 건방지게 …!
큭…! 그게 시합 자세냐…?
무도를 우습게 알면 혼난다!


완전히 마음을 비웠어…. 그걸 모르는 차파왕은 이길 수 없지.
오공의 기가 전혀 안 느껴져….
뭐… 뭐야, 저건…!
대단해….




타아—앗!!


휘익
엇!?
어, 어디지!?
스슥…
어디로 사라진 거냐!?

맞아!
지난번처럼
또 위다!

털썩...

2번 선수…,
승리입니다….

아…,
기절
인가…?

저 녀석…. 아주 안정된 느낌이야….

그래….

완전히 갖고 노네….

우와! 대…. 대단하군….

차파왕을 단 일격에….

분명 녀석의 실력은 아직도 무궁무진할 거야.

그러나 저 정도 동작으로는 도저히 나를 이길 수 없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작살을 내주마! 기다려라…!

타—앗

쿠—웅

퍼억

얏!!

하압!!

퍼억


아…!
아니…!
콰당
와~~앗
차오즈…!!
후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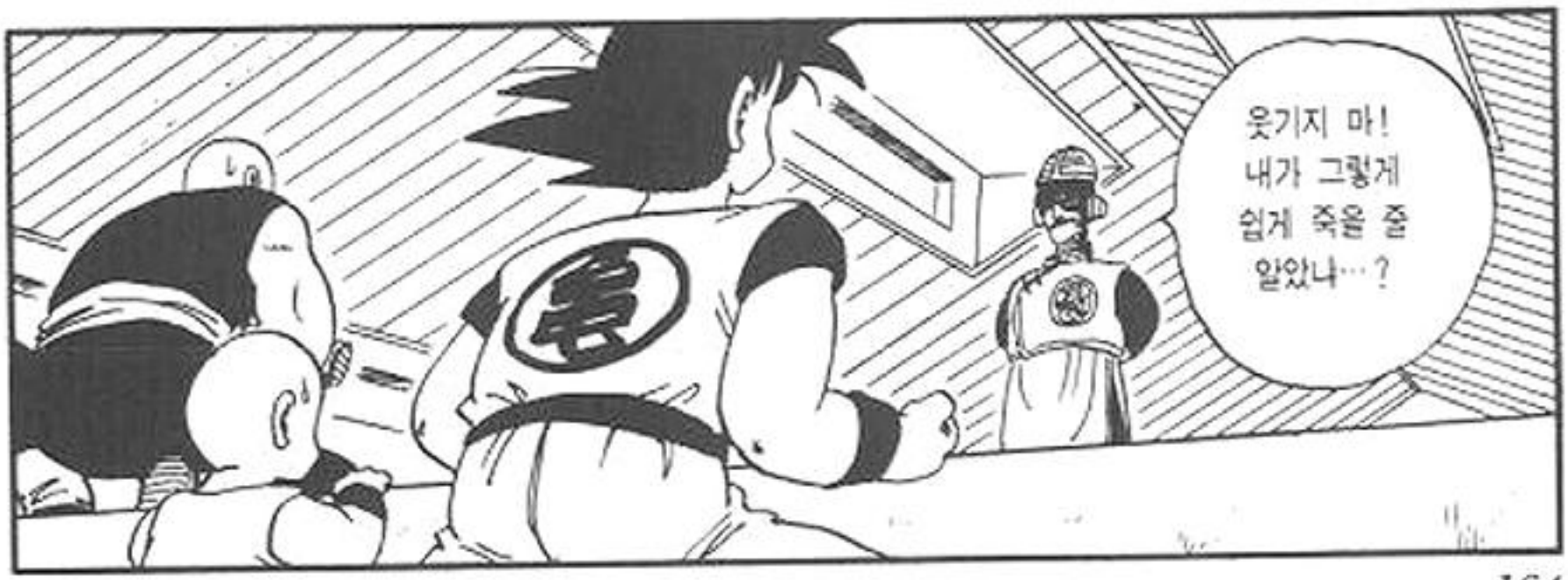




다음은, 제168화 8명의 승자 결정!!


武館


타… 타오 파이파이 님…. 죽은 게….
그렇다! 이제 알아 보겠나…?
크흐흐…!
殺
타… 타오파이 파이!?


웃기지 마!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줄 알았나…?
悟

저… 저어…, 좀 비켜주세요. 다음 시합을 해야 하는데….

넌 닥치고 있어. 빨리 죽고 싶지 않으면.

그렇지만 심한 충격을 받아서….

부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

아마 학도사의 동생 같아….

그렇다면…, 천진반과 차오즈의 예전 선배가 되나…?

오, 오공…, 저놈은 뭐지…?

타오파이 파이란 살인 청부업자….

사이보그화하여 부활하기 위해 지금까지 번 돈을 다 썼다.

당연히 그 덕분에 전보다 몇 배나 되는 파워를 손에 넣었지만….

아니, 뭐라고…!?

내가 분명 처치했었는데….

손오공이란 놈은 예선에서 살아남아라.

무술대회에서 나와 싸우게 될 때까지는…. 물론 난 우승 따위엔 관심없어. 네 목숨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니까….

나… 나는 거북선류에 입문한 게 아니에요…. 그… 그저 당신들의 가르침이 옳지 못한 게 아닌가 해서….

거북선류 따위와 같이 어울리다니…, 배신자!

그 다음은 네 차례다, 천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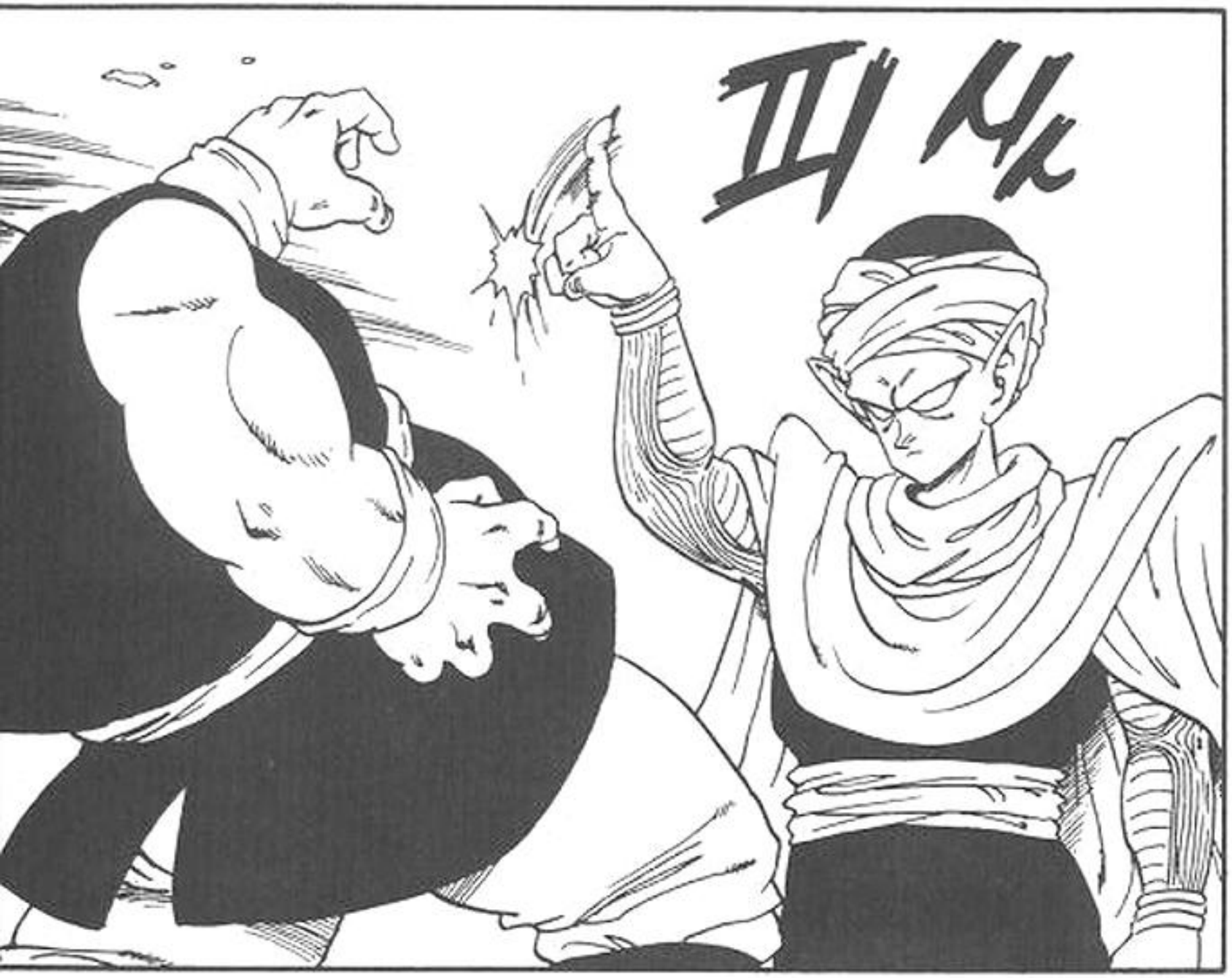
싸우죠, 차오즈의 몫까지….

아…. 알겠어요….

목을 씻고 기다리고 있어….

하하하…! 허풍은 여전하구나, 녀석.

기대하고 있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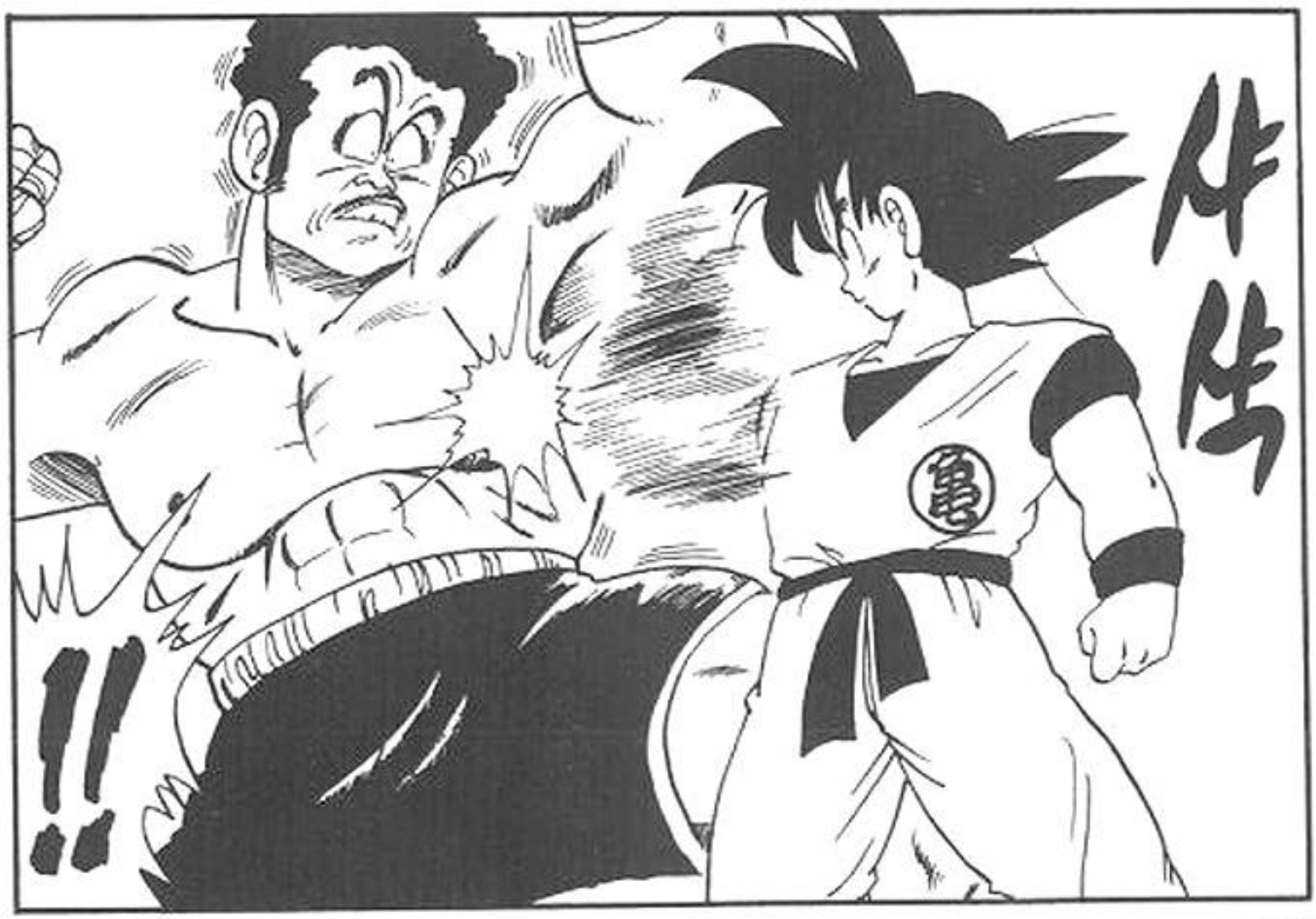

피융


큰일났네….
왜 이번 대회엔
저렇게 무시무시한
놈들이 많이
나왔을까…?
저놈도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


다운!
51번의
승리!

피콜로의 분신이라….
그렇지만 저 녀석 실력은
예전의 피콜로보다
훨씬 더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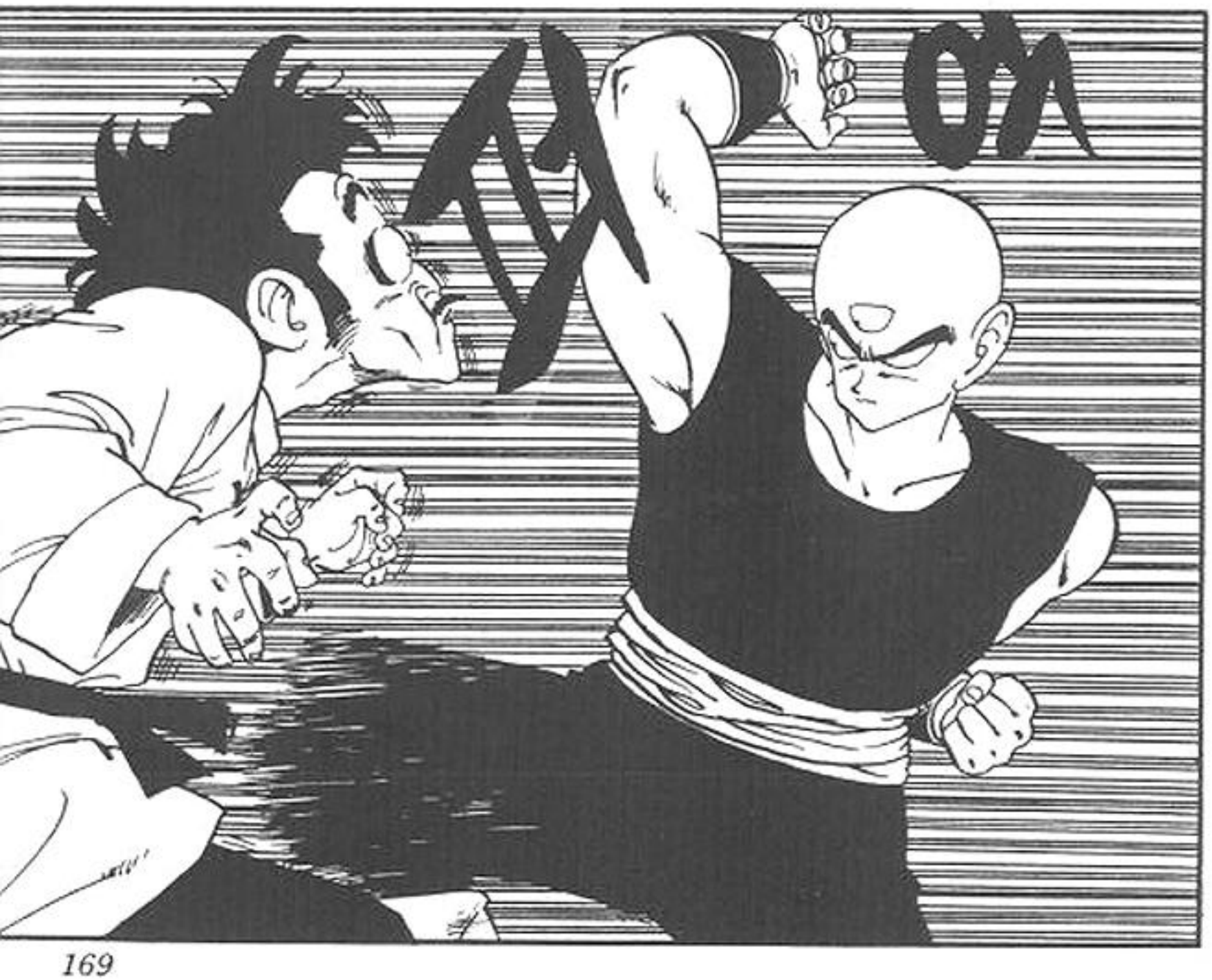
아무래도
저놈도 상당한
수련을 쌓은 것
같아….




해냈다!


여…, 역시 대단해…
단방에 끝내 버리다니…


2번 선수! 천하제일 무술대회 본선 출장 결정!
장외!



35번!
천하제일
무술대회
출장 결정!

16번
천하제일
무술대회
출장
결정!

항복!
51번!
천하제일
무술대회
출장 결정!

천하제일
무술대회
출장
결정!

22번!

저봐.
타오파이파이란
사람도
남은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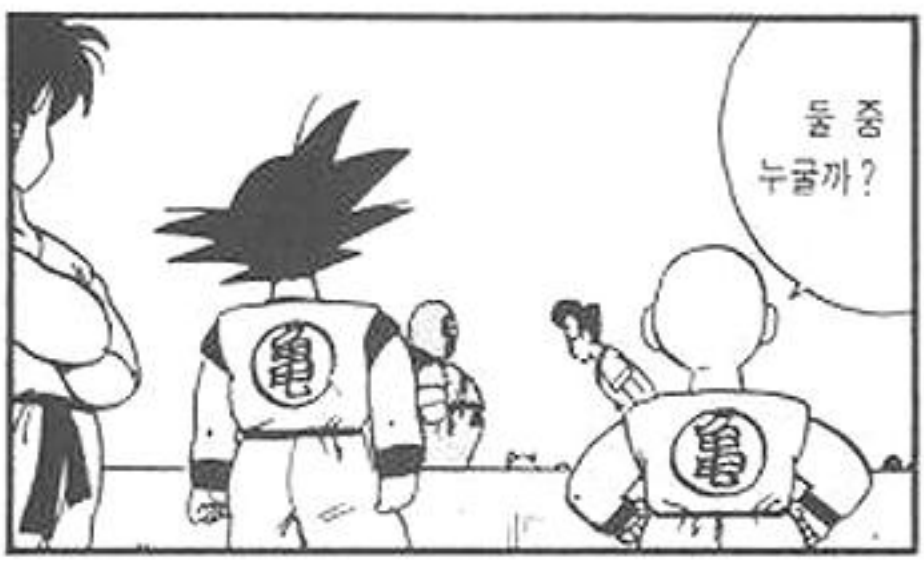
역시
저 녀석도
남았네…

타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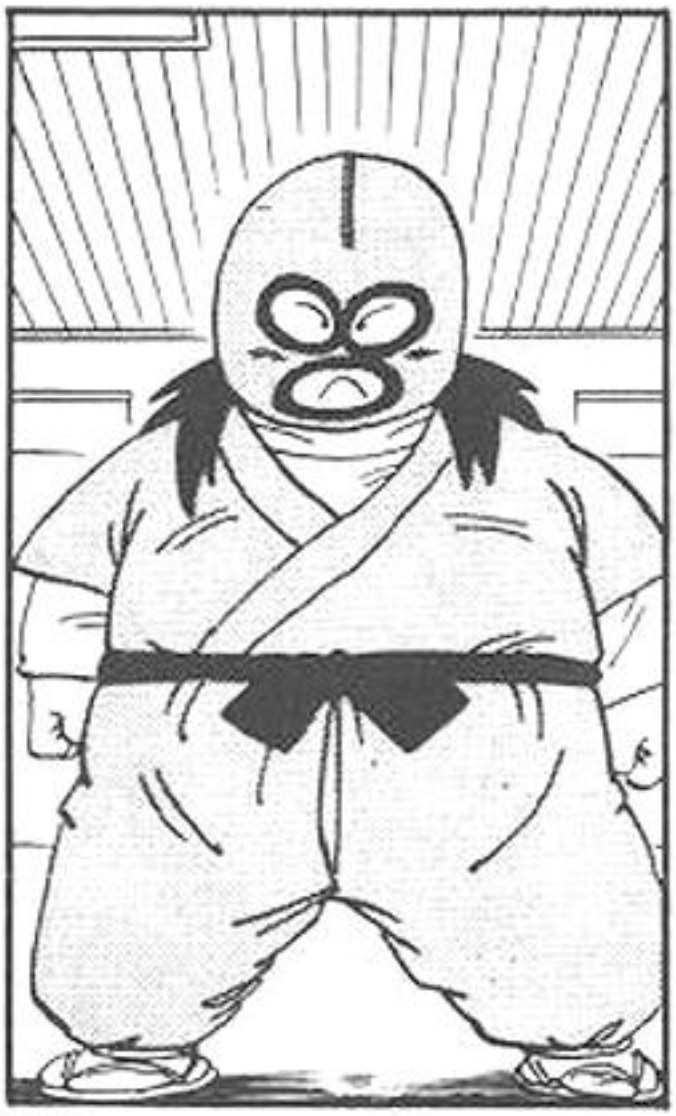
저 사람은
진짜로
우릴 죽일
작정인 것
같아.

……


59번!
출장
결정!!
우…
우와!
저 여자애가…,
놀랍네….
쟤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둘 중
누굴까?


이제 출장자는
한 명만
더 결정되면
다 되는구나….




저건 아침
라디오
체조
같은걸!
키킥!


호~!
호~!

칫~! 저 실력으로 잘도 여기까지 남았네.

진짜 한심하군….

첫….

호홋——!

으앗!!

탁

엥!?

부웅

에잇!!


쾅


으다다
다!!


기절!
70번!
출장
결정!!
아이쿠
…!
털썩…




본선 출장이
결정된 선수는
모두 이리
모여주세요!
자! 이제
8명의 출장자
전원이 결정
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시합
이다…!
우하하~!


근데
그 아저씨,
보통 실력이
아닌걸…
제길~!
말도 안 돼…
가면 쓰길
잘 했지…


아야야…!
그럼 이제부터 제비뽑기로
토너먼트의 대전 상대를
결정하겠습니다…

안녕, 또 만났네.

어?

자, 그럼 여러분. 제비를….

역시 괜히 출전했어.

첫! 예선에서 저런 무서운 상대를 만나다니….

아니, 아뇨…. 유령이 아니에요. 살아난 거라구요.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이아아악!!

제23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결승전

5

6

1 타오파이파이

천진반

2 손오공

악명 회망

3 마주니어

크리

4 셀

이리하여 제비뽑기가 끝나고, 폭풍의 예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제23회 천하제일 무술대회의 대진상대가 드디어 결정되었다!

제1시합
타오파이파이
VS
천진반

제2시합
손오공
VS
악명 희망

제3시합
마주니어
VS
크리링

제4시합
셀
VS
야무치

scanned by raprn
scanned by raprnb

표지 페이지 대특집X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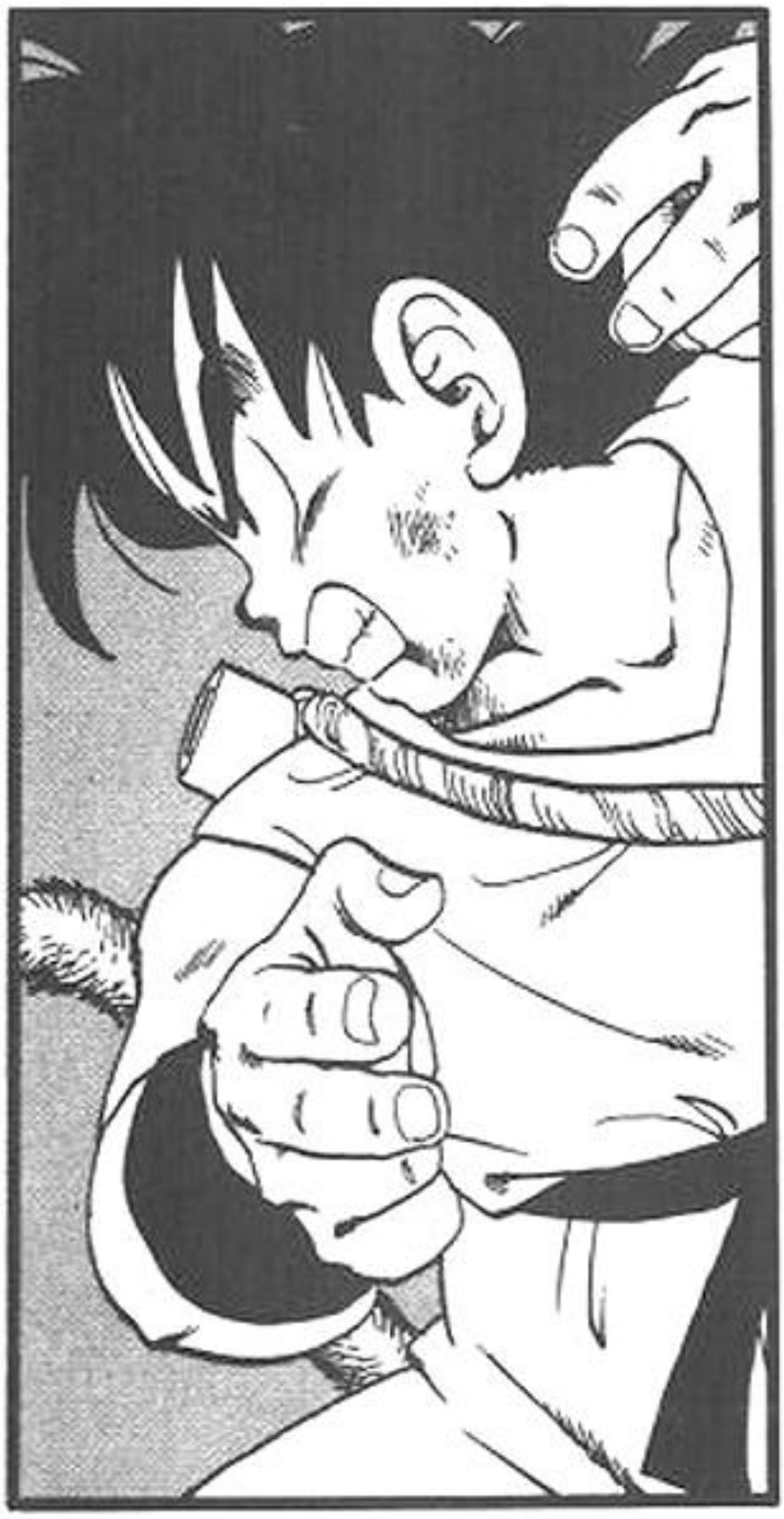
훨씬 늠름해진 손오공! 파란의 제23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빨리 다음 편을 읽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선 항상 나오는
표지 페이지 대특집!! (소년 점프에 실린 그대로
올린 겁니다.)



DRAGON BALL

제159화 황야의 대 격투!!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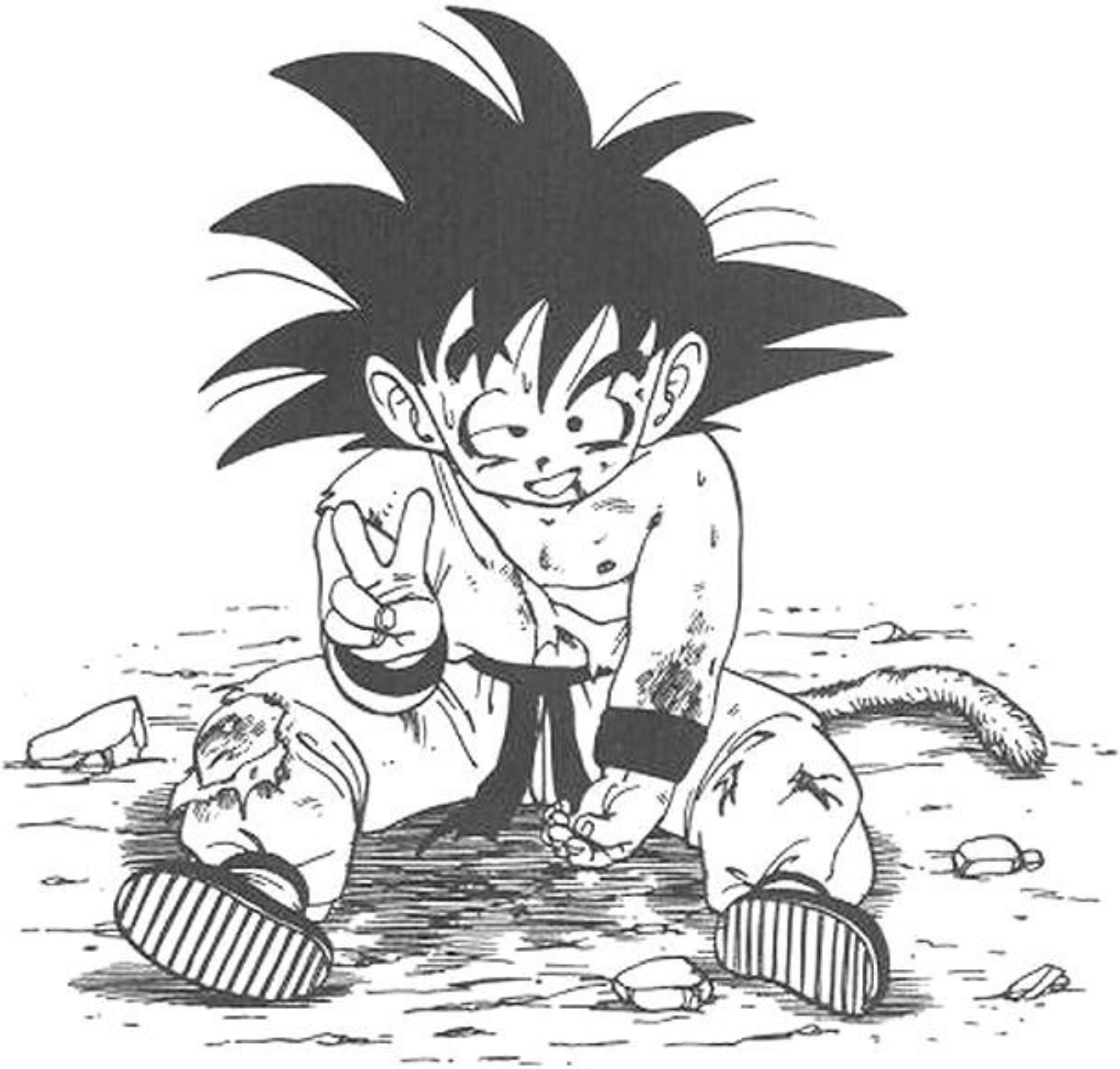
제160화 손오공 최후의 도박!!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61화 손오공의 승리!!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162화 여의봉의 비밀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65화
용신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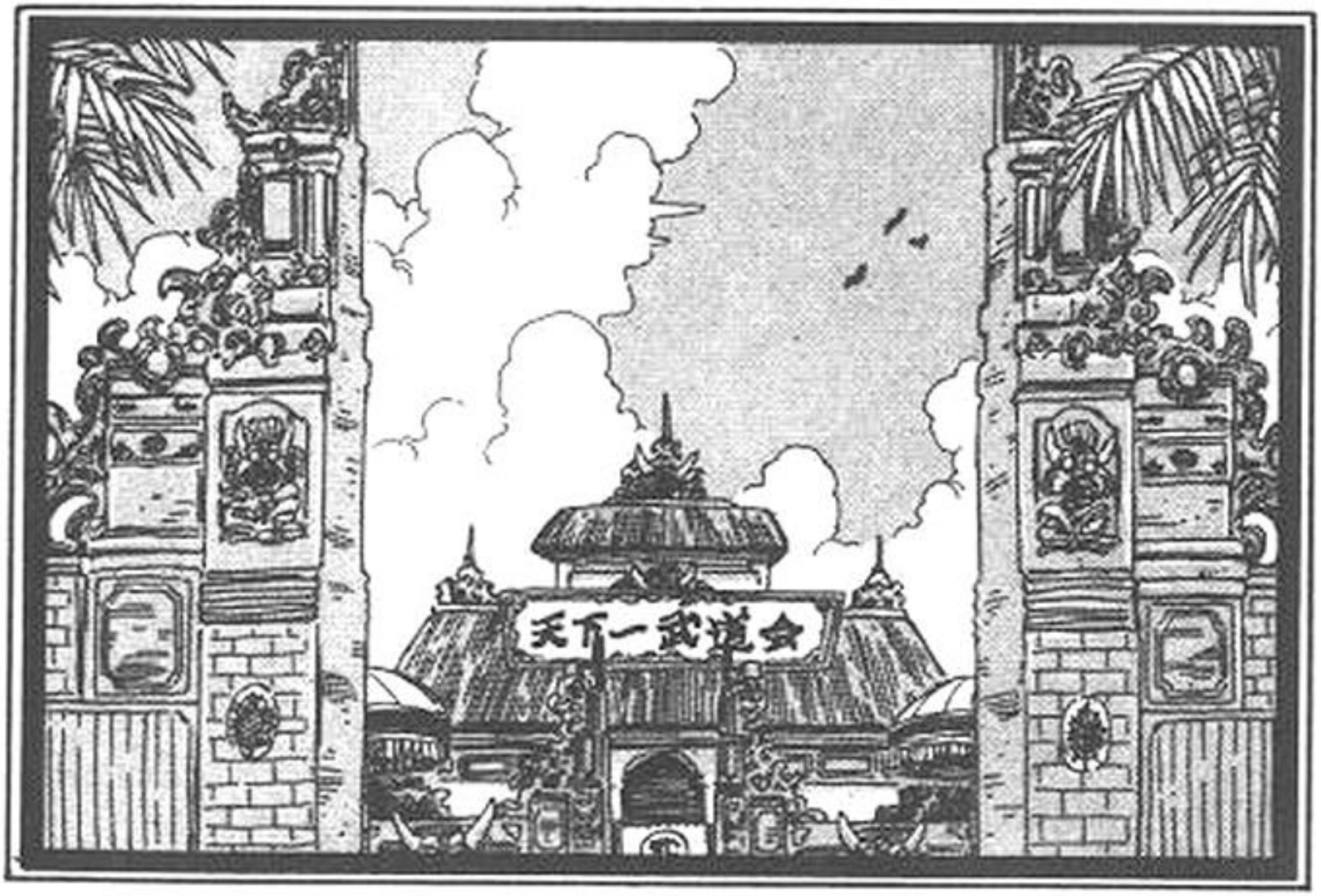
내 도복 좀
생각해줘봐!!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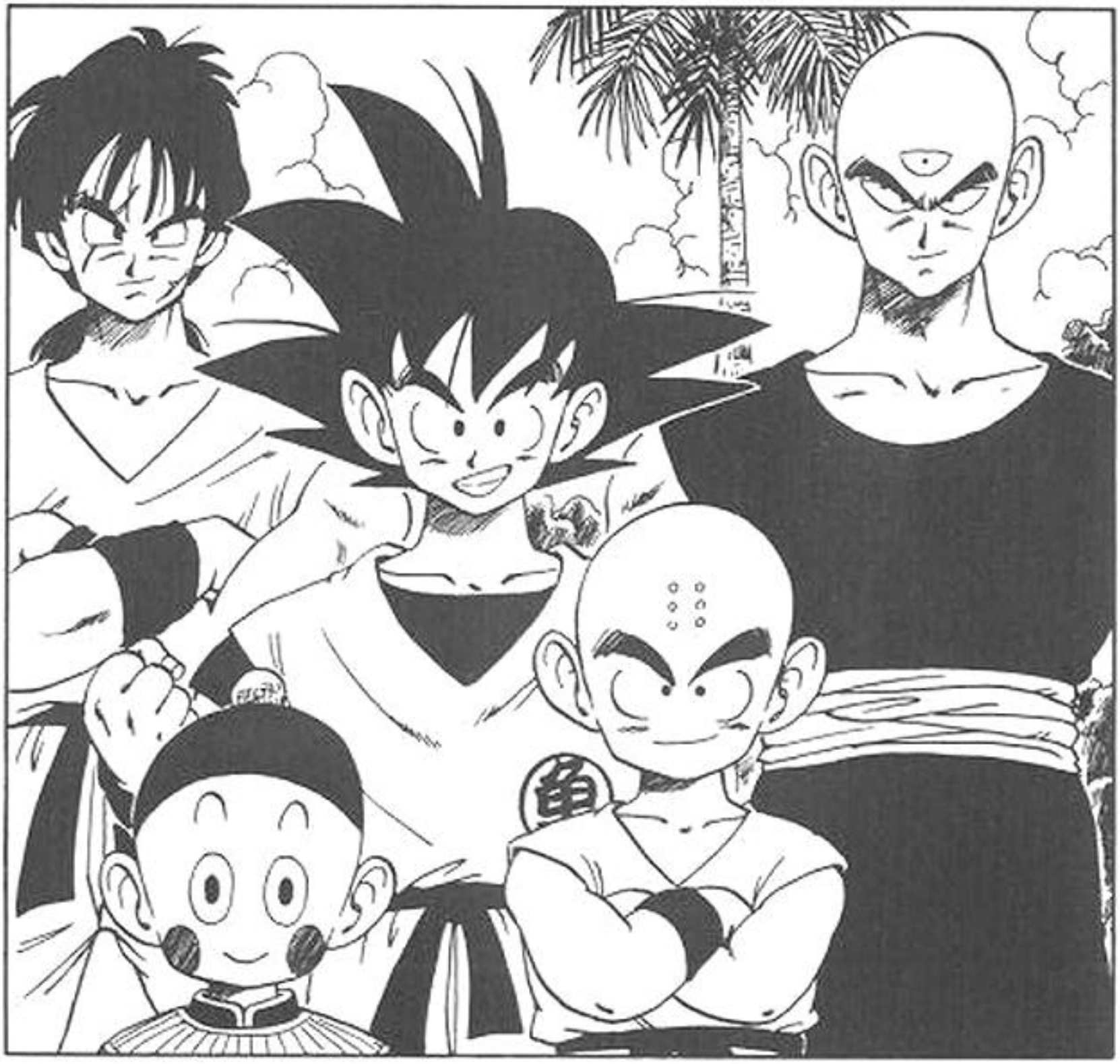
제166화
각각의 재회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67화 파란의 천하제일 무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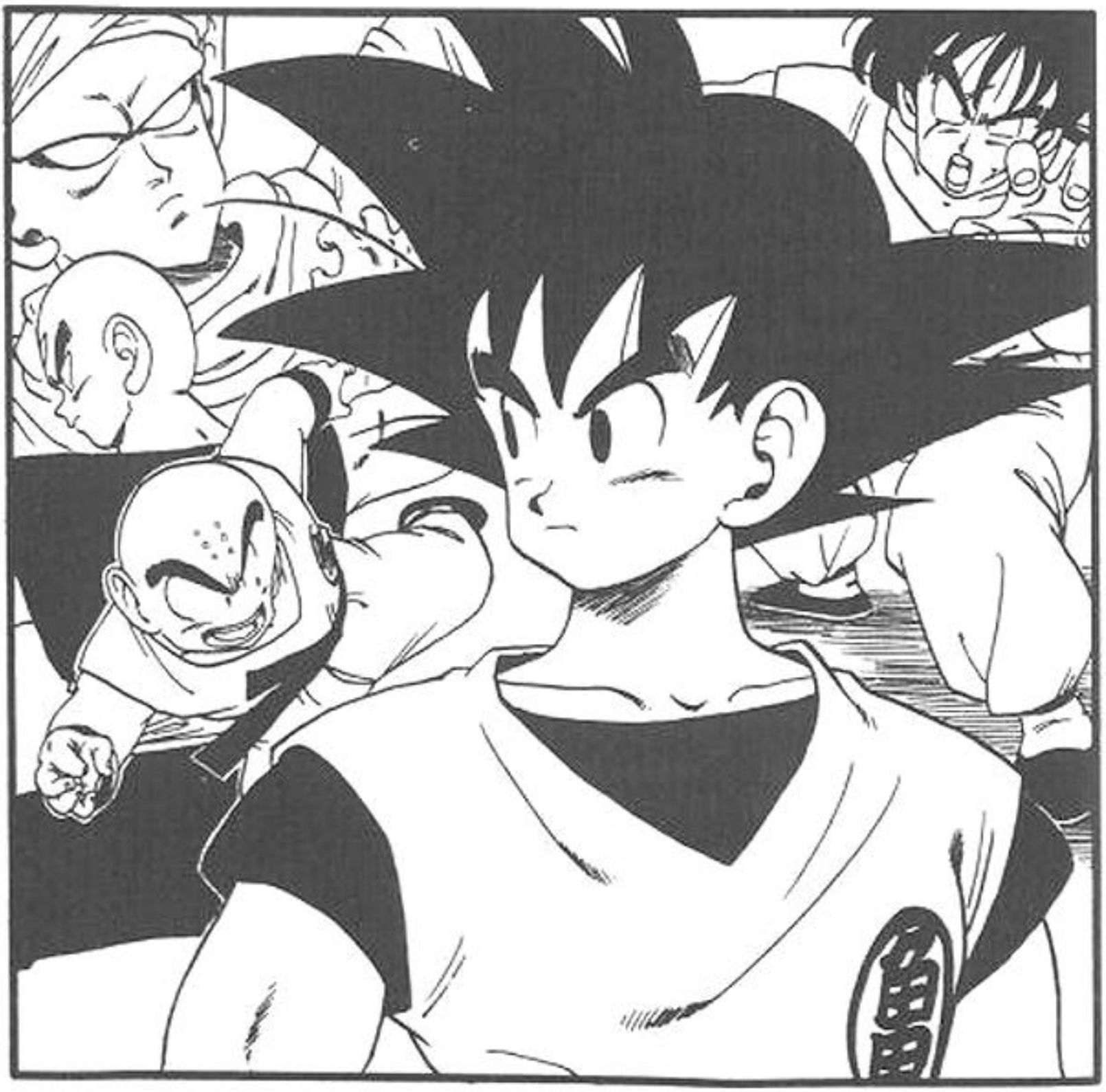


제23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예선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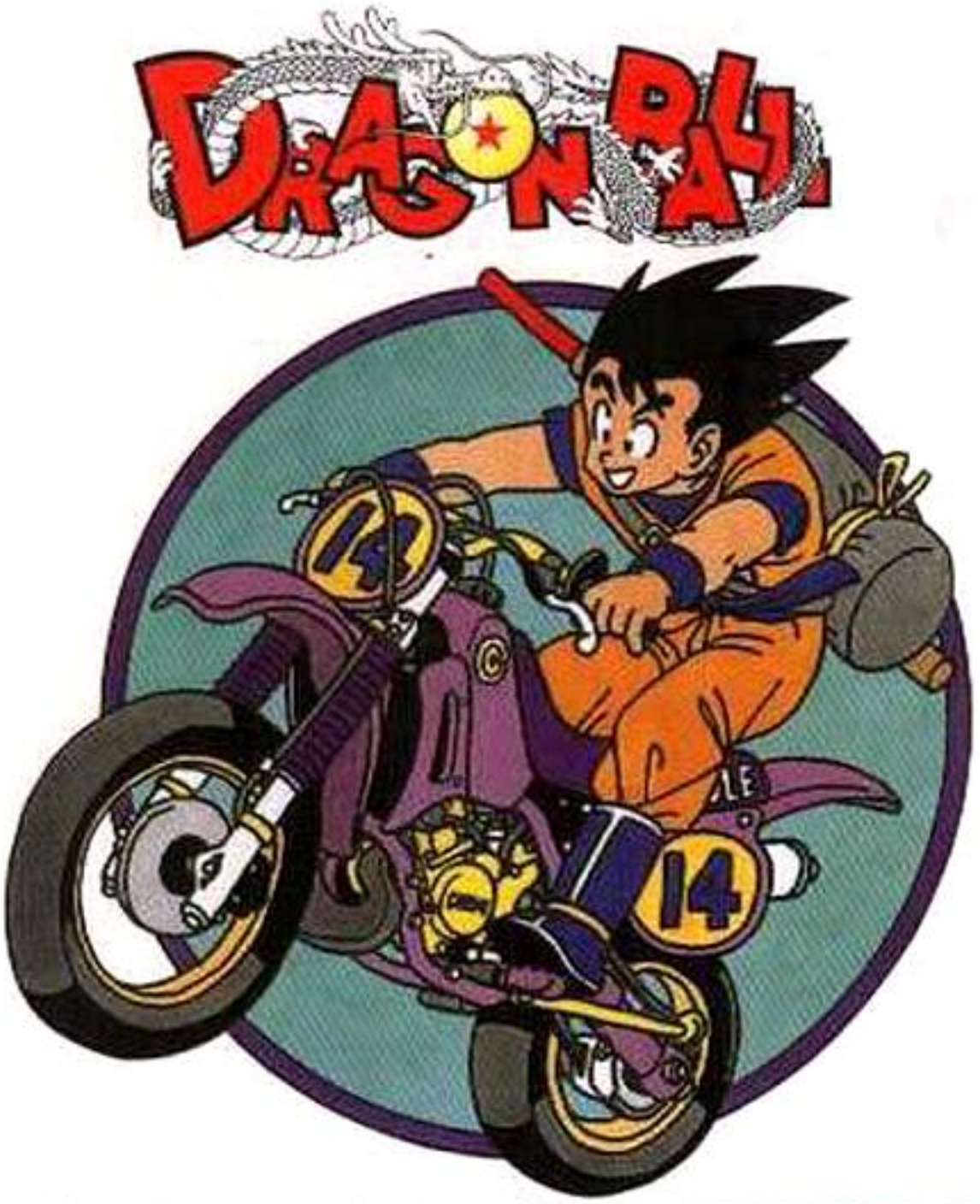
제168화 8명의 승자 결정!!



제23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예선

鳥山明 BIRD STUDIO

IQ JUMP COMICS



살아있는 만화의 전설 〈드래곤 볼〉!
무삭제 오리지널판 완벽 부활!!

scanned by raprnb